• 불교의 생활화
• 불교의 현대화
• 불교의 세계화

현대불교

신상품 LED인등·LED전구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제 685 호 구독신청 02)2004-8212 Buddhanews.com 불기 2552년 6월 25일(음력 5월 22일) 수요일(주간)

"산사에서 禪禪한 여름을"
4 전국 산사 수련회 일정

'조선불교통사' 첫 완역
6 동국대 김진무·한상길 교수

"절에서 茶 만드니 좋아요"
19 금산사 '차 만들기' 수련회 인기

"열심히 사는 사람이 부처"
17 선지식-극락선원 회주 금담 스님

불교인재 풀 바닥 '위기'

존폐 기로에 놓인 부산 대불련

반 백년 역사의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김정현, 이하 대불련)가 심상치 않다. 전국 150여개 지회가 등록된 대표 청년 불자단체인 대불련이 요즘 위기를 맞고 있다. 부산 · 제주 · 충청 · 강원 지부 등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가운데, '불심수도'로 불리는 부산은 '전체 회원 20명'이라는 충격적인 상황을 맞고 있다. 사찰 1300개, 불자 200만명, 불교교양대학 9곳에서 연간 1500명 졸업생 배출. 부산 불교는 한국 불교의 자존심이다. 그런 부산에서 대불련이 위기를 맞았다니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대불련의 위기는 곧 불자인재양성 풀이 망가진 것을 뜻한다. 무엇이 대불련 부산지부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부산 대불련의 위기 상황을 집중 조명했다.

9개大 회원수 20명 불과 '고사직전'
회원수 급감·교계 지원 감소 '이중고'

올해로 42주년을 맞는 대불련 부산지부(지부장 박재영)는 70년대 부산 젊은 불교의 근간이었다. 1977년 당시 2000여 명에 육박하는 회원을 보유하는 등 젊은 불심의 열기가 뜨거웠다. 1971년 당시 부산시지부장을 역임한 현익채(금정중학교 교장) 자문위원은 "그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신심이 대단했었다"며 "1975년 11월에 <부산시 대불련 10년사>도 편찬됐을 정도로 부흥의 시기를 보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격동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유신정권에 항거하는 대학생 중심의 민주화운동 속에서 모든 동아리가 시위에 참여했고, 대불련 부산지부도 민중불교로 흘러가면서 점차 회원 수가 줄어들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1990년대에는 전체 회원수가 300여 명을 밑돌며 매주 한 차례 열던 정기법회 참석자는 50명 선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2000년대에 접어들자 새내기 회원이 급격히 줄어들더니 급기야 2008년 현재 '9개 대학 총 회원 20명' 사태를 맞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2006년 당시 대불련 부산동문회장 오윤표 씨는 "꺼져가는 대학생 불교의 불씨를 살리는데 동문들이 힘을 모아 회원 전원이 전법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진력할 것"이라는 당찬 포부를 밝혔지만, 이미 대불련 부산지부는 위기에 빠져있었다. 박재영 부산지부장은 "1학년 새내기가 단 한명도 오지 않는다"며 "4학년 기존 회원이 전부인 상황에서 내년도 신입회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대불련 부산지부는 완전히 추억 속에서만 남게 될 것"이라는 비관적 분석을 내놓았다.

이처럼 대불련 부산지부가 존폐위기에 놓인 가장 큰 원인은 요즘 대학생에게 신심 자체가 없다는 데 있다. 현익채 자문위원은 "요즘 대학생들은 절에서 신행하는 것은 싫어하고 유흥만 즐기려하는 것 같다"며 "종교에 대한 열정이 줄어든 것이 대불련 부산지부가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라고 진단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인터넷 매체'의 보편화다. 인터넷만 접속하면 큰스님 법문부터 불교 교리까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찾아볼 수 있어 굳이 사찰까지 찾아가 궁금증을 해소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

또한 종교는 고리타분하다는 고정관념과 인문학의 위기 또한 대불련에 '악재'로 작용했다. 여기에는 IMF 등의 사회적 위기 상황을 거치며 등장한 '실용주의'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회분위기야말로 대학생들을 '취업 공부'로 몰아넣으며 '학문보다는 취업'이 중요하다는 학업풍토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결국 대불련으로의 발길 역시 끊길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시대상황만 탓할 수는 없다. 불교에 관심을 갖고 다가오는 젊은 불심에 화답하지 못한 것 역시 현 위기 상황이 온 이유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김용철 前 동명대지회장은 "지도자 부재와 교구재 부족에 항상 시달렸다"고 회상했다.

대불련 부산지부의 위기는 불교계 내부에서 비롯됐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재영 지부장은 "부산지부에서 운영비를 받는데 한 학기에 50만원을 받고 지부장은 장학금으로 1백만을 받게 되어 있지만 재작년부터는 장학금은 20만원, 운영비는 1년에 50만원이 전부였다"며 "연등축제나 각종 행사비 · 법회비 · 교재복사비 · 다과비 · 법사님 강사비 등 꼭 필요한 곳에만 지출해도 예산이 턱없이 모자란다"고 귀띔한다. 재정이 열악해져 아무도 부산지부장 직을 아무도 맡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이에 현익채 자문위원은 "부산시에 규모가 큰 장학회가 7곳이나 있지만 정작 장학금이 필요한 대불련 장학회는 없다"며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회생과 폐지의 기로에 선 대불련 부산지부. 명맥만 잇는 버티기가 아닌 제2의 도약을 위한 방법은 없을까. 대불련에서 대학시절을 보낸 선배들에게서 다양한 방안이 나왔다. 대불련 부산동문회 김동률 사무국장은 "졸업 후에도 동문회를 통해 인연의 끈을 놓지 않고 후배들을 위한 장학기금 마련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춰줘야 한다"고 말했다.

취업이 대입의 목표인 세태를 반영한 방안도 제기됐다. 현익채 자문위원은 "사회복지기관에서 대불련을 활용해 봉사증이나 성적에 가산점을 줘 학점에 도움이 되게 하면 학생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 위원은 "영어가 세계공용어인 만큼 영어로 법문을 하거나 영어템플스테이 등을 대불련에 접목하면 신선한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며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포교방안 수립을 강조했다.

대불련 중앙지부 한승희 지도위원장은 "어린이청소년 포교만큼 대학생 포교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제대로 된 관리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강진 · 박지원 기자



5월 25일~6월 2일, 미얀마 사이클론 최대 피해지역인 이라와디주에서 후원물품을 나눠주는 붓가락키타 스님.

"미얀마에 '희망·자비' 전해요"

불교계 단체·사찰서 구호성금·물품 후원 잇달아

싸이클론 피해로 신음하는 미얀마 불자들을 돕기 위한 개별 사찰과 불교단체들의 구호성금 및 물품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조계사, 법주사 등 16개 사찰과 참여불교재가연대 등 29개 불교단체들로 구성된 미얀마불교대책위원회(공동대표 윤천수)는 6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6월 28일까지 의류 중심의 물품후원을 받아 7월 4일 1차로 미얀마 현지로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7월 말경 2차 발송분에서는 생필품 · 현물 등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미얀마 현지에서 활동하고 돌아온 보리수선원 주지 붓다락키타 스님은 "연고 없는 아이들을 위한 학교지원, 씨앗을 비롯한 농사에 필요한 물품 일체 지원, 식량지원 등이 시급하다"며 "보리수선원에서는 3만 달러의 성금을 모아 추가로 현지 주민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계사(주지 세민)는 6월 18일 대웅전에서 미얀마 출신의 산디마(미얀마선원장) 스님에게 구호성금 1000여 만원을 전달했다.

한국위빠사나선원 원장 묘원 법사는 6월 15일까지 모은 성금 2500여 만원을 가지고 17일 출국, 미얀마 양곤에 있는 스님과 고아들에게 보시금을 나눠주었다.

지난 달 쌀 60톤과 기금 1000만원을 주한 미얀마 대사관에 전달한 정토회는 6월 19일 서울 정토회관에서 미얀마 사이클론 희생자를 위한 천도재를 봉행하고, 성금 500만원을 추가로 기탁했다.

김성우 · 김강진 기자

李 대통령 "대운하 포기"
종교·시민단체 환영 일색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가 사실상 취소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6월 19일 연 특별기자회견에서 "국민이 원치 않으면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종교 · 시민 · 환경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불교환경연대는 6월 19일 성명서를 통해 "기자회견문에서 상당한 진정성이 느껴지고, 뒤 이어 국토해양부가 후속 조치를 통해 '대운하 건설을 위한 연구용역을 중단하고 운하사업준비단도 해체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볼 때 이번 대통령의 발표는 사실상 명백한 포기 선언"이라며 국민의 승리를 자축했다.

그러나 종교 · 시민 · 환경단체들은 "아직 완전히 백지화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강진 기자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법률사무소 서안 •취급업무 : 민사·형사·가사·행정
강영화 변호사 | 031)436-3114 010-7504-4521
김기현 변호사 | 031)436-3054 017-535-0685

www.buddhabook.co.kr
02_3672_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세계최고의 염주 소원성취 척척
금강염주
북한에서 소량 생산되는 세계 희귀 금강석과 올이온, 약알칼리, 게르마늄 등을 이온 결합하여 특수 소성된 친환경적인 최첨단 기능성 염주
값 245,000 | 02)723-0909

불가 최초 관불 관욕 전용 관불수향
전단향이 그윽한 향탕수로 관불,관욕시 생수에 희석하여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능인향당
향 · 조각 · 공양물 02)3663-6777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장성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천안 동심사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LED 인등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아름다운 등
미래의 소중한 꿈을 담아 삼보공양을 찬덕연등이 함께 합니다
영가등
주름등
팔각봉축접등
청사초롱
육각조립등
공단등
오색등
칼라(보카시)연등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죽비와 목탁



김성우 취재부장
buddhapia5@buddhapia.com

소통리더십, 절집안 도입 시급

이명박 대통령이 6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30개월이상 쇠고기 금지 협상'과 '대운하 건설의 사실상 포기' 등을 밝히며 국민 앞에 뼈저리게 반성하는 모습은 이른바 '명박산성'이란 소통(疏通)부재가 얼마나 심각한 후유증을 야기하는지를 보여주었다.

한편, 정치 지도자들이 소통의 경맥동화증에 시달리는 동안, 민간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프리허그(freehugs: 안아주기) , 세족식(洗足式), 호프 데이 등 감성 리더십으로 직원들과 오프라인 스킨십을 강화하는가 하면, 휴대전화, e메일, 인터넷망을 통한 온라인 소통량도 점점 늘이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CEO들의 '소통리더십'을 배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전원 합의제의 의결 구조인 대중공사(大衆公事)의 전통을 이어 온 절집안의 '소통 지수'는 어느 정도일까. 대답은 극히 부정적이다. 정치권에 훈수를 두기가 민망할 정도로 종단마다 '불통'으로 인한 갈등이 노출되고 있다.

태고종은 총무원과 보우승가회와의 갈등으로, 진각종은 현 집행부와 前 통리원장측과의 힘겨루기로, 조계종 선학원은 기획이사 법진 스님과 총무이사 철오 스님측으로 이사회가 양분되어 홍역을 치루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교단 내분이 밖으로 종권(宗權) 다툼으로 비쳐지고, 불교계 전체의 위상을 추락시킨다는 데 있다. 게다가 상호간의 공방과 소송 등으로 인력과 삼보정재가 소모되다 보니 수행·포교란 본분사를 소홀히 할 수 밖에 없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실제로 태고종과 진각종은 소송과 분규 등으로 종단 이미지가 훼손되고 대사회적인 포교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된 상태다. 반면, 천주교의 중앙집중체제와 승려 노후복지시스템을 벤치마킹한 천태종은 일사분란한 리더십으로 나날이 사회적인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옛말이 있다. 별빈(체탈도첩)과 같은 극약처방을 하기 전에 서로 충분한 대화와 양보로 합의점을 도출했다면, 지금과 같은 난관에 봉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불조(佛祖)의 혜명(慧明)을 이어온 절집안에서 마음과 마음에 장벽이 생긴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다.

교단 내부에서부터 중도·화쟁(和諍)의 소통리더십을 발휘해 불자들을 바르게 이끌고,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안심(安心)과 희망을 주는 거룩한 승가의 위의를 회복하길 삼가 기원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송호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한국 '전통사찰'을 관광상품으로

문화사업단 '33 관음성지' 순례상품 개발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20곳도 추가로 지정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이 전통사찰을 활용한 관광포교에 나섰다.

불교문화사업단은 6월 18일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사업설명회를 열고 '한국33관음성지순례'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국33관음성지순례는 매년 80만명이 참여하고 있는 일본33관음성지·88관음성지 순례에서 착안해 내놓은 관광상품이다.

불교문화사업단은 이 사업을 통해 기존 일본 관음성지 순례객에게 한국 관음성지를 소개, 한국 방문자 수요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이 시작되면 한국 관광사업이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일본 방문객들에게 우리 불교문화를 제대로 알리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불교문화사업단은 우선 서남권, 남부권, 동남권, 동북권 등 4개 영역으로 나눠 관음성지를 선정했다. ▲서남권은 강화 보문사·서울 조계사·화성 용주사·예산 수덕사·공주 마곡사·보은 법주사·김제 금산사·부안 내소사·고창 선운사·장성 백양사, ▲남부권은 해남 대흥사·여수 향일암·순천 송광사·구례 화엄사·하동 쌍계사·남해 보리암, ▲동남권은 부산 범어사·양산 통도사·경주 불국사·경주 기림사·합천 해인사·김천 직지사·대구 동화사·영천 은해사·의성 고운사, ▲동북권은 삼척 신흥사·양양 낙산사·평창 월정사·영월 법흥사·원주 구룡사·여주 신륵사·서울 봉은사·서울 도선사 등이다.

성지순례는 3박 4일 또는 4박 5일 코스로 영역별로 짜여져 있다. 일정 중 하루는 템플스테이 체험으로 진행되며, 33개 사찰 완주자를 위해서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소원성취 기념품이 제공된다.

순례자 서비스 개발, 관음성지 유지 관리 등을 맡게 될 불교문화사업단과 관광공사의 올 모객목표는 3000명. 내년부터는 5000명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성지순례 시행에 앞선 8월 6~9일에는 100명 규모의 일본 순례단이 방한, 동남권 사찰을 대상으로 사전답사할 예정이다.

불교문화사업단은 국내 관광객들을 위해서도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20곳을 추가 지정,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에 추가로 선정된 사찰은 서울 진관사·금선사, 경기 가평 백련사·남양주 묘적사, 충남 서산 서광사, 충북 단양 구인사·진천 보탑사, 경북 구미 도리사·영덕 장육사, 경남 창원 성주사·함양 벽송사, 대구 동화사·유가사, 전북 고창 선운사·무주 안국사, 전남 화순 쌍봉사·합평 용천사, 광주 증심사, 제주 관음사·법화사 등이다.

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진경 스님은 "이런 사업들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찰을 찾고 템플스테이 등을 통해 전통문화를 체험토록 해 관광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회당학원 21대 이사장 진각종 혜정 주교 선출



학교법인 회당학원 제21대 이사장에 진각종 유가심인당 혜정(최종웅) 주교가 선출됐다.

회당학원 이사회는 6월 16일 서울 진각종 총인원 내 통리원장실에서 임시이사회를 열어 이사장에 前 진각종 교육원장 혜정 정사를 선출했다.

서울 진선여중·고, 대구 심인중·고교, 경주 위덕대 등 회당학원 산하 학교를 이끌게 된 신임 이사장 혜정 정사는 인사말을 통해 "회당학원 이사회와 설립종단인 진각종 및 학원 구성원들의 화합을 바탕으로 학교발전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혜정 정사는 1975년 유가심인당 교화를 시작으로 종의회 의원과 진선여고 주임정교, 회당학회장, 그리고 교육원장과 진각대학장 등을 역임했다.

김성우 기자



조계종 제35기 행자교육 시작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은 6월 18~22일 월정사에서 서울·경기·강원 교구본사 행자교육을 실시(사진)하는 등 제35기 행자교육을 시작했다. 김성우 기자

조계종, 태안 피해지역에 지원금

사찰·단체 등 성금 모금…장학금·생계비 전달

조계종 총무원(원장 지관)과 제7교구본사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옹산)는 6월 15일 태안군 문예회관에서 충남 태안지역 기름유출 사고 피해지역 학생 및 주민에게 지원금을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지원금은 총 1억2171만원으로 종단 산하 사찰 및 단체들의 모금으로 마련됐다. 성금은 학생 100명의 장학금(초·중·고학생 30만원, 대학생 50만원)과 피해가정 243가구(가구당 37만원)에 대한 생계비로 각각 지급됐다.

성금 전달식에는 수덕사 주지 옹산 스님, 진태구 태안군수, 이용의 태안군의회 의장, 수덕사 및 태안군 사암연합회 소속 스님 30여명 등과 태안군 피해가정 주민 및 불자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강진 기자

조계종 종회 승려노후복지특위 3차회의 개최

"전담기관 설립 先과제"

승려노후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담기관 설치, 법령 및 제도 정립, 재정조달 문제 해결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연구보고가 발표됐다.

조계종 승려노후복지특별위원회는 6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분과회의실에서 제3차회의를 열고, 승려노후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법제 등의 개요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월정사 박재현 종무실장은 '조계종 승려노후복지 현황과 정책과제'란 발제를 통해 "승려노후복지사업이 시행되려면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법인형태의 재단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실장은 승려노후복지 관련 수익금 사업, 기금 운용, 재정우량사찰 종단목적사업분담금 등을 통해 재정을 충당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적극 활용해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받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고경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승려노후복지를 위한 국가복지제도의 고찰'이란 주제발제에서 국가복지제도로 승가노후복지에 활용할 수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사회복지서비스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활용한 노후복지를 제안하기도 했다.

김강진 기자

현대불교 영상사업 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문의 : 02-2004-8279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 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이사회 파행에 대한 재단의 입장

근간에 철오스님을 비롯한 일부 이사스님들의 상식을 벗어난 행동으로 선학원 이사회가 파행으로 일관되고 있는 사태를 걱정하는 사부대중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아울러 일부 이사스님이 재단의 명예와 권위를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동들을 더 이상 침묵으로 지켜볼 수 없기에 재단법인 선학원의 입장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1921년 설립된 이래 80여 년간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지켜오고 있는 재단법인 선학원은 이제 과거로부터 보다 발전적인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노력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학원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시점에 일부 이사스님들의 사욕으로 인해 발목이 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뒷걸음을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이사회의 파행은 철오스님을 비롯한 일부 이사스님들이 자정이라는 말로 자신들의 정치적인 행보를 포장하고, 개혁이란 말로 자신들의 뜻을 숨긴 채 왜곡된 진실로 대중을 선동하며 그 뒤에 숨어 자신들의 목적한 바를 취하려 함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철오스님은 당시 재단법인 선학원의 총무이사로서 직책이사 일괄사퇴를 결의한 재단의 종무회의의 권위를 스스로 짓밟고, 정관 14조와 15조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소집된 4차례의 이사회를 불법적인 이사회로 날조하여 유포하며 의도적으로 이사회에 불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오스님은 논의와 화합을 통해 대중공의를 중시하는 재단법인 선학원 정관을 교묘히 이용해 이사회 파행을 주도하고, 내편이 아니면 모두 적이라는 식의 파당을 지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금정사를 비롯한 공사찰의 감사를 결의한 이사회 결의마저 부정하고 오히려 외부감사를 주장하며, 선학원을 '한국불교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모아놓은 축소판'이라는 등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인 행동과 말들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재단법인 선학원은 더 이상 재단의 권위와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지켜볼 수 없습니다. 게 소집된 4차례의 이사회를 불순한 의도로 불참하여 파행으로 만들고 있는 철오스님을 비롯한 일부 이사스님들은 당당하게 이사회에 참석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재단법인 선학원의 이사로서 책임 있고 상식적인 모습을 보이기를 촉구합니다.

2008. 6. 17.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도형

"北에 있는 가족들 도와주세요"

좋은벗들, 새터민 기자회견…식량난 실태 증언·지원 촉구

굶주리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이번에는 새터민(탈북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대북지원을 호소하고 나섰다. 대북지원단체 좋은벗들(이사장 법륜)은 6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북한주민 6~7월 아사를 막기 위해 식량 20만톤 지원을 촉구하는 새터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북한 식량난 문제, 심각하지 않다"고 하는 정부 및 다른 대북단체들의 발표에 대한 반박이기도 했다.

이날 참석한 새터민 20여명과 좋은벗들 이사장 법륜 스님은 기자회견 내내 비통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일부는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며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면서 "중국이나 미얀마를 돕자는 말은 있어도 북한주민들을 돕자고 대대적으로 나서는 움직임은 없다"고 토로했다.

특히 함경북도 온성 군농촌경영위원회에서 복무한 이석철(가명 · 2000년 탈북)씨의 '북한 식량생산과 인도적 지원에 대한 소견'은 실제 내부 사정을 아는 인물의 발언이라 관심을 끌었다. 이씨는 "함북 온성이 비옥토였으나 1958년 이후 계속 화학비료를 써와 농토가 산성화 되어 단위 생산량이 급감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북한 경작지는 논 60만 정보(핵타르), 밭 70만 정보로 총 130만 정보이며 지난 해 식량 생산량은 정보 당 1.5톤을 생산했다고 가정했을 때 195만 톤, 많이 잡아도 260만 톤 정도라 설명했다. 여기에 수해피해로 10% 식량생산량이 감소했을 것이라 감안하면 최대 234만톤을 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어 탈북시인 최진이씨는 "남한 사람들은 북한에서 10%가 아사 위기라 하면 '식량난이 그리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1996년 '고난의행군' 때도 북한 인구가 10% 줄었다는 점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최씨는 "남한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지 않으면 북 체제 변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한 사회에 대한 정확한 상황정보 파악 및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력 주장했다.

또 새터민 단체를 만들어 이끌고 있는 김숙영(가명)씨는 "우리가 지금 울 때가 아니다. 북한 탈북자들이 모여 북한 가족을 살리기 위해 서명 운동을 하고 있으니 참여해 달라"며 "사람이 굶어죽는 것을 알면서도 돕지 않으면 그것 역시 살인과 같은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탈북시인 장진성씨의 시 낭송, 북한 주민들의 실태보고와 북한 사정에 대한 발언,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발표, 희망을 전하는 식량지원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다.



"북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 쌀이 갔으면…" 새터민들이 '좋은벗들'이 연 기자회견에서 북한 주민 식량지원을 호소하며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이날 회견 내내 눈시울을 적신 법륜 스님은 "국내 사정이 어수선하다 보니 북한 동포들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어도 관심이 부족하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저마다 촛불을 들지만 우리 동포가 죽어간다고 해도 촛불 한 자루 들지 않아 안타깝다"며 정부와 국민의 관심을 촉구했다.

한편 JTS는 북한주민들은 물론 중국 지진, 미얀마 사이클론 피해자들의 실상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6월 19일에는 연기자 김여진씨가 서울 봉은초등학교 6학년 교실을 찾아 일일교사로 나섰다. 이날 행사에서는 미얀마 · 중국에서 고아가 된 아이들과 북한 식량난으로 아사위기에 처한 아이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주며 '사랑의 저금통'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전했다. 아시아의 아픔을 나누기 위한 일일교사 프로그램은 이후 연기자 배종옥 · 한지민 씨 등으로 이어진다.

글 · 사진=김강진 기자

석·박사 스님 등 세상 향해 "할!"

자성청정실천운동본부 美쇠고기 등 현안 관련 시국선언문

조계종자성청정실천운동본부(이하 자성청정실천운동본부)가 '스님들의 사회운동 참여'를 내세우며 6월 17일 조계사 산중다원에서 '현 시국에 대한 조계종 승려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자성청정실천운동본부는 지난해 중앙승가대 석 · 박사 스님 40여명이 결성했는데, 지난 6 · 10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활발히 사회운동을 펼치기 위해 최근 재조직, 현재 262명의 스님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다.

자성청정실천운동본부는 이날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적 현안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 한반도 대운하, 공기업 민영화, 독단적인 사정책 등을 지적하는 '조계종 승려 시국선언문'을 낭독했다. 스님들은 시국선언문에서 ▲광우병 위험 쇠고기 재협상 ▲대운하 사업 중단 ▲수돗물 민영화 철회 ▲언론장악 중단 ▲교육자율화 철회 등 5개 항목을 '우리의 요구'라는 제목으로 강력 요청했다.

스님들은 "불교계에서 지금까지 할 말을 제때,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며 "자성청정실천운동본부에서 앞으로 사회문제를 등한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시국선언에는 진관 · 법운 · 민성 · 보륜 스님 4인 공동대표를 비롯한 8명의 스님이 참가했다. 한편 자성청정실천운동본부는 오는 9월께 본부 현판식을 봉행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김강진 기자



재가연대가 창립 9주년을 맞아 불교계 각계 인사를 초청, '후원의 밤' 행사를 열었다.

9돌 맞은 재가연대 '후원의 밤'

사부대중 300여명 참석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김동건)가 6월 1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다시, 희망을 말하다'란 주제로 '창립 9돌 후원의 밤'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총화종 총무원장 남정 스님을 비롯한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김동건 대표는 축사를 통해 "교단자정과 재가자 교육의 역할을 수행해 온 재가연대는 앞으로 초심으로 돌아가 명상수행, 인재육성 활성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재가불자의 참여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노덕현 기자

교통지도도 종교편향?

수도권교통정보시스템 사찰정보만 누락 '물의'

교회 · 성당은 표기하면서 사찰만 쏙 뺀 정보제공 서비스가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가 수도권 시민의 빠른 길 안내와 대중교통 검색 편의를 위해 제공한 수도권교통정보시스템 '알고가(www.algoga.go.kr)'에는 조계사, 봉은사 등 사찰은 표기되지 않고 교회와 성당은 빠짐없이 등록되어 있다.

직접 서비스를 이용한 후 이 사실을 제보한 한 불자는 "정부 담당자가 의도적으로 사찰 표기를 누락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지도 서비스 관리업체인 한국공간정보통신(대표이사 김인현)의 다른 제품에는 조계사, 봉은사 등 사찰 위치를 표기해 종교편향에 대한 의혹을 더했다.

한국공간정보통신 구대용(미래컨텐츠사업본부)씨는 "1~2주전 지도 버전을 갱신하면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 종교시설, 건물 등 레이어가 많다 보니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으나, 같은 종교시설 중 교회 · 성당은 표기하면서 사찰은 누락시킨 사유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조동섭 기자

"묵서지편 포괄적 연구 필요"

불교문화재연구소 학술세미나

1차 판독 오류 수정, 전문학자의 연구 제안 등 '묵서지편(墨書紙片, 먹으로 쓴 종이뭉치)' 연구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범하)는 6월 20일, '불국사 석가탑 묵서지편의 기초적 검토'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묵서지편 판독 주역인 노명호 교수(서울대), 이승재 교수(서울대)를 비롯해 판독순서에 이의를 제기했던 최연식 교수(목포대) 등 묵서지편 전문가가 모두 모인 학술세미나는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는 일각의 견해와 달리 '묵서지편' 연구가 이제 시작임을 알린 자리였다.

1997 년 '묵서지편'을 직접 분리 작업한 박지선 교수(용인대)는 '묵서지편 보존처리와 연구에 관한 제안'에서 1966년 불국사 석가탑에서 출토 후 1997년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에서 보존실로 옮겨지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했다.

박 교수는 "출토 당시 '묵서지편' 위에 놓여있던 <보협인다라니경>조차 주목받지 못할 정도로 석가탑 출토유물의 중심이 '묵서지편'인 것으로 조명됐다. 불국사 석가탑 출토유물에 대한 포괄적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석가탑 출토유물 반환을 위한 조계종의 움직임도 가시화됐다.

조계종 중앙종회 사회분과 박물관 소위원회는 7월 1일 오후 2시 불교역사문화기념관 분과회의실서 영담, 학담, 성정 스님 등이 참여하는 '제1차 국보 제126호 불국사 석가탑 출토유물 반환을 위한 소위원회'를 개최한다.

조동섭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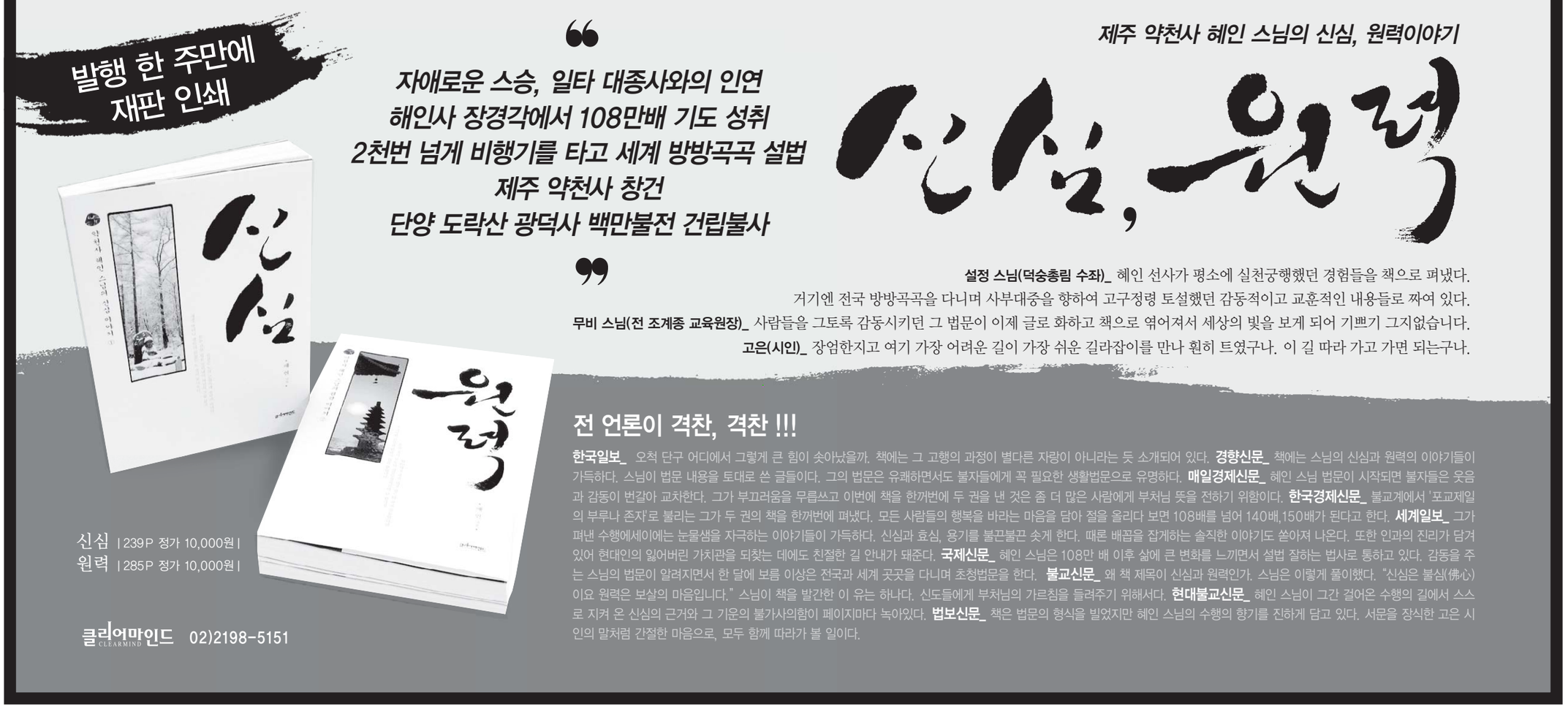
선학원 이사장 도형 스님 "이사회 안에서 문제 해결"

선학원 이사장 도형 스님은 6월 17일 임시이사회가 성원미달로 다섯 번째로 유회되자, 철오 스님 등 5인의 이사에 대해 이사회 참석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도형 스님은 "철오 스님 등 5인의 이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소집된 4차례의 이사회를 불법적인 이사회로 날조 유포하며 의도적으로 이사회에 불참하고 있다"며 "당당하게 이사회에 참석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했다.

김성우 기자





산사에서 禪禪한 여름 즐기세요

무더운 여름이 코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여름 방학과 휴가 시즌을 맞아 답답한 도시에서 벗어나 어디론가 떠나, 쉬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더위를 제대로 피하기 위해 이번 여름 산사로 떠나는 것은 어떨까? 템플스테이를 통해 마음속으로 여행을 떠나보자. 뜨거운 여름의 열기뿐만 아니라 마음의 열기를 식혀 줄 녹음 속 산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노덕현 기자

●산사 수련회 일정

지역	사찰명	프로그램	날짜	대상	전화
서울	조계사	템플LIFE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외국인	02-732-5293
	봉은사	템플스테이	상시 1박2일	누구나	02-3218-4800
	길상사	여름 수련회	1차: 7월 20일 ~ 23일 2차: 7월 27일 ~ 30일 3차: 8월 3일~ 5일 4차: 8월 10일~ 12일	중,고등학생 일반인 어린이 어린이	02-3672-5945
		주말 선수련회	매월 넷째 주말(토, 일)	성인	
	보문사	보문사 템플LIFE	상시 1박2일	누구나	02-928-3797
	묘각사	낙산 템플스테이	상시 1박2일	누구나	02-763-3001
	호압사	템플스테이	상시 1박2일	누구나	02-803-4779
	금선사	템플스테이	1차: 7월19일~20일 2차: 7월 25~27일 3차: 8월 8일~10일 4차: 8월 23일~24일	일반인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일반인	02-395-9911
인천	전등사	전통문화체험	1차: 7월 21일~24일	일반인	032-937-0125
		템플스테이	2차: 7월 28일~31일 3차: 8월 4일~7일 4차: 8월 11일~14일	초교 4~6년 중,고등학생 일반인	
	연등국제선원	템플스테이	1차: 7월 21일~27일 2차: 7월 28일~ 3일 3차: 8월 4일~7일	일반인 일반인 초등학생	032-937-7033
경기	용주사	孝行여름수련회	1차: 7월 28일 ~ 30일 2차: 8월 1일 ~ 3일 3차: 8월 8일 ~ 10일	초등학생 일반인 중,고등학생	031-239-9391
	신흥사(당성)	어린이 불교학교	7월 22일 ~ 24일	초등학생	031-357-2695
		청소년 여름 수련법회	7월 27일 ~ 30일	청소년	
		성인 야름 수련법회	8월 2일 ~ 3일	일반인	
	봉선사	여름숲속학교	7월 26일 ~ 28일	초등학생	031-527-1951
		여름수련회	1차: 7월30일 ~ 8월 1일 2차: 8월 9일 ~ 11일	중,고등학생 일반인	
	신륵사	템플스테이	상시 1박2일	누구나	031-885-2505
	용문사(2명)	용문사 산사체험	상시 1박2일(주말)	일반인 청소년	031-775-3797
	보광사	보광사 템플스테이	상시	누구나	031-948-7700
강원	월정사	단기출가학교	7월 1일 ~ 23일	일반인	033-332-6664
		어린이 박물관교실	7월 26일 ~ 29일	초교3-6학년	
		여름수련회	1차 : 8월 7일 ~ 10일 2차 : 8월 13일 ~ 17일	일반인 일반인	
	백담사	차와 함께하는 건당 템플	7월 12 ~ 13일	누구나	033-462-6969
		단식 그리고 꿈의 요가템플	8월 9일 ~ 10일	누구나	
	법흥사	어린이여름캠프	1차: 7월 25일 ~ 27일	어린이	033-374-9177
		몽당연필	1차: 7월 29일 ~ 31일 2차: 8월 2일 ~ 4일 3차: 8월 7일 ~ 9일	18세 이상	
	구룡사	구룡사 수련회	1차: 7월 15일~ 18일 2차: 7월 22일~ 25일 3차: 7월 29일~ 8월 1일 4차: 8월 5일~ 8일	1,3,4차성인, 2차 어린이	033-732-4800
	삼운사	삼운사 템플스테이	매월 1,3주 토요일 (1박2일)	누구나	033-241-1330
	삼화사	여름템플스테이	1차: 7월 11일 ~ 13일 2차: 7월 15일 ~ 17일 3차: 7월 21일 ~ 23일 4차: 7월 25일 ~ 27일 5차: 7월 28일 ~ 30일 6차: 7월31일 ~ 8월2일 7차: 8월3일 ~ 5일	누구나	033-534-7661
		외국인과 함께하는 중학생 템플스테이	1차: 8월 12일 ~ 15일 2차: 8월 18일 ~ 21일	중학생	
		어린이 여름불교학교	1차: 7월 23일 ~ 26일 2차: 8월 1일 ~ 4일	초등학생	
	법주사	여름수련회	1차: 7월 21일 ~ 23일 2차: 7월 25일 ~ 27일 3차: 7월 31일 ~ 3일 4차: 8월 7일 ~ 10일	초등학생 가족 일반인 일반인	043-543-3615
	보탑사	템플스테이, 어린이 여름학교	1차: 7월 5일 ~ 6일 2차: 7월 12일 ~13일 3차: 7월 20일 ~ 21일 4차: 7월 26일 ~ 27일 5차: 8월 2일 ~ 3일 6차: 8월 9일 ~ 10일 7차: 8월 23일 ~ 24일	누구나	043-533-6865
		어린이 여름불교학교	8월 16일 ~ 17일	어린이	041-841-6226
충남	마곡사	마곡사 템플스테이	상시 1박2일	누구나	041-337-6565
	수덕사	어린이 여름불교학교	8월 2일 ~ 3일	초등학생	
		여름 禪수련회	1차: 8월 6일 ~ 9일 2차: 8월 2일 ~ 3일 3차: 8월 2일 ~ 3일	일반인 일반인 일반인	041-857-8981
	갑사	주말가족 사찰체험	매주 토요일~일요일	가족단위	
		여름수련회	7~8월중 2박3일	누구나	041-662-3824
	부석사	부석사 템플스테이	매주 주말 운영	누구나	
		어린이 한문학당	7월 말~8월 초	초등학생	041-857-1854
	영명사	백련 템플스테이	7월~8월	누구나	
		어린이 여름 숲속 학교	7월~8월	어린이	
		백련축제 템플스테이	7월~8월	성인	041-664-2002
	서광사	서광사 템플스테이	1차: 6월 25~ 7월 15일 2차: 7월15일~8월 15일 3차:8월4~6일:여름불교학교	일반인 누구나 어린이·청소년	054-436-6084
경북	직지사	위빠사나 수행	7월 20일 ~ 26일	일반인	
		어린이여름불교	7월 28일 ~ 30일	초등학생	
		중 고등학생 템플스테이	8월 1일 ~ 3일	중,고등학생	
		참 나를 찾아 떠나는 행복명상	1차: 7월 12일 ~ 13일	일반인	054-436-6084

지역	사찰명	프로그램	날짜	대상	전화
경북	직지사	참 나를 찾아 떠나는 행복명상	2차: 8월 4일 ~ 6일 3차: 8월 9일 ~ 10일	일반인 일반인	054-335-3318
	은해사	여름수련회	1차: 7월 24일 ~ 26일 2차: 7월 28일 ~ 30일 3차: 8월 1일 ~ 3일 4차: 8월 8일 ~ 10일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일반인 일반인	054-744-2292
	기림사	기림사여름철템플스테이	1차: 7월 5일~6일(1박2일) 2차:7월 19일~20일(1박2일) 3차:7월 26일~27일(1박2일) 4차:8월1일~3일(2박3일)	누구나	054-744-1689
	골굴사	선무도 주말 템플스테이	연중 상설, 주말 프로그램 별도 운영	누구나	
		청소년 화랑 수련회	1차: 7월 20일 2차: 7월 27일 3차: 8월 3일 4차: 8월 10일 5차: 8월 17일	청소년	054-853-4181
	봉정사	봉정사 산사체험	상시 2박3일	누구나	054-552-7105
	대승사	대승사 템플스테이	상시 1박2일, 2박3일	누구나	053-985-4405
대구	동화사	동화사 여름수련회	1차: 7월 12일 ~ 13일 2차: 7월 19일 ~ 21일 3차: 7월 24일 ~ 27일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일반인	055-934-3110
경남	해인사	여름 수련회	1차 : 7월 8일 ~ 12일 2차 : 7월 15일 ~19일 3차 : 7월 22일 ~ 26일 4차 : 7월 29일 ~ 8월 2일 5차 : 8월 5일 ~ 8월 8일 6차 : 8월 12일 ~ 8월 14일	일반인 일반인 일반인 일반인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방하착 템플스테이	매주 토요일~일요일	누구나	043-543-3615
	쌍계사	쌍계사 템플스테이	1차: 7월 27일~30일 2차: 8월 01일~04일	누구나	055-382-7182
	통도사	일반인 수련회	7월~8월	성인	
		청소년 수련회	7월~8월 7월~8월	중등부 고등부	055-672-0100
	옥천사	어린이 템플스테이	7월 29일~31일	초교 3~6년	
		옥천사 템플스테이	상시 1박2일	누구나	055-352-1150
	표충사	사명대사 호국성지	1차: 7월 05일 ~ 06일	누구나	
		재약산 표충사 산사문화체험	2차: 7월 12일 ~ 13일 3차: 7월 19일 ~ 20일 4차: 7월 25일 ~ 27일 5차: 8월 1일 ~ 3일 6차: 8월 9일 ~ 10일		055-974-1112
	대원사(신청)	템플스테이	매주 토요일~일요일	누구나	051-508-5728
부산	범어사	어린이 여름 불교학교	7월 29일~ 31일 8월 2일~ 4일 8월 8일 ~ 10일	어린이 어린이 중,고등학생	
		여름수련회	8월 12일 ~ 15일 8월 29일 ~ 31일	일반인	
		여름 템플스테이	8월 18일 ~ 19일	누구나	051-508-0345
	홍법사	놀토 어린이 영어 템플스테이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초등학생	
		어린이 여름 수련회	7월 말 ~ 8월 초	초등학생	063-548-4440
전북	금산사	금산사 여름불교학교	1차: 8월 1일 ~ 3일 2차: 8월 8일 ~ 10일	초등학교 중,고등학생	063-561-1375
	선운사	선운사 템플스테이	상시, 매주주말	누구나	063-583-3035
	내소사	내소사 트레킹 템플스테이	7월 ~ 8월	누구나	063-636-3031
	실상사	실상사 템플스테이	1차: 7월 16일 ~ 19일 2차: 7월 23일 ~ 25일 3차: 8월 4일 ~ 7일 4차: 8월 9일 ~ 12일	누구나	063-243-8091
	송광사 (전주)	일반인 수련회	7월 26일 ~ 28일	일반인	
		청소년 수련회	8월 4일 ~ 6일	청소년	061-392-7502
전남	백양사	참사랑수행 템플스테이	매주 토요일~일요일	일반인,중학생 !	061-783-7600
	화엄사	내적치유와 참나 만나기	6월 28일 ~ 29일	누구나	061-754-5247
	선암사	선암사 사찰순례	상시 2박3일	누구나	061-755-0107
	송광사	초등학생 여름수련회	8월 9일 ~ 11일	초등학생	
		성인 및 청소년 여름수련회	1차: 7월 6일 ~ 10일 2차: 7월 13일 ~ 17일 3차: 7월 27일 ~ 31일 4차: 8월 3일 ~ 5일	일반인	
		중,고등학생 여름수련회	8월 3일 ~ 5일	중,고등학생	
		초등학교 여름수련회	8월 7일 ~ 9일	초교 3~6년	061-534-5502
	대흥사	초의스님 선다일여	3차: 7월 16일~ 20일 4차: 7월 30일 ~ 8월 3일 5차: 8월 6일 ~ 8월 10일	누구나	
		어린이 다도 아카데미	8월 12일 ~ 17일	어린이	061-533-3521
	미황사	한문학당	7월 27일 ~ 8월 3일 8월 6일~ 13일	초등학생	
		참사람의 향기 (단기출가수행프로그램)	매달 한번 7월: 12일(토) ~ 19일(토) 7박8일 진행	일반인, 학생	062-384-3009
	대원사 (보성)	대원사 템플스테이	1차: 7월 31일 ~ 8월 8일 2차: 8월 9일 ~ 10일 3차: 8월 15일~17일(2박 3일)	누구나	061-781-4800
	천은사	천은사 템플스테이	상시 2박3일	누구나	061-337-3440
	불회사	관음대참회수련회	7~8월중 4박5일	누구나	
		주말산사문화체험	매월 3째 토요일(1박2일)	누구나	061-334-2880
	심향사	심향사 템플스테이	상시 주말 1박2일	누구나	061-554-2634
	신흥사	섬으로 떠나는 역사여행	8~10월중 2박 3일	누구나	
		장보고 어린이 한문학당	7~8월중 6박 7일	어린이	064-738-5000
	약천사	휴-休 템플스테이	8월중	누구나	

인천에 시민선원 '응보사' 개원

혜국 스님 불상 점안식서 "마음의 눈을 뜨자" 당부


6월 14일 열린 응보사 개원식에서 법문하는 혜국 스님.

한 집 건너 교회가 있는 곳. 서울과 인천 등 전국토를 하느님께 봉헌하겠다는 '재단법인 성시화(聖市化)운동' 본부가 있는 인천에 불자들이 십시일반으로 건립한 시민선원이 문을 열어 눈길을 끈다.

인천 응보사(주지 인오)는 6월 14일 법당 개원식을 겸한 혜국 스님(충주 석종사 선원장) 초청 법회를 봉행했다. 2층 법당에 모인 스님 30명 등 100여명의 사부대중은 300여 신도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번듯한 시민선원을 개원한 데 대해 감격을 함께 나누었다.

이날 법당 불상 점안식의 증명법사로서 법문에 나선 혜국 스님은 "불상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점안식을 계기로 '점안(點眼)'의 의미를 깨달아 마음의 눈을 뜨자"고 당부했다.

혜국 스님은 "우리 육안은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린 사물의 움직임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도 보지 못하지만 고양이나 올빼미 같은 짐승들은 사람 보다 더 잘 본다"며 "사물을 보는 것은 눈이 아님을 알고, '누가 보는 지'를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혜국 스님은 "내 마음의 시비·분별과 불평, 불만을 내려놓고 일체를 평등하게 보면 세상이 평화롭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보인다"며 "세상의 온갖 시비와 분별이 모두 내 마음에서 나온 것임을 알 때 천안(天眼), 혜안(慧眼), 법안(法眼)을 갖추게 되고 마침내 일체를 부처로 보고 사랑하는 마음만 가득한 불안(佛眼)을 얻게 된다"고 법문했다.

도심 포교에 나선 지 불과 1년 6개월만에 수행중심의 시민선원을 개원한 인오 스님은 법회가 끝난 후 은사 혜국 스님이 선원 결제 기간에 어렵게 나와 법문해준 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수행과 포교에 전심전력할 것을 다짐했다.

지난 해 말, 신도들이 2층 건물 구입비로 3억원이란 거금을 모아 시주하자, 인오 스님은 무려 6개월간 밤낮을 쉬지 않고 직접 울력하면서 법당 내부와 절 외부를 소박하고도 아름답게 장엄했다. 출가 전 건축 분야 등 안 해 본 일이 없는 인오 스님은 불사를 수행삼아 개원준비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를 안 신도들도 자원봉사를 하거나 장엄물을 보시하기도 했다. 법당 외부를 연꽃문양으로 장엄한 송헌 정혜성 불화가는 "스님이 공심(公心)으로 신도들을 수행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느껴 저절로 사찰 불사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응보사는 앞으로 주말 참선법회와 경전반을 개설하고 선원을 상시 개방할 예정이다. 인오 스님의 자상한 1대1 점검과 수행지도로 항구도시 인천에 선(禪)바람이 불 날도 멀지 않은 듯 하다. (032)578-2225

김성우 기자

진안 천황사 전나무 천연기념물로 지정

한국에서 가장 큰 전나무인 진안 천황사 전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6월 13일 '진안 천황사 전나무'를 천연기념물 제495호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진안 천황사 전나무'는 천황사 남쪽으로 산 중턱 남암(南庵) 앞에 사찰의 번성을 기원해 식재한 나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천황사 전나무는 수령 400년(추정)으로 나무 높이가 35미터에 이른다. 수려한 수세 등으로 학술적 가치가 높아 전나무로는 처음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화두 참선으로 행복 찾아요

불교인재개발원 '간화선 입문프로그램' 개설

"올 여름은 화두 참구에 빠져보세요."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인재개발원(이사장 허경만)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간화선 입문프로그램-행복한 화두 참선'을 운영한다. 오는 8월 14~17일 3박4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조계종이 간화선을 대중화·생활화하기 위해 개발한 '간화선 입문과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평소 참선을 배우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부터 참선까지 쉽게 안내한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일상생활 속 과도한 업무, 복잡한 인간관계에 지쳐 스트레스 및 초조와 불안에 시달리는 생활인들이 화두 참선을 통해 바른 견해를 갖추고 일상생활에서 주체적으로, 지혜롭고 적극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데 있다.

이번 과정은 특히 여름휴가 기간에 3박4일 동안 경북 봉화 금봉암에서 증명법사 고우 스님(조계종 원로의원)을 모시고 진행된다. 선착순 20명 모집. 동참금 22만원. (02)735-2428

김강진 기자

조계사 343일 조상천도법회

- 49재와 구병시식을 각각 7번 모셔드립니다 -

귀의 삼보하옵고
불자님의 가정에 불보살님의 가피와 자비광명이 충만하기를 축원 드리옵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의 총본산인 조계사에서는 종단과 조계사의 발전, 그리고 조상영가 및 호국영령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343일 조상천도법회를 아래와 같이 봉행합니다.

조계사는 1910년 창건이래 그동안 많은 시련을 겪으며 큰 발전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2010년 조계사 개산100주년을 앞둔 현재 그동안 부지매입, 건축불사 등 각종불사를 추진하면서 누적된 부채로 인해 조계사의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조계사에서는 금년 백중 우란분절을 계기로 특별히 조상천도를 위해 제가 직접 49재를 일곱 번 모셔드리는 343일 조상천도법회를 봉행하여 여러 불자님들의 동참금으로 조계사의 부채문제를 해소하고, 불자님들의 선망부모 조상님들과 6.25전몰장병 및 호국영령들과 천재지변이나 각종사고로 희생된 모든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불자님들의 행복과 건강, 소원성취를 발원코자 합니다.
특별히 이번 343일 조상천도법회에는 각종 병고로 고통 받는 분들이 하루빨리 쾌차하고, 동참하신 모든 불자님들에게 일체의 마장과 장애가 사라져 소원을 속히 이룰 수 있도록 49재와 더불어 일곱 번의 구병시식을 지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조계사 조상천도법회에 동참하시면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모든 조상영가와 유주무주고혼들이 극락왕생하고, 가족 모두가 건강하며 하시고자하는 모든 일이 원만히 성취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불자님들께서는 깊은 신심으로 많은 동참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오며, 이 인연공덕으로 모든 소원성취하시고 무량복덕 이루시어 구경에 성불하시길 바라옵니다.

◉ 343일 조상천도법회 입재일 - **불기 2552년(2008) 6월 28일(음 5. 25) (토) 9시**
◉ 343일 조상천도법회 회향일 - **불기 2553년(2009) 6월 5일(음 5. 13) (금) 9시**

- 초청법사 큰스님 -
지관 큰스님, 무진장 큰스님, 동춘 큰스님, 혜정 큰스님, 도문 큰스님, 정무 큰스님, 밀운 큰스님

- 343일 천도재 7회 49재 일정표 -

⌑ 입재 법회 : 2008년 6월 28일(5.25) 토요일
⌑ 1회 49재 : 2008년 8월 15일(7.15) 금요일 (백중 우란분절)
⌑ 2회 49재 : 2008년 10월 3일(9. 5) 금요일
⌑ 3회 49재 : 2008년 11월 21일(10.24) 금요일
⌑ 4회 49재 : 2009년 1월 9일(12.14) 금요일
⌑ 5회 49재 : 2009년 2월 27일(2. 3) 금요일
⌑ 6회 49재 : 2009년 4월 17일(3.22) 금요일
⌑ 회향 법회 : 2009년 6월 5일(5.13) 금요일

◎ 343일 천도법회 동참금 : 일백만원[49재 7번//구병시식 7번]
※ 친가[시댁]와 처가[친정]의 5대조(고조부모 이하) 영가까지 위패를 모시고 343일 천도재를 봉행하오니 조계사홈페이지(www.jogyesa.org)에서 축원문양식을 다운받으셔서 영가 명단을 조계사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분납 가능하며, 당일은 혼잡하오니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접수처 : 전화 02-732-2183 팩스 02-720-1391
▮ 계좌번호 : 하나은행 111-054579-05905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대한불교조계종 조 계 사 주지 세 민 합장

할리우드 배우 샤론 스톤의 '口業'

해외불교칼럼

인간의 의사소통기능 중 하나인 말은 적시적소(適時適所)라는 시의성과 근접성을 함께 지닐 때 전달의 역할을 극대화한다. 이는 바꿔 말해서, 때와 장소를 제대로 못 가리느니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낫다는 뜻도 된다. 예컨대, '잘 먹고 잘 살아라' '요즘 나 걔 참 걱정돼' 등도 본디 별탈이 없는 말이지만 쓸 자리와 때를 잘못 가리면 꽤 성가신 일을 부를 수도 있다.

5월 24일 칸영화제에서 메가스타 샤론 스톤 보살님이 남의 카르마(業)를 들먹이다가 그만 나의 입의 카르마(口業)를 부르고 말았다. 정구업(淨口業)의 의미를 새삼 떠올리는 영국 BBC의 관계기사 중 일부다.



샤론 스톤의 '한마디'는 지진 참사를 겪은 중국인들에게 큰 상처가 되는 '구업'이 되고 말았다. 사진은 중국 쓰촨성 지진 장면과 샤론 스톤.

불교로 개종한 샤론스톤은 현재까지 최소한 6만8000명의 사망자를 낸 쓰촨성 대지진이 중국정부의 티베트정책으로 인한 카르마라고 말해 물의를 빚고 있다. 카르마에 대한 그녀의 정의는 혹시 이런 걸까? "네가 나쁘니까 네게 나쁜 일이 생긴 거지." 산스크리트어로 단순히 '행위'를 뜻하는 카르마는 불교, 힌두교, 시크교가 공유한 심오한 철학개념으로 불교종파들 간에도 그 풀이가 여러 갈래다.

런던불교사원의 담마다신 법사의 말이다. "일반적으로 전생이나 과거에 지어진 일로 인해 생겨난 결과를 카르마라 하는바, 이는 복합적인 인과의 법칙을 정리하여 과거의 어느 행적에 대한 응보의 문제로 수렴한 것이다. 동기는 행위로, 행위는 다시 결과로 이어진다. 대체로 행위를 유발한 동기, 곧 윤리적 의도가 결과에 영향을 끼친다. 자비와 관용과 같은 윤리적 의도는 더욱 긍정적인 공덕의 결과를 맺는다. 다른 한편, 자기과시나 탐욕과 같은 비윤리적 의도는 그 행위자와 수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해로운 결과를 부른다. 단, 지금처럼 복합적인 세상에서는 기타 요소가 적잖게 개입함으로 긍정적인 의도가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진다고 단언하긴 어렵다. 인과의 법칙은 인도 고유의 철학적 개념이나, 이를 잘 고르고 다듬어 널리 가르친 이는 붓다다."

이상이 보도 중 일부인용이다. 그러자 지구촌 네티즌들의 댓글이 줄을 잇는다. '샤론 스톤의 발언은 에이즈가 동성애와 혼전섹스에 대한 신의 심판이라는 뉴에이지 기독교근본주의자들의 백치 같은 망언과 다를 바 없다.(벤, 에딘버러)' '그녀처럼 말하자면, 노예제도를 자행한 자들은 몇 천 번이라도 지옥에 떨어져야 할 텐데,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다.(프라사드, 인도)' '중국대지진으로 티베트인 밀집 거주 지역에서도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했죠. 샤론 스톤님은 피해지역의 인구분포와 카르마에 대해 제대로 공부 좀 하셔야겠어요.(테리, 런던)' '샤론 스톤님께선 언제부터 동양철학에 그처럼 통달하셨나요? 소크라테스가 말했죠. 나는 아테네에서 가장 뛰어난 현자(賢者)다. 나는 내가 아는 게 없단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한 분야에서 성공한 일부 유명인들은 다른 분야에서도 덩달아 튀어보겠다고 푼수를 떨죠. 타이거 우즈님을 한 번 보세요. 누군가 그에게 피부색 등에 관해 맹한 질문을 하자 그는 빙긋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골프선수입니다. 나는 그처럼 오직 자신의 할 일에 충실한 타이거 우즈님을 진짜 존경해요. 골비고 맹한 저명인사님, 제발 그의 인품과 지성을 따라하지 마세요. 참 힘들어 보이시거든요.(마크, 벨기에)' 게재된 댓글 중 몇 가지다.

글 하나하나가 한 여름의 풀잎처럼 풋풋하면서도 면도날과 같다. 자신의 현재 신분과 성취감에 대한 지나친 자기만족은 오만과 독선을 부른다. 그리고 이는 경거망동과 판단결여를 함께 끌고 곧장 자기파멸의 지름길로 치닫는다. 순간의 구업으로 인해 이미지가 흔들리고 560억 원 남짓의 손해마저 봤다는 샤론 스톤 보살님은 이제 더 큰 공부의 길로 들어선 듯하다.

여기저기 걸림돌에 채여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지혜를 깨우쳐감이 곧 수행(修行)이 아닐까? 반드시 성불하시리라 믿는다.

편역 : 성휴 스님, 출처 : BBC, 中國新聞社

북경올림픽 선수단 명예고문 中 출신 81세 싱윤 스님 위촉

6월 6일 타이완 올림픽위원회는 중국본토 장수성 출신인 금년 81세의 싱윤(星雲) 스님을 오는 8월8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되는 베이징올림픽에 파견할 대표선수단의 명예고문으로 위촉했다.

이에 앞서 중국 측의 개막식참석 요청을 수락한 싱윤 스님은 이 영광을 약 80명의 타이완 선수들과 나누고 싶다고 감회를 피력했다. 불교가 이념적으로 분단된 중국과 타이완이 공유한 장구한 역사와 문화적 일체감을 다시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출처: 上海日報

구독 문의 02-2004-8200

생활영어로 읽는 불교

"It was a large glass of soy sauce" "그건 간장 한 바가지였어요"

An earthquake shook the entire Zen temple and destroyed parts of it. When it stopped, the young master told his the terrified disciples, "Now you have witnessed how a Zen master like me behaves in a crisis. As you have noticed, I did not panic. Fully aware of what was happening, I led you all to the kitchen, where we have all survived. However, for all my discipline and composure, I felt a little bit tense and had to drink a large dipper of water there." He suddenly stopped his long lecture and shouted at one of the disciples, "Hey, you there! What are you laughing at?" The disciple timidly replied, "That, that wasn't water. It was a large glass of soy sauce." Another disciple giggled, "Cheap show-off, again."



지진이 절을 뒤흔들고 몇 군데를 무너뜨렸다. 지진이 멈추자 젊은 선사가 겁먹은 제자들에게 말했다. "자, 이제 나와 같은 선사들이 위기에 어찌 대처하는지 잘 봤으리라. 너희들도 알듯, 나는 허둥대지 않고 상황파악을 잘해서 모두를 주방으로 데려가 살려냈느니라. 하지만 내 내공과 평상심이 잠시 흔들려 거기서 물 한 바가지를 들이켰더니라." 한참 연설을 하던 그가 느닷없이 빽 소리쳤다. "얌마, 거기 네! 왜 웃어?" 제자가 어눌하게 대답했다. "그, 그건 물이 아니라 간장 한 바가지였습니다요." 다른 제자가 키득댔다. "어휴, 또 싸구려 허세로군."

번안 : 성휴 스님, 그림: 이태수

월드스타 불심도 스타

올리버 스톤 ❺

혼돈 속에서 '참 나'를 만나다

인생·진로에 방황 중 베트남 파병 자원
전투부대 배속신청 등 자기학대적 파행

부모의 이혼과 부친의 파산으로 가정은 풍비박산되고 이역만리 사이공까지 가서 잠시 강사생활, 그리고 상선함대의 청소부가 되어 갑판을 닦다가 예일대학에 복학, 그마저 팽개치고 필사적으로 매달린 소설가의 꿈마저 물거품이 되어버린다. 갓 자라난 사랑니처럼 아픔만을 남긴 그 시절, 올리버 스톤은 이미 애늙은이가 되어있다.

당시 미국에는 징병제가 있어 얼마간 행세한다는 미국 가정의 아들들은 평화주의나 양심적 집총거부 등 온갖 잔머리들을 굴리며 캐나다 등지로 살살 내뺀다. 토막토막 난도질이 난 여린 삶이 막 이십대로 접어든 1967년, 그는 베트남파병을 자원한다. 자신의 진로에 대한 방향감각은커녕 존재이유마저 거의 상실한 그는 전투부대로 배속 신청한다. 이는 일종의 자기학대적 파행이자 자포자기적인 돌출행동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자기선택'을 통해 그는 흙탕물 같은 혼돈 속에서 되레 수정구슬처럼 정갈한 질서를 들여다보는 방편을 터득한다. 마침내 '나'의 참 모습을 헤아리게 된 그는 나 자신을 미워하는 자기혐오를 털어내고 자신을 사랑하는 지혜도 깨우친다.

그의 진창길 만행을 보며 내내 이 말을 떠올린다. 천재성이란 고통을 감내하는 능력이다(Genius means a capacity for suffering). 맨손으로 자수성가한 어느 미국인 사업가가 오래 전에 들려준 얘기다. 드디어 미군 25보병사단소속으로 베트남에 간 졸병 올리버 스톤은 모처럼 소원풀이를 한다. 그토록 바라던 격전지, 그 중에서도 최악의 상황인 호치민루트로 보내진 것이다. 이는 북부의 월맹정규군이 남부의 민족해방전선, 흔히 베트콩으로 알려진 게릴라들을 지원하는 병참보급로의 별칭이다. 프랑스 식민통치자와 맞붙을 때부터 활용된 거미줄 같은 샛길 보급로, 땅벌 집처럼 숨어든 무수한 지하보급기지와 소형군수공장들은 사실상 월맹 국경 밖에 있었다.

이 루트는 인도차이나 전체의 항불투쟁 지도자인 호치민의 영향권인 라오스 산악지대를 따라 내려오다 캄보디아접경지대에서 다시 월남으로 기어든다. 특히 이 분기점은 그가 배치될 즈음 미군폭격기의 무지막지한 공격을 받는다. 그 루트가 대체로 밀림 속에 은폐된 소로들인 것으로 오판한 미군은 산악 밀림지대에 소형 마이크까지 마구 뿌려보지만 끝내 추적에 실패한다. 그러자 이젠 무차별폭격으로 불바다를 만들고 고엽제 등 신개발화학물질도 무제한 살포하여 인간은 물론 동식물, 땅과 물을 사그리 황폐화시킨다. 그러나 호치민루트는 지도란 게 그려질 수가 없는 유령의 루트다.

베트남인들이 현장에서 벌목하여 절벽에 걸쳐 사용한 후 흔적마저 없애버리는 즉석목조교량과 진창길의 임시포장도로, 대나무 뗏목과 부교로 오가는 하천, 논밭 등을 통칭한 것이다. 게다가 이 루트는 주로 병력보충과 엄호병력 이동에 사용하고 실제 병참보급은 해상루트로 추진된다. 그런데도 그 루트를 찾겠다고 라오스와 캄보디아국경을 들락거리는 애꿎은 미군 보병들만 하루 900회 남짓 자국폭격기의 융단폭격에 전전긍긍한다. 올리버 스톤 일병이 소속된 부대가 그 전형이다. 참호나 땅굴도 파서 숨자 해도 밀림의 진창은 전투화를 옮겨 딛지도 못하리만치 스펀지처럼 푹 젖어있다. 실뱀장어마냥 가느다란 독사, 철모에 달라붙은 전갈, 온몸에 엉겨 붙는 거머리 떼, 콧구멍과 귓속까지 후비고 드는 모기와 개미와 독충들에 자칫 작은 비명이라도 지르는 순간 어디선가 딱콩! 하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또 쓰러진다.

스크린에서 보듯 밀림에서 멋있게 총격전을 벌이다가는 우리 편끼리 죽이는 수도 있다. 베트콩저격수는 대체로 일본식 구닥다리 소총으로 두세 방을 쏴서 반응을 본 다음 순식간에 사라진다. 월맹정규군의 공세에 앞서 최종위치확인이다. 올리버 스톤 일병도 오줌지리도록 무섭다. 소대에 배치된 지 보름도 못되어 드디어 적의 총탄이 그의 목을 스친다. 통증과 출혈이 심한 중상이다. 하지만 긴급구조헬리콥터가 나타나 위로 건져주기 전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또래의 많은 미국 젊은이들이 히피니 반전운동이니 한껏 모양새를 낼 즈음, 그는 엉망진창의 호치민루트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이제 막 초보생존과정(basic survival course)에 들어선다. 길고 험한 본 게임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계속>

성휴 스님

장사 성공의 법구 금강삼고저

안되는 장사, 안되는 사업, 산재 사고도 예방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않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풍수학적으로 보면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다.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

개업 선물로도 품격!
사업 성공의 선물로도 품격!

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법구인 금강삼고저는 밀교법구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가 보기만 해도 도망가고 화로부터 사업장의 안전을 지키며 사업장의 성공을 위해 동서사방에서 인연의 귀인들을 불러드리는 영험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불심사에서 장사흥왕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문안쪽 위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보시가격: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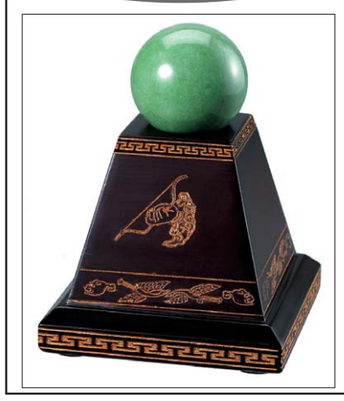
장사와 사업 흥왕의 비방 법구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영험의 구슬

보궁여의주

필승합격과 승진의 영험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것이 이루워 진다는 구슬이다.

전설에 따르면 아들형제를 데리고 어렵게 살아가는 어머니가 남섬부주 바닷가에 떨어져 있는 구슬두개를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해 집에 가져왔다.

집에는 관료가 되어 어머니를 편히 모시겠다는 형제가 시험만 보면 번번이 낙방을 하며 세월만 보내고 있었다. 아들에게 집에 오는길에 예쁜 구슬을 주었다고 보여주었다. 구슬을 본 형제는 참 신비한 구슬 갖어요, 어머니는 아들 형제에게 하나씩 주었다. 그후 매번 낙방만 하던 형제가 그해 관료에 등과되어 어머니는 소원을 이루고 건강장수 하고 관료가된 형제는 큰 공덕을 쌓으며다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각종 불경 해설서를 보면 제석천왕과 아수라가 싸울때와 전륜성왕이 바위를 부술때에 남섬부주에 떨어져 변한것이라고도하고 용왕의 몸에서 나와 사람이 여의주를 집안에 두고만 있어도 독이 헤칠수 없고 불속에 있어도 타지않고 권세와 명예를 얻는 공덕이 있는 구슬로 사갈라 용궁에도 있고 여의륜관세음부처님 두손에도 들고있어 중생들이 뜻한바가 이루워지는 비방의 법구로 삼고 있다. 시험을 보고나면 꼭 1~2점차로 낙방을 한다. 수험생들은 한두문제로 인해 1년을 또 고통속에 시험 준비를 하고, 승진시험도 승진심사날 심사위원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느냐에 달려있다.

■시험을 보면 꼭 1~2점차로 낙방

보궁여의주는 수험생에게 부처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를 주고 부처님 가피로 승리하는 비방의 법구다.

불광사에서 필승합격과 필승 승진을 위한 축원불공을 마친 보궁여의주는 길상원목으로 품위있게 제작하고 수험생의 필승합격을 위해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리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준다. (신용카드분할가)

보시가격:95,000원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원하는 계획이 성취되는 영험



남성용금나노반지갑

여성용은나노장지갑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소중한 남편과 자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닿지 못하고 법구가 무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역시 연이되면 돈이 동서 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 않고 고통만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大다라니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돈이 들어오게 하는 비방의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 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고급소가죽에 금나노, 은나노 처리 까지한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불광사에서 지갑 사용하실 분의 물질의 소원과 원대한 계획이 성공되게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린다. 남성용 금나노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은나노장지갑9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일주문



신심·원력 출간기념 영풍문고 싸인회
제주 약천사 회주 혜인 스님은 6월 28일 오후 2~4시 영풍문고 종로점에서 <신심><원력>(클리어마인드 刊) 출간 기념 싸인회를 갖는다.



국제문화친선교류 대축전 열어
사단법인 한민족평화포럼 상임의장 법혜 스님은 한 · 중 수교 16주년을 맞이해 7월 4~8일 '국제문화친선교류 대축전'을 연다. (041)556-7110



故 박경리씨 49재 봉행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5월 5일 타계한 소설가 박경리씨의 49재와 유고시집 봉정식을 6월 22일 적광전에서 봉행했다.



중앙승가대에 장학금 1억5천만원
서울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은 6월 12일 중앙승가대학교 총장실에서 총장 종범 스님에게 장학금 1억5000만원을 전달했다.



법화경 견보답품 법문
강릉 성원사 회주 주경 스님은 6월 27일 오전 11시 대구 법왕사 대법당에서 <법화경> 견보답품을 주제로 법문한다. (033)661-5736



네팔불자 체류지원사업 시작
재단법인 광주아시아문화교류재단 이사장 현장 스님은 6월 12일 네팔화가들을 초청, 체류지원사업을 시작했다.



개산 9주년 맞이 동식물 영혼 천도법회
강릉 현덕사 주지 현종 스님은 7월 6일 오전 10시 개산 9주년 맞이 동식물 영혼 천도법회를 연다. (033) 661-5878

석문사 예적금강 나반존자 점안 법회



청원 석문사(주지 혜전)는 6월 15일 '예적금강 나반존자 점안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법진 스님(대한호국불교효혜종 총무원장), 혜안 스님(전북 영산문화재 18호 이수자)을 비롯한 영산문도회 스님 등 사부대중 100여명이 참석했다.

손효선 기자

"불교 선진화와 한반도 선진화는 不二"

박세일 교수, 한국불교학회서 초청강연



"불교 선진화가 한반도 선진화입니다. 불교 선진화를 이루려면 불교 교육 · 불교 거버넌스(governance) · 재가불자 수행법을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한반도 선진화론 전문가 박세일 교수(서울대,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가 6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열린 한국불교학회 초청강연에서 불교 선진화에 관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했다. 박 교수 초청강연은 한국불교학회 김선근 신임회장과 대학시절 봉은사 대학생수도원에서 함께 수행한 반연으로 이뤄졌다.

박세일 교수는 '한반도 선진화와 불교의 선진화'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선진화를 위한 철학으로 공동체 자유주의를 전제했다. 그가 말하는 공동체 자유주의는 구성원 모두의 존엄과 자유를 우선시 하는 자유주의를 기본으로, 개인의 자유를 공동체 발전과 조화시키는 입장이다. 불교사상과 일맥상통해 연기적 자유주의로도 해석된다.

박 교수는 "선진불교는 21세기 대한민국에 빛과 광명이 되는 불교다. 오늘을 사는 중생의 문제와 어려움을 풀어주는 불교"라 설명했다. 그는 선진불교의 요건으로 ▲시대에 걸맞는 시대불교 ▲중생을 위한 중생불교 ▲보살행을 실천하는 실천불교 ▲국제화된 세계불교를 제시했다. 세계불교에 대해 박세일 교수는 "한국불교만의 장점을 찾고, 일본 등 인접국의 불교문화를 이해한 뒤 한국과 인접국 불교문화를 융합해 창조한 불교"라 설명했다.

불교 선진화는 어떻게 이뤄야 할까? 박 교수는 교육제도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박세일 교수는 "수행 중심의 수행승과 포교 중심의 법사승으로 승가교육을 나눠야한다"며, "승가 교육제도 개혁 없이 새로운 불교 리더십은 없고, 새 리더십 없는 새 역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불교종단과 사찰 조직 운영원리 등 불교 거버넌스를 혁파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박 교수는 "승려 본위의 사찰 운영에 재가신도 참여를 확대해 민주화와 참여적 협력을 높여야 한다"며 이를 '승속간 협치(協治) 구조'라 표현했다. 승속간 협치구조는 수행 · 교화는 출가자가, 사찰 경영 등은 재가 전문가가 분업하는 형태를 말한다. 그는 승속간 협치구조의 필수요건으로 투명성과 설명력을 강조하고, 승속이 공유하는 비전 공유를 당부했다.

박세일 교수는 "21세기 한반도 선진화에 불교가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불교의 연기적 가치관은 상호의존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적합하다. 분열갈등의 시대는 중도와 원융으로 해소된다"고 설명했다. 박세일 교수는 "국가정체성 위기는 불교의 수은보은(受恩報恩) 사상으로, 사회적 리더십 부재는 언행일치하고 선공후사하는 보현사상에 해답이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한반도 선진화는 불교적으로 불국토 건설을 의미한다. 불국토 건설을 위해 사회구성원 전체가 성성하게 깨어있을 새 수행법이 필요하다"며 21세기 재가자수행법으로 노동행선(勞動行禪)을 제안했다. 노동행선은 학생은 학생답게, 근로자는 근로자답게 자기 하는 일에 정성과 마음을 다하는 수행법이다. 박세일 교수는 "노동행선은 연기의 소중함과 직업윤리와 노동가치를 체득케 하는 등 불교 및 사회개혁 동력이 된다"고 말했다.

박세일 교수의 강연은 한국불교 선진화를 위해 사회적 합의에 따른 실천을 과제로 남긴 채 끝났다. 한편 초청강연에 앞서 열린 학회장이 · 취임식에서 김선근 신임 학회장은 이평래 前 한국불교학회 회장에게 공덕패를 전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동산불교대학 김재일 이사장 타계

재가불자 교육 · 신행 앞장서



항상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며 '한 날 한 시에 함께 성불하여 등공(騰空)하자'고 발원했던 재가불자신행단체의 큰 별 김재일 이사장이 타계했다. 동산불교대학, 동산반야회를 통해 재가불자 교육과 신행을 이끌어왔던 김 이사장은 6월 18일 오후 12시 서울대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60세.

작고한 김 이사장은 1982년 조계종 산하 재가포교단체 동산반야회를 창립, 타계하기 전까지 포교 일선에서 노력해왔다. 김 이사장은 2년 전, 대장암 투병 중에도 동산불교대학은 물론 동산반야회 및 붓다클럽까지 돌보는 정성을 보였다. 또한 지난 4월에는 동산불교 유럽지원을 설립하기 위해 직접 독일을 오가는 등 왕성한 활동을 보였다.

김 이사장이 펼친 대표적 불교사업으로는 1984년부터 시작된 일반인들을 위한 불교교리강좌를 꼽을 수 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김 이사장은 1992년 동산불교대학을 창립했다. 동산불교대학은 불교계 최초 2년 과정 불교교양대학으로 일반인 대상 장기 불교교육과정을 개설한 교육기관이다. 불교학과 1개로 시작된 교과과정이 현재 불교미술 · 불교한문학 · 다도학 · 불교장례문화학 · 사찰음식문화학 · 재가불자를 위한 한글불교의식강좌 등 10여개로 늘어나 지금까지 5000여 동문이 배출되는 토대가 됐다. 이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는 듯 김 이사장은 진정한 불자를 기르기 위해 타계하기 직전까지 직접 법사로 나서 회원들을 지도하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생전에 항상 "현대사회에서 진정한 불법을 홍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교리와 신심이 성숙된 재가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이런 생각을 토대로 김 이사장은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불교운동을 전개, 1998년부터 제6차 전국염불만일회 결사대회를 결성해 지금까지 총 10회 동안 전국 10개 아미타불 성지에서 염불불사를 봉행했다.

김 이사장의 활동은 해외로도 뻗어나갔다. 한 · 일 불교 문화교류는 4회를 넘겼고 인도 석가족 개종과 초등학교 학교설립 등에도 노력했다. 독일과 미국 등에는 해외지원을 설립해 현지에서 한국불교를 홍포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김 이사장은 불교복지사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서울 성북구 장위1동어린이집과 석관2동청소년독서실을 위탁 운영해왔다. 또한 1994년에는 한국불교기아도움기구를 발족, 북한을 비롯한 아프리카 · 터키 등 세계 난민을 위해서도 지원해왔다.

김 이사장이 해왔던 많은 일들은 이제 남겨진 사람들의 몫이 됐다. 동산불교대학은 "앞으로 안동일 변호사를 이사장으로 추대, 김 이사장의 유지를 받들어 동산의 정신을 지켜나갈 것"이라 밝혔다.

한편 김 이사장은 화장 후, 현재 동산불교대학이 경기도 광주에 건립중인 대아미타사에 모셔질 예정이다.

김강진 기자

조계종, 동국대에 장학금 전달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6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총무원장 집무실에서 동국대학교 오영교 총장에게 장학기금 1억 원을 전달했다. 김강진 기자

한국전쟁 호국영령 추모 및 은평구민 위한 대법회



서울 은평구불교사원연합회(회장 성운)와 은평구청불심회(회장 김은혜)는 6월 17일 은평구청대강당에서 '한국전쟁 호국영령 추모 및 은평구민을 위한 대법회'를 봉행했다. 김강진 기자

불기협, 춘천 삼운사 등지서 상반기 연수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안직수)는 6월 14~15일 춘천 삼운사 등에서 2008년도 상반기연수를 진행했다. 불기협 전 · 현직 회원과 가족 등 5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연수는 삼운사 기념법회, 유진규 춘천마임축제 예술감독 초청강연 등으로 진행됐다. 김강진 기자

무등산 동원사 범종 타종식



광주 무등산 자락 동원사(주지 지각)에서 범종 타종식이 열렸다. 범종식에는 대한불교법륜종 종정 탄공 스님, 조계종삼화불교 총무원 혜인 스님, 광주불교사암련 정인 스님, 유태명 광주동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무량종 약사사 명부전 낙성점안



대한불교무량종 공주 약사사(주지 다정)는 6월 15일 명부전 낙성식을 봉행했다. 이날 회에는 무량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혜안 스님을 비롯하여 사부대중 3000여명이 참석했다. 혜안 스님은 "공주지역 불법포교에 매진하여 한국불교 중추기람으로 거듭나자"고 당부했다.

영남범음범패 수강생 모집

사단법인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보존회 사무국에서는 본 보존회 초대이사장이시고 영남범음범패 및 장엄도량의 보유자이신 문구암 큰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판소리, 가곡과 더불어 대한민국 3대 성악곡의 하나인 **범패**와 **전통불교의식**을 체계적으로 전승 보존하고 우리전통예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어 종합불교예술로 승화된 부산영산재의 보존과 발전을 위한 저변인구 확대를 통해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수강생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사부대중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 교육과정(기본 : 6개월) 전문반 1년 (기본과정 수료자에 한함)
  * 성적 우수한 스님 전수장학생으로 추천 *
- 교육과목 : 사물다루는법 / 각종제반의식
- 작 법 무 : 천수바라작법무, 오공양나비작법무
- 국 악 기 : 법고, 태평소, 대금, 단소,(영산회상, 청성곡 등)
- 개 강 일 : 2008년 7월 18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수시모집)
- 교육장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 1동 159-1 백화도량 관음사 대강당
- 접수 연락처(사무국) : 051)327-5095 / 010-2314-1279

각종 사찰행사 본사무국으로 문의하시면
전수자 스님을 배정하여 여법하게 집전해 드립니다.
(보시금 중 일부는 장학기금으로 쓰입니다.)

행자(예비스님)모집

사단법인 부산영산재보존회
영남범음범패 교육대학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www.hypnos114.com

전생·빙의

인간 잠재의식 직접 조절 — 강력한 개선효과!!
자기 개선은 물론 타인도 도울 수 있다.



도대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던걸까?

"잠재의식속에 숨겨진 심리적 근원을 밝혀
인간을 변화시키는 최면의 위력"

KBS 무한지대-큐
MBC TV특종 놀라운 세상
SBS 백만불 미스터리
부부솔루션등 출연

한국최면과학원장 임 재 형 박사 직강
미국 최면전문대학 객원교수
국제 임상최면 전문가(ICHT)
심리상담 전문가,성폭력 가정폭력 상담 전문가
한국최면지도사 협회장
국제최면치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의학심리학회원
대학교평생교육원 최면학 강의 및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기업체 등에서 생활최면 특강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의 실제, 최면요법 등

빙의치유
▶빙의령을 직접 불러내어 누구인지? 왜 들어왔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영가와의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빙의된 본인은 영가가 떠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전생요법
▶전생체험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 업장을 해소하고 현세에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지혜로운 삶을 찾게한다.

현재 접수중

미국최면전문대학과 학술교류 협정
한국최면과학원 홈페이지 : www.hypnos114.com
대표전화 : 1544~2741
서울 02)582-0737 강남 선릉역3번출구 선릉타워9층
대전 042)222-0737 대사동 서대전역7번출구 청운빌딩2층

“생명나눔으로 따뜻한 세상을”

장기기증 운동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우엽 스님

최근 생명나눔실천본부에서 따뜻한 소식이 전해졌다. 사고로 머리를 다쳐 서울대 병원에서 뇌사판정을 받았던 故 이용기(34)씨가 6월 8일 6명에게 새 생명을 주고 떠난 것이다. 이씨의 신장 · 간장 · 췌장 · 각막 등을 이식받은 환자들은 다시 건강한 삶을 누리게 됐다. 생명나눔 사상이 사회 속에 많이 전파되긴 했지만 자주 이뤄질 수는 없는 일이기에 이씨가 남기고 간 소중한 생명나눔 행위는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씨가 이렇게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가족들을 설득하고 이끌어준 사람이 있다. 단양 정암사 주지 우엽 스님이다. 알고 보니 스님이 장기기증 사례를 이끈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스님은 그 동안 몇 차례나 남모르게 뇌사 환자가족들에게 장기기증에 대해 알리고, 설득해왔다. 스님은 왜 이런 활동을 자발적으로 하게 된 것일까.

우엽 스님은 생명나눔실천본부와 공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하지만 1994년 前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생명나눔실천본부를 조직할 그 무렵, 스님은 법장 스님의 사상이 좋아 이를 따르기 위해 회원으로 가입했다. 스님은 사후 장기기증, 각막기증, 조직기증 등을 약속하며 장기기증서약서에 서명하기도 했다.

스님이 ‘생명나눔 사상’에 동참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 스님 자신이 신장의 기형으로 인해 점차 신장이 굳어가는 병을 앓고 있어 자주 병원을 드나들다 보니 자연스레 장기기증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병원에서 환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식받기를 기다리며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분들을 보니 자발적 장기기증 운동이 많이 늘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장기기증 운동을 이끌며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애쓰고 있는 우엽 스님(오른쪽 사진). 스님은 이러한 활동으로 2006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도 받았다.

그 후부터 스님은 사찰 법회에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생명윤리나 장기기증을 주제로 자주 이야기를 하게 됐다. 생명나눔실천본부로부터 정기적으로 장기기증에 관련된 홍보물을 제공받아 사찰 한 쪽에 비치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스님의 사찰 신도들이 하나 둘, 장기기증을 서약하게 됐다. 한 사찰에서 30명의 장기기증서약 회원 등록, 결코 적지 않은 숫자다.

스님의 활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직접 뇌사자 가족들을 찾아가 장기기증을 하도록 설득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생명나눔’이란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아무리 죽은 후의 ‘사체(死體)’라 할지라도 ‘내 소유’라는 개념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직 사회 분위기가 전통적으로 매장 풍습을 선호하는데다 장기기증이나 조직기증이 사체 훼손이라 우려하는 가족들의 목소리도 크다. 뇌사자와 식물인간의 개념 혼란도 장기기증 운동에 큰 걸림돌로 작용됐다. 그러다 보니 스님도 장기기증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었다. 한 번은 뇌사자 가족들로 인해 오른쪽 손을 다치기도 했고, 또 한 번은 장기기증 약속을 받았는데 장기적출 가능 시기를 놓쳐 무산 된 적도 있었다.

“한 두 번 그런 경험을 겪고 나니 장기기증에는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용기씨의 경우에는 가족들을 빨리 설득하는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스님은 가족들을 설득할 때 무작정 장기기증의 사회적 당위성을 내세워 권하지 않는다. 그들이 심정적으로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보상차원에서 49재는 물론, 기제사까지 무료로 지내주고 있다. 스님은 그것이 그들에 대한 보답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활동들로 스님은 2006년 ‘장기기증 감사의 밤’ 행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장까지 받았다.

스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또 하나 알게 된 사실이 있다. 스님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아이’라고 말하기도 힘든 23살, 20살, 17살 난 아이들은 스님이 정식으로 입양한 ‘친 자식’들이다. 갓난쟁이 때부터 아이들을 돌봐온 스님은 이에 대해 “절집에서는 예전엔 흔한 일이었다”며 그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사람을 아끼고,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엽 스님. 장기기증 캠페인도, 아이들을 키우는 일도 스님에게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일 뿐이다.

스님이 생명나눔에 다가서는 길을 하나 일러준다.

“타종교와 비교해 숫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 불자들은 흔히 ‘방생’하러 자주 다니잖아요. 주변에 누군가 아플 때 ‘나’와의 인연이 좋든 좋지 않든 병문안을 가세요. 그러면서 병원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유심히 보세요. 그러다 보면 세상에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느낄 것입니다. 우선은 병원에 가보세요. 저는 그것이 ‘방생’이라 생각합니다.” 김강진 기자



젖소에게 우유를 주고 있는 아동과 봉사자.

“우유 짜고 치즈 만들고…신나는 목장의 하루”

승가원 장애아동·서울우유 임직원 목장체험 캠프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산하 승가원장애아동시설(원장 동옥)과 (주)서울우유가 함께 6월 17~18일 파주 모산목장에서 1박 2일 캠프를 실시했다.

승가원장애아동시설 조성진외 31명의 장애아동과 서울우유 임직원 32명이 함께 한 이번 캠프는 KBS 사랑의 가족이 주최하고 승가원장애아동시설이 주관했다.

처음으로 목장을 방문한 아동들은 젖소를 보고 무서워하기도 했지만 서울우유 봉사자와 함께 해서 그런지 이내 무서움을 떨쳐버리고 젖소 가까이 다가가 쓰다듬기도 하고 우유를 주는 등 친근감을 표시했다.

승가원 아동들과 서울우유 임직원들은 이후에도 함께 젖소 우유 먹이기, 우유 짜기, 치즈 만들기, 아이스크림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펼쳤다. 김강진 기자



“봉사 통해 행복·건강 찾았죠”

서울 경희의료원 공급실에는 목소리가 예쁜 봉사자가 있다. 상냥한 목소리로 사근사근 이야기하는 것도 이 봉사자의 특기지만 의료원에서 필요한 쑥뜸을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어 내는 손길과 마음이야말로 그의 가장 큰 매력이다. 환자를 직접 돌보는 마음으로 그가 준비하는 재료들은 간호사들에게 ‘최고’라는 평을 듣게 된다. 이 봉사자의 이름은 김용수(70·사진)씨다.

봉사자 김용수씨



김씨가 봉사활동을 시작한 것은 1997년, 화성 노인복지시설 자제정사에서 첫 발을 내디뎠다. 그곳에서 그는 노인 목욕봉사부터 시행했다. 치매와 중풍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을 씻기는 일이 그렇게 녹록치 않았다.

“아유, 처음엔 견디기 힘들었죠. 누구나 그래요. 그런데 한 석 달 지났을까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시설에서 나던 냄새도 더 이상 의식이 안 되는 거 있죠.”

그가 그렇게 적응이 되어 간 데는 할머니들의 따스한 정과 함께 봉사활동을 했던 ‘백련팀’의 팀워크가 한몫했다고 한다. 그리고 보람. 할머니들을 씻기는데, 자신이 시원해지던 그 기분을 김씨는 지금도 잊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지금도 그 분들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며 손수건을 찾는다. 그러면서 그는 말한다.

“그곳 할머니들이야말로 제겐 선지식이나 다름 없었어요. 정말 많이 배웠으니까요. 할머니들과 정이 많이 들었는데, 그곳 봉사를 그만둬서 정말 아쉬워요.”

갑상선 질환 이기고 봉사활동 시작

“70대 나이에도 봉사 열정은 여전”

그도 이젠 70대의 나이. 목욕봉사는 벅찰 수밖에 없다. 그래서 2006년부터는 경희의료원으로 봉사처를 바꿨다. 몸이 건강할 때 더 많이 움직이고 더 나누고 싶어서 그는 봉사를 그만둘 수는 없었다고 말한다. 봉사를 이렇게 즐기는 김씨, 봉사를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을까. 젊은 시절, 18년 동안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일했던 김씨는 40대 중반의 어느 날 갑자기 갑상선 질환으로 위기를 맞았다. 이 때문에 1985년과 1988년 두 차례나 큰 수술을 받아야 했다.

“친구들도 제가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정말 기적처럼 살아났지요.”

그렇게 긴 투병생활을 끝내고 아직 몸이 완전치 않을 때였다. 일간지를 보다 갑자기 눈에 띄는 광고를 발견했다. 아주 조그만 광고였는데,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봉사 교육생을 모집한다는 것이었다. 답답하게 집에 있느니 나가보자, 그것이 이렇게 봉사의 끈이 될 줄이야 그 때는 몰랐다.

김씨는 ‘봉사 예찬론자’다. 봉사로 인해 그는 건강을 되찾았다고 생각한다. 젊었을 때는 그렇게 아팠던 그가, 이제는 친구들 중 가장 건강하다고 한다. 그는 이것을 봉사가 준 선물이라 말한다. 행복한 마음과 땀흘리는 기쁨, 그리고 불자로서의 마음 챙김, 모두 봉사를 통해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요즘 걸음 걷기도 불편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야, 봉사하면 다 좋아져’라고 말해요.”

그는 봉사를 하면 마음이 고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 좋단다. 이제 봉사활동을 시작한지 10년이 넘은 김씨. 봉사활동 참여 불자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진심을 가진 봉사자가 더 많아졌으면 하는 것이 그의 더 큰 바람이다.

“봉사는 자신, 그리고 봉사처와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왕 하는 것,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좋지요. 봉사를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하다 보면 책임감도 생기고 즐거움도 늘어갑니다. 봉사는 그런 것입니다.” 글·사진=강진 기자

訃 告

동산불교대학·동산반야회 前이사장 金在日 法師께서 宿患으로
2008년 6월 18일 12시 17분 서울대학병원에서 別世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빈 소 :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 206호
○ 발인일시 : 2008년 6월 20일 08시 30분
○ 장 지 : 벽제승화원
○ 연 락 처 : 동산불교대학 장의봉사단 ☏ 02)2072-2022

- 장의위원장 동산불교대학 이사장 安東壹
- 장의위원 동산반야회 신도회장 李鍾賢
- 장의위원 붓다클럽 총재 李相雨
- 장의위원 동산불교대학 총학생회장 金德潤
- 장의위원 동산불교대학 총동문회장 李和烈
- 장의위원 동산불교법사단장 林元鎬
- 장의위원 동산포교사단장 車垠汕
- 장의위원 동산불교대학원회장 姜榮吉

미망인 전연화
아 들 김동선
딸 김수미
사 위 김건영

동양불교조계종 창종취지문

삼보에 귀의하옵고

금번 저희가 고귀하고 걸림없이 살다가신 원효선사의 덕행을 기리고 우리 후학들의 이정표로 삼고저 뜻있는 분들의 고견을 받들어 동양불교조계종이란 이름을 세상에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세간과 출세간을 뛰어넘고 진여와 생멸을 회통시키신 원효선사의 남기신 뜻은 후학들에게 인식의 지평을 확장시키는 것에 머물지 않고 시대를 관통하는 화쟁의 정신을 실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전통과 그 유산이 오늘날 정체성이 흐려지고 교계 내의 자종과 우월주의의 경향으로 부처님의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사유가 왜곡되어있는 것이 분명한 현실입니다. 이에 동양불교조계종에서는 출세간을 아우르는 화회(和會)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고자 하는 취지로 창종(創宗)의 뜻을 내외에 알리는 바입니다. 관심있는 스님들의 동참을 바라옵니다.

❀ 창종예정일 佛記 2552年 10月 중 佛記 2552年 6月 20日
❀ 사무처 : (055)333-7678
(010-5521-7677)

창종준비위원 覺性외 10人 합장

"욕망, 긍정과 부정의 경계는 절제"



6월 14일 '욕망'을 주제로 한 밝은사람들 제5회 학술연찬회 모습. 좌로부터 사회자 김종욱 교수(동국대), 정준영 교수(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한자경 교수(이화여대), 이덕진 교수(창원전문대), 박찬국 교수(서울대), 권석만 교수(서울대), 우희종 교수(서울대).

밝은사람들, 제5회 학술연찬회

'욕망(欲望/慾望): [명사]부족을 느껴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고자 탐함. 또는 그런 마음'

사전적 의미의 욕망은 삼독 중 탐심(貪心)의 뉘앙스로 이해하기 쉽다. 하지만 무엇에 부족을 느끼는가에 따라 욕망은 괴로움의 단초가 아닌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욕망에 대한 고통과 원동력의 경계는 무엇일까?

6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밝은사람들(소장 박찬욱)이 '욕망, 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제5회 학술연찬회가 그 해답을 제시했다.

초기불교: 정준영 교수(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유식불교: 한자경 교수(이화여대), 선불교: 이덕진 교수(창원전문대), 서양철학: 박찬국 교수(서울대), 심리학: 권석만 교수(서울대), 생물학: 우희종 교수(서울대)가 각 분야별 '욕망'을 소개했다. 이들이 선보인 '욕망'을 ▲욕망의 기원 ▲욕망의 기준 ▲욕망의 조절방법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 초기불교

정준영 교수는 욕망의 기원에 대해 "욕망하는 대상이 있는 것 같다. 자기보존의 욕망 즉 생리적 욕망과 취착하는 자아관념은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초기불교에서 욕망의 기준은 "탐욕과 갈애 등을 증장시키느냐, 줄이느냐가 기준이 된다"고 소개했다. 정 교수는 <대념처경> <숫타니파타> 등을 인용해 사성제, 팔정도 등 부처님 가르침이 욕망의 조절법이라고 설명했다.

 # 유식불교

한자경 교수는 욕망의 기원을 "탐진의 욕망은 말나식의 욕망으로 의식표층에서 일어나는 것"이라 말했다. "반면에 아뢰야식에서 일어나는 욕망은 바람직한 원망"이라고 한 한 교수는 이것을 '원(願)'으로 표현했다. 욕망의 기준은 12연기의 환멸문인가 유전문인가를 중심으로 설명했고 그 경계를 무명과 지혜로 표현했다. 한 자경 교수는 "탐진에 의한 욕망은 아집과 아상에 의한 것으로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무명의 극복이 필요하다"며, "동체대비를 깨닫는 것이 욕망 아닌 자비를 얻는 방법"이라 말했다.

 # 선불교

이덕진 교수는 "선에서는 욕망이란 단어 자체가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선은 문제를 문제삼지 않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다"며, "주인공의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 교수는 "욕망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욕망 속에서 깨어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마음공부를 권했다.

 # 서양철학

박찬국 교수(서양철학)는 니체의 견해를 인용해 "인간의 가장 근본적 욕망은 자기를 고양시키려는 욕망이다. 인간은 단순히 자기보존에 그칠 수 없는 존재"라 규정했다. 박 교수는 "긍정적 욕망은 이성적 욕망이며, 부정적 욕망은 비이성적 욕망"이라며 에리히 프롬의 견해를 빌어 설명했다. 욕망의 조절방법으로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이 욕망제어를 위해 학문을 강조했다"면서 실천적 지혜로서 중용을 강조했다.

 # 심리학

권석만 교수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환경과 상호작용한 것을 욕망의 기원으로 설명했다. 그는 "생명 유지를 위한 욕구(결핍욕구)가 다양하게 진화된 것이 성장욕구"라며, "모든 생명은 살기위해 욕망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욕망을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훈련과 자기조절 등의 방법으로 욕망 조절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 생물학

우희종 교수는 "욕망은 생리학적인 것에 바탕하지만 그 자체에서 항상 재생산된다"고 전제했다. "욕망도 관계성 속에 변화한다"는 것이 우 교수의 견해다. 우희종 교수는 "관계에 깨어있거나 열려있거나 머무르지 않는 것이 욕망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생물학적으로는 욕망은 약이면 조절 가능하다"고 말해 청중의 웃음을 자아냈다. 우희종 교수는 "욕망의 조절을 위해서는 통찰이 필요하다"며, "욕망 조절보다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밝은사람들의 이번 학술연찬회는 자료집 先출간 등 무수한 화제를 뿌리며 공연장 좌석을 꽉 채운 채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좌장 김종욱 교수(동국대)는 "하반기에는 자아를 중심으로 학술연찬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밝은사람들의 계속된 실험은 '일일시호일(日日是好日)'이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최초 '조선불교통사' 완역 발간

동국대출판부, 12월 전집 발간 예정

故 이능화 선생의 <조선불교통사>는 20세기 한국불교 최고의 명저다. 불교사는 물론 문학과 철학 등 한국불교 관련 연구에 필수자료인 책은 상 · 중 · 하 3편 2책으로 구성됐다. 2300여쪽 방대한 분량과 함께 순한문체로 쓰인 탓에 높은 학술적 가치만큼이나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웠다. 하지만 2008년 12월이면 누구나 쉽게 읽게 될 전망이다.



'조선불교통사' 완역의 주인공. 동국대 불문연의 김진무 연구교수, 한상길 연구 교수(좌로부터).

동국대출판부 후신인 동국대미디어센터(센터장 윤재웅 교수)는 6월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조선불교통사> 전11권의 12월 출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조선불교통사>를 두고 민족사, 역경원 등 여러 곳이 번역을 시도했지만 번역이 난해하고 양이 방대해 완역한 곳은 없었다. 하지만 학술적 가치가 높은 탓에 2002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이하 학진) 지정과제로 공모됐었다. 2002년 당시 서울대, 고려대, 전남대와 함께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이 지원했다.

프로젝트 공모 및 번역 주역인 김진무 연구교수(불교문화연구원)는 "다른 과제로 학진에 공모 예정이었는데, <조선불교통사> 번역사업이 눈에 띄였다. 서울대 등 타학교가 준비하는 데 <조선불교통사>만큼은 반드시 불교학 종가인 동국대가 해야겠다는 바람에 <조선불교통사>로 과제를 변경해 신청했다"고 회고했다.

결국 김 연구교수의 발원처럼 <조선불교통사> 발간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혜원, 이하 불문연)에서 이뤄졌다.

김 연구교수와 함께 콤비를 이루며 <조선불교통사> 완역을 이룬 한상길 연구교수(불교문화연구원)는 "'한국불교사'를 강의하면서도 그간 마땅한 교재가 없었다. 한국불교 개설서인 <조선불교통사> 완역으로 이제 한시름 덜었다"고 말했다.

책은 직역을 기본으로 번역됐다. 통일윤문, 원문 대조를 거쳐 현재 한국불교사 거장인 김영태 명예교수(동국대)가 감수중이다.

김윤길 팀장(미디어센터 출판사업팀)은 "국고와 교비 보조로 소장학자들이 이룬 성과"라고 자평한 뒤, "하편 '이백품제'는 불교사의 사건들을 서사구조로 정리한 것으로 방송, 문학 등에 불교문화콘텐츠로 활용도가 높다"고 소개했다.

조동섭 기자

세계와 호흡하는 한국불교학 계기

동국대 BK21, 국제불교학 협회 참가

동국대 BK21 세계화시대불교학 교육연구단(단장 김용표)은 6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국제불교학협회에서 여는 국제학술대회 참관 및 '세계불교학의 조류와 한국불교'를 주제로 한 세미나 개최를 위해 단기 해외연수를 떠난다. 6월 23~28일까지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는 국제불교학협회 국제학술대회는 세계 유수 대학 및 연구소 연구자 500여 명이 참여하는 학술대회다. 동국대에서는 김용표 교수가 '원효와 그의 통합적 불교 철학 이상'을, 우제선 교수가 '논리학과 인식론'에 대해 발표한다.

6월 29일 필라델피아 원 연구소(The Won Institute)에서 BK21교육단이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는 동국대 연수참가 학생들이 학술발표를 한다.

김용표 교수는 "이번 해외연수를 통해 BK21 교육단 연구자들은 현재 어떤 학술적 과제들이 세계적인 이슈인지를 알고, 한국 불교 및 불교학의 위상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조동섭 기자

'현대불교' 후원은 포교에 동참하는 길!

"108배, 청소년 정서에 긍정적 영향 끼쳐"

장인진 사회복지사, 파라미타 정기세미나서 발표

108배가 신행을 넘어 건강법으로 주목받는 요즘, 절을 통한 호흡명상이 청소년의 정서 안정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눈길을 끈다.

6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서 열린 파라미타청소년문화연구소(파라미타청소년협회장 도후) 정기세미나에서 장인진 사회복지사(자양사회복지관)는 '호흡명상을 통한 청소년 지도사례'를 발표했다.

자양사회복지관은 정규 중 · 고교 교육과정 외 다양한 분야에 흥미를 갖는 학생 및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명상교육을 특성화한 나란타 대안학교를 운영 중이다. 장인진 사회복지사는 "2007년 10월 KBS '생로병사의 비밀' 제작팀 의뢰로 호흡명상과 청소년 정서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검증했다"고 소개했다. 실험 방법은 청견 스님을 초청해 절을 통한 호흡명상법을 지도하고, 부모와 함께 6주간 매일 108배 수련을 하도록 했다. 장 사회복지사는 "108배 호흡명상 결과 실험전 ADHD(주의 · 집중력 결핍 장애) 진단 학생 모두가 호전됐다"고 말했다. 실험 결과는 병적인 증상 호전에 그치지 않았다. 장인진 사회복지사는 "호흡명상 이후 사소한 오해로 인한 다툼, 욕설 및 폭언이 줄었다. 스트레스로부터 감정 통제력이 증가하는 등 자아존중감까지 향상됐다"고 발표했다.

한편 나란타 대안학교의 호흡명상 사례는 2008년 1월 15일 '생로병사의 비밀' 226회 신년특집 '당신의 뇌를 깨워라!' 편에 방영됐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남선 교사(구암중)가 '3분 명상지도'를 통해 ▲몸 이완 명상과 자애 명상 ▲몸에 대한 축복 명상 ▲베풂 명상 ▲자기존엄 명상 ▲위로 명상 등 청소년 지도를 위한 다양한 명상법을 소개했다. 김연삼 원장(금강승 선관무 경기본원)은 '명상과 학습 메커니즘'에서 "위빠사나의 알아차림(sati) 수행을 이용해 인성계발은 물론 학습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조동섭 기자

(재)한중원
한국불교 대승 조계종 입종안내

입종을 환영합니다.

한국불교대승조계종은 한국불교의 중추종단으로 거듭나고자 대승불교의 정신으로 불기 2552년 4월 15일 창종 하였습니다.
불법홍포의 일선에서 함께하실 분들은 연락바랍니다.

종정 성 수(聖壽)

원로원장 관 각(觀覺) 종회의장 경 공(經供)
총무원장 법 광(法光) 사정원장 성 해(性海)

♠ 입종 구비서류
(1) 입종신청서 (2) 주민등록 등본 1통 (3) 호적초본 1통 (4) 여권용 사진 4매
(5) 승려증빙서류 (전 종단 승려증, 사찰 등록증 사본)
(6) 사찰 전경사진 (내외)

■ 총무원 : 경남 김해시 외동 699-5번지 / 010-4457-6556

사찰 법당 음향설비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개발해
특허청의 특허 제0176713호를 획득한
국내에 단 하나뿐인 마이크로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DX-707 스텐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목걸이형 특수마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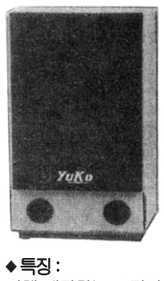
TM-108
목걸이 마이크, 각종 행사, 강의용
주문제작(한정수량 60개)
▷가격 : 120,000원 (택배비 포함)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 135,000원 (택배비 포함)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가격 : 500,000원 (설치비 포함)

高音質 무선마이크



▷가격
1인용 보급형 : 220,000원
1인용 고급형 : 580,000원
2인용 보급형 : 480,000원
2인용 고급형 : 680,000원

일반 마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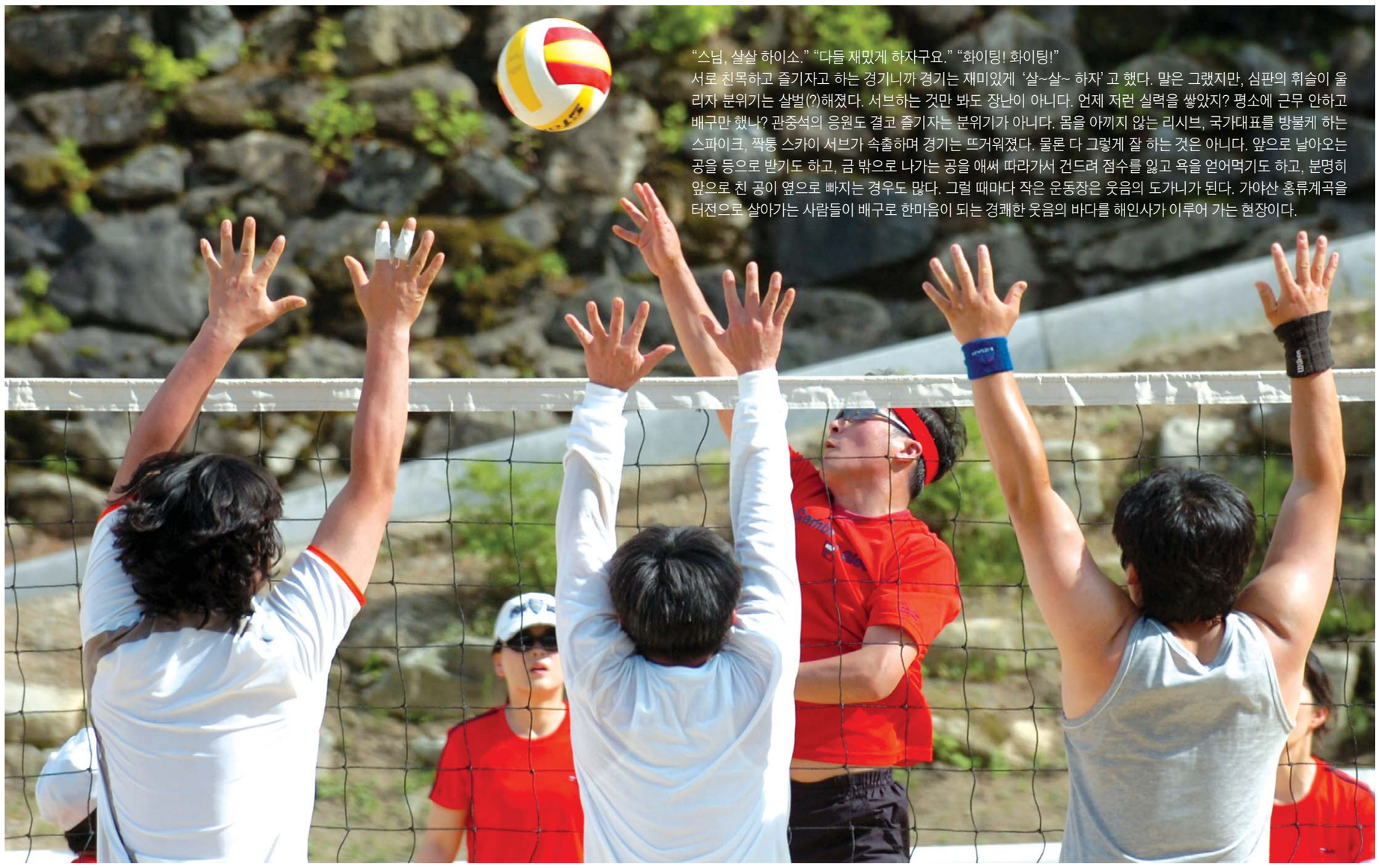
V-606LC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 소리공양 종목 ◇
•사찰, 법당 앰프설치 일절
•앰프 성능 보완, 클리닉
•각종 마이크 주문제작, 판매
•특수 스피커 주문제작, 판매

법당의 마이크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간단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현대불교 9
buddhanews.com
2008년 6월 25일 수요일
불기 2552년 제 685 호



"스님, 살살 하이소." "다들 재밌게 하자구요." "화이팅! 화이팅!"
서로 친목하고 즐기자고 하는 경기니까 경기는 재미있게 '살~살~ 하자' 고 했다. 말은 그랬지만, 심판의 휘슬이 울리자 분위기는 살벌(?)해졌다. 서브하는 것만 봐도 장난이 아니다. 언제 저런 실력을 쌓았지? 평소에 근무 안하고 배구만 했나? 관중석의 응원도 결코 즐기자는 분위기가 아니다. 몸을 아끼지 않는 리시브, 국가대표를 방불케 하는 스파이크, 짝퉁 스카이 서브가 속출하며 경기는 뜨거워졌다. 물론 다 그렇게 잘 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날아오는 공을 등으로 받기도 하고, 금 밖으로 나가는 공을 애써 따라가서 건드려 점수를 잃고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분명히 앞으로 친 공이 옆으로 빠지는 경우도 많다. 그럴 때마다 작은 운동장은 웃음의 도가니가 된다. 가야산 홍류계곡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배구로 한마음이 되는 경쾌한 웃음의 바다를 해인사가 이루어 가는 현장이다.

신나는 경기 뜨거운 응원
공처럼 둥글게 둥글게

#배구로 하나 되는 치인리 10번지 사람들

장맛비도 하루 쉬는 6월 19일 가야산 해인초등학교 운동장이 하루 종일 시끌벅적했다. 8년만에 '해인사주지배 배구대회'가 열린 것이다. 해인사 스님팀, 종무소팀, 청년회팀, 가야면사무소, 가야농협, 해인초등학교(교사 · 직원), 국립공원관리공단, 의용소방대 등 8팀이 출전한 배구대회는 해인사를 중심으로 지역민들이 화합과 단결을 다지는 축제 마당이었다.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이 직접 사인을 한 배구공으로 시구를 하면서 시작된 배구대회는 두 개의 코트에서 참가팀 전체가 골고루 경기를 벌이는 풀리그방식으로 진행됐다. 9인조 배구에 선수가 모자라면 옆 팀에서 대여(?)도 가능하고 발을 사용하는 것까지 허용되는데다가 경기가 안 풀려 열 받으면 아무나 작전타임을 요구해도 되는, 그야말로 단합용 배구대회였다. 응원석도 마찬가지. 징과 북, 꽹과리는 필수품이고 미처 준비를 못한 팀은 숟가락으로 양은쟁반을 두드리기도 하고 냄비 뚜껑과 페트병도 동원됐다.

그런데 응원을 하면서 입장이 아주 난처한 사람도 많았다. 남편은 소방대 소속이고 동생은 해인청년회팀에 출전했다는 어느 보살님은 양쪽코트를 누비며 응원했다. 오전엔 아이와 함께 선생님들을 응원하던 '엄마'가 오후 준결승(해인초교 VS 관리공단)에서는 선생님팀을 외면하고 관리공단팀을 응원하는 '아내'로 변신하기도 했다. 해인초등학교 6학년인 동재는 면사무소 직원인 아버지가 선생님들과 경기를 할 때 누굴 응원해야 할지 몰라 친구들과 제기차기 하며 놀았다. 해인사의 마스코트 동자승 문수(2학년 길상암 거주)도 북을 치며 응원을 하다가 해인사 스님들과 선생님들이 경기를 할 땐 '이기는 편 우리 편' 하는 심정으로 양쪽을 다 응원했다. 알고 보면, 운동장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가 '치인리 10번지'에 사는 사람들이다.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는 해인사와 상가지역 해인초등학교까지를 아우르는 하나의 지번이다.

경기를 하는 선수나 응원하는 직원이나 가족들은 배구공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땀 흘리고 소리치며 더위도 잊었다. 그런 가운데 단연 주목을 받은 팀은 해인사 스님팀. 해인사 강원의 축구실력은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지만 이날 출전한 배구팀은 종무소의 국장스님들을 중심으로 꾸려졌다. 이틀 전까지 비를 맞으며 강훈련(?)을 받았고 훈련 중 부상을 입은 스님까지 발생했다는 소문이 있었으나 막상 경기가 시작되자 서서히 실력이 들통 나기 시작했다. 경기 뒤에 한 스님이 "스님팀은 떨어지고 청년회나 종무소팀이 (결승까지)올라가는 게 해인사의 작전이라니까요"라고 설명했지만 믿는 사람은 없었다.

#모두가 '승자' 내년엔 더 멋진 만남을

웃음꽃 만발한 가운데 예선전이 끝나고 준결승을 거쳐 결승에 오른 팀은 해인청년회와 해인초교팀. 해인사 총무국장 심우스님의 심판으로 진행된 결승전은 매주 수요일마다 배구 연습을 한다는 해인초교의 조직력을 앞세운 노련미와 해인청년회의 패기가 맞붙은 대접전이었다. 엎치락뒤치락 하는 스코어를 기록하며 흥미진진하게 이어진 결승전은 결국 해인초교의 승리로 끝났다.

이날 참가한 8개 팀이 모은 참가비 80만원은 해인초등학교에 장학금으로 전달됐다. 이날 배구대회에 참가한 각 팀이 받은 상금은 '미얀마 돕기 성금'으로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에게 전달됐다. 수행은 내려놓고, 업무는 미뤄두고, 가게는 문 닫고 배구공 하나로 만난 치인리 10번지 사람들, 8년만의 재회를 기쁘게 마무리하고 내년엔 더 멋진 만남을 기약하며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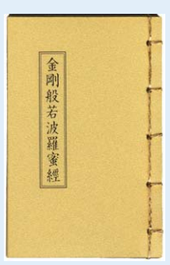
글=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사진=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해인사주지배 배구대회 현장





◀목이 터져라 선생님들을 응원하는 해인초등학교 전교생 27명.
▶"내년엔 나도 뛰어볼까?" 본부석에서 해인초교와 해인청년회의 결승전을 관전하는 해인사 한주 정원 스님(왼쪽에서 두번째)과 주지 현응 (왼쪽 첫번째), 율원 연구원 진일 스님, 원주 법준 스님, 교무국장 재경 스님, 선원장 선각 스님, 해인청년회가 잇달아 실점하자 안타까와 하고 있다.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복장의식 상량식 불사용 소장 영가천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소 병 풍
(관세음보살 보문품)
(지장보살본원경)
크기 : 가로, 세로 74Cm


달마액자
(중)35 × 50cm
(대)42 × 65cm


옴마니반 메훔족자
60 × 20cm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6×16cm 13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 1143-12-049474 송명화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불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얼음골 케이블카, 영축총림 환경파괴 '시끌'

통도사서 긴급토론회 열려

경남 밀양지역의 얼음골 케이블카는 재약산과 영축산 일대의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가지산도립공원-밀양 얼음골 케이블카 쟁점,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통도사에서 6월 18일 열린 현안긴급토론회에서 나왔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윤주옥 사무처장은 '자연공원안 케이블카의 문제점과 가지산도립공원-밀양 얼음골 케이블카 쟁점'을 주제로 "통도사, 석남사, 표충사, 내원사 등 유명 사찰과 억새군락지 등이 위치한 이른바 '영남알프스'에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생태환경을 파괴시키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며 케이블카 사업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특히 윤 처장은 천연기념물 제224호로 지정된 얼음골과 관련해 "얼음골은 개발에 민감한 매우 희귀한 자연현상"이라며 "얼음골과 500m도 떨어지지 않은 케이블카의 선로 일부분은 얼음골의 생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처장의 주제 발표 후 통도사 사회국장인 진응 스님과 부산대 최송현 교수, 밀양참여시민연대 이철헌 대표, 울산생명의숲 윤석 사무국장,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임희자 사무국장, 낙동강유역환경청 홍동곤 환경관리국장 등이 케이블카 설치 이후 생태 파괴 문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임희자 사무국장은 "경상남도가 수차례에 걸쳐 동의하지 않은 것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통과시켰다"고 현 정부의 개발정책을 성토했다.

밀양참여시민연대 이철언 대표 역시 "얼음골 케이블카 사업은 돈이 안 되는 사업인데 땅장사를 하는 것 같다"며 "한번 손이 닿은 자연은 돌이킬 수 없다"고 반대했다.

이에 낙동강유역환경청 홍동곤 환경관리국장은 "법규에 어긋나는 것이 없어 통과시켰을 뿐"이라면서 추가훼손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기로 했던 밀양상공회의소와 밀양시는 "밀양이 아닌 타 지역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아 빈축을 샀다.

"세간 사람들이 말하는 영남알프스는 경남 동부의 큰 산군으로 영축총림이라는 수행처의 성역"이라 지적한 통도사 진응 스님은 "통도사와 표충사, 석남사, 내원사를 총림에서는 별개로 보지 않는다"며 "영축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번 사업이 과연 적정한 것인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제대로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원 기자hdbp@hanmail.net



통도사가 6월 18일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 문제를 놓고 현안긴급토론회를 열었다.

불국토를 찾아서

용호사회복지관

방과 후 시간을 희망의 기회로

"아이가 혼자 있으니까 사고라도 날까봐 늘 불안했는데 이젠 안심이에요(장명규 · 41)." "숙제도 도와주고 영어도 가르쳐주니까 학원이나 다름없어요(김미진 · 41)." "저녁밥까지 먹여 주니까 정말 고마워요(조점진 · 66)."

부산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은 2007년부터 지역 내 저소득 결손가정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공부방 '댕기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결손가정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기초학습과 일상생활지도, 집단활동과 석식지원 등을 하는 종합적인 아동보호프로그램이다.

또 특기적성교육을 실시, 영화관람, 운동경기 관람, 미술전시관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더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동명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 김보천씨는 "이곳 아이들은 힘이 없고 유난히 왜소해서 마음이 아프다"며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다.

한창 성장기인 어린이들이 부모님의 부재로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지역 적십자 부녀봉사회의 도움을 받아 매일 저녁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보조금 없이 후원금으로 운영하다 보니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다.



이 춘성 관장은 "가정의 경제형편이 열악할수록 어린이가 방과 후 혼자 지내는 비율이 높은데 이는 학습부진으로 이어져 교육양극화와 빈곤의 대물림이 일어난다. 또 방과 후 어린이 방치는 결식과 영양부족, 비행, 범죄에의 노출, 안전사고 등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한다"며 방과 후 공부방을 열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지역주민센터에서 추천받거나 부모가 직접 복지관을 방문 접수해 등록된 12명의 어린이가 '댕기교실'을 이용하고 있다. 여기에 필요한 인력은 모두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아이들만의 '특별한 선생님'이다.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학습지도 봉사단은 학교 공부를 기본으로 숙제를 도와주고, 부족한 기초학습을 지도한다.

서보해 사회복지사는 "처음 왔을 때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한글조차 읽지 못하는 어린이가 있을 정도로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된 어린이들이 아직도 너무 많다"며 더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이춘성 관장은 "책걸상이 없다보니 커다란 원탁에 둘러앉아 수업을 하고 있다. 한창 성장기인데 자세도 나빠지고 집중력도 떨어져 안타깝다"며 "용호사회복지관은 우리 모두의 관심과 사랑으로 운영되는 곳인 만큼 더 많은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주변의 관심과 도움을 호소했다. 이어 "더 많은 어린이들이 함께 공부하고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쉼터를 만들 것"이라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051)628-6737

박지원 기자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위해

6·15공동선언 8주년 불법으로 통일 앞당겨

경남 창원 성주사(주지 원정)에서 6월 21일 '6 · 15km 통일로 가는 걷기대회 및 한여름 밤의 통일음악회'가 열렸다.

6 · 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경남본부가 주최한 이번 축제는 통일이 현실로 다가와 있다는 의식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주사 일대에서 진행된 6 · 15km 통일로 가는 걷기대회는 각 코스마다 확인도장을 찍어주고 음악회 행사 중 추첨을 통해 북한상품, 자전거, 영화티켓 등 다양한 상품을 증정했다. 도착지점은 한여름 밤의 통일음악회가 열리는 특설무대. 참가자들은 자연스럽게 한여름 밤의 통일음악회 관람으로 축제를 즐겼다. 한여름 밤의 통일음악회는 비보이팀의 사전공연을 시작으로 퓨전클래식, 통기타, 청소년 밴드, 통일노래 합창 등 다채로운 음악을 선사했다. 박지원 기자

제1회 독립유공자 합동추모대제

부산시청 등대광장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부산불교연합회는 6월 19일 오후 2시 부산시청 등대광장에서 부산 · 울산 · 경남의 독립유공자 600여명을 합동으로 추모하는 제1회 독립유공자 합동추모대제를 봉행했다.

총 3부로 나눠 진행된 추모대제에서 1부는 영산회상범패보존회(회장 범진 스님)의 영산재와 염불공양회(회장 하정선)의 육법공양으로 진행됐다. 2부는 국민의례, 삼귀의례, 경찰악대의 진혼곡 연주, <반야심경> 봉독, 보현행원 합창, 영제 스님(삼광사 주지)의 고불문, 오미희 부회장((사)국제차문화교류재단)의 헌다, 박성종 회장(독립유공자 유족회)의 축문, 헌화헌향으로 이어졌다. 3부는 추모 장엄염불 및 합창, 합동분향, 사홍서원, 산회가로 마무리됐다.

박성종 회장은 축문을 통해 "광복 63주년을 맞아 차츰 잊혀져가는 순국선열의 뜻을 기리고 애국애족 정신을 함양시키고자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인사말에서 "일신의 안위를 초개처럼 내던지고 일제에 항거했던 독립투사와 이국땅에서 풍찬 노숙하던 애국 열사들이 피땀으로 구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부산이 가진 모든 역량과 잠재력으로 일깨워 나갈 것"을 강조했다.

박지원 기자


부산불교연합회가 6월 19일 제1회 독립유공자 합동추모대제를 봉행했다.

부산 범어사 100일 기도 및 초청 법회

부산 범어사(주지 정여)가 '100일 지장기도 및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연다. 지장재일인 6월 21일 입재, 27일 초재를 시작으로 9월 26일 막재 및 29일 회향까지 100일간 진행된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범어사 설법전에서 마련되는 이번 기도회는 다라니기도, 영가시식 및 <금강경> 독송 순으로 이뤄진다.

100일 지장기도 동안 총 16명의 큰스님 법문을 듣는 릴레이 법석도 마련된다. 첫날인 21일 쌍계사 조실 고산 스님을 필두로 27일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 7월 4일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 등 총 16인이 릴레이 법문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051)508-3636 박지원 기자

현대불교 부산지사 광고 · 구독
문의 (051)632-0064

대통합종단 사단법인 대승불교 조계종
(입종을 환영합니다.)

본 종단은 사단법인 등록 제184721-0000861호로 등록되어 있는 종단입니다.
유사종단에 유의 하십시오.

◇ 입종 구비서류
- 본종 입종 신청서(총무원, 지방종무원 비치) 요청시 우편발송
- 주민등록 등본 1부
- 승적 증빙서류(전종시 타 종단 승려증,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사찰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대장등본, 임대차 계약서 1부
- 여권용 사진 5매
- 사찰전경사진(내,외부)

문의 및 접수처 : 사단법인 대승불교 조계종 총무원
· 주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64-20
· 전화 : 총무원 (051)527-5431~2 / 팩스 (051)527-7733
· 경남종무원 (055)853-0479 휴대폰 011-583-0479
· 중부종무원 (043)648-8942 휴대폰 010-8849-9573
· 김해,창원종무원 (055)291-4218 휴대폰 011-572-4218

내몸내가고치는 한국전통따주기 강좌(스님반)

1. 한국전통따주기란
우리 민족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 따주기로써 예를 들면, 급체 시 엄지손톱 뿌리 밑을 바늘로 따주기 하면 신기하게도 금방 내려갑니다. 온 몸을 이렇게 따주기로 낫게 하는 민족 고유의 슬기로운 자신 건강관리 비법입니다.

2. 신비의 전통따주기 특징
가. 신경을 자극하고, 탁한 피를 맑게 하며, 부족한 피를 생성 시킵니다.
나. 월 1회 기본 따주기로 병 예방 및 건강관리 합니다.
다. 뼈 부러진 곳과 수술한 부위를 제외하곤 모두 적용됩니다.
(상기병, 혈압, 당뇨, 편도, 뒷머리 통증, 수절증, 탈모, 기억감퇴, 이명, 축농증, 감기, 안면풍, 여드름, 입술 부르틈, 버짐, 백반, 목, 어깨, 가슴통증, 협심증, 신경성, 판막증, 정신착란, 우울증, 공포증, 심장협착, 스트레스, 적병(화병), 간장, 심장, 위장, 폐장, 신장, 담, 명문, 소장, 비장, 대장, 방광이 나쁜 자, 자손 얻기, 검은 피부, 위경련(체함), 허리, 다리, 좌골, 관절염, 변비, 냉병, 생리불순, 치질, 정력증강(회춘), 병예방 따주기, 담배 끊기, 술 줄이기, 神氣 있는 자, 엘보우, 병명이 나오지 않는 자, 피가 부족한 자, 갑자기 기력이 저하된 자, 하지정맥 등)
라. 따주기를 접한 날부터 몸이 낫기 시작 합니다.
마. 비장만 따도 내 병의 반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바. 평생 잊지 않는 위치 암기에 10분이면 충분 합니다.
사. 간단하고,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3. 따주기 활용
신도포교/ 자신 건강관리/ 따주기 사회봉사/ 건강 복 짓기 / 생활속 비상 따주기 (풍, 급체, 기절, 경기 등)

4. 강좌 세부내용 (한번 수강으로 이론, 실습 모두 학습)
가. 1일차 (토요일 09 : 00 ~ 22 : 00)
◆ 우주의 기운 ◆ 인연과 탄생, 명부전, 병
◆ 전통따주기 개요, 인체의 구조 ◆ 5행으로 본 인체
◆ 전통따주기, 각 따주기 ◆ 피가 생성되는 기초따주기
◆ 신비한 비장따주기 ◆ 병 예방 비법
◆ 마음의 세계(마음 10단계) ◆ 실습
나. 2일차 (일요일 09 : 00 ~ 13 : 00)
◆ 수치의 비밀 ◆ 궁합 비법
◆ 대운, 연운, 월운, 일운 비법 ◆ 수상 및 관상 보감
◆ 작명 비법 ◆ 종합, 질의 및 답변, 지도사 수료증 수여

4. 강좌 일정 및 장소
가. 강사 : 한국전통따주기연구원장 (교수, 공학박사)
나. 일정 및 수강료 (스님반)
(1)일 정 : 2008. 6. 28(토) 오전 9시 ~ 6. 29(일) 오후 1시(금요일 저녁까지 도착)
(2)수강료 : 34만원(옥황토방 숙박 및 자연식단 제공, 따주기 도구 및 비법교재 등 일체 제공)
※ 강의개시 3일전까지 선착순 예약자에 한해 수강 (선착순 10명)
다. 장소 : 충남청양교육장
라. 준비물 : 편한 복장 및 개인 세면도구
※ 문의처 : 041)944-2237, 010-3234-2237
(www.ddajuki.re.kr)

한 국 전 통 따 주 기 연 구 원

‘운하’인가 ‘물길 잇기’인가

금강, 만경강 연계 광역권 개발방향 세미나 열려

국민 60% 이상이 ‘운하, 단계적 추진도 막아야한다’고 요구하는 가운데, 대운하 사업의 변형으로 의심되는 세미나가 6월 18일 전북 군산 청소년수련원에서 열렸다.

한국자치행정학회 등이 주최하고 전북일보가 주관한 세미나는 새만금과 금강, 만경강을 물길로 연결해 군산지역 발전과 효율적인 새만금 개발 등을 모색하자는 취지였다.

문제된 부분은 군산시가 ‘금강-만경강 물길 잇기’라는 문서를 통해 보여준 내용이다. 군산시가 추진 중인 ‘금강-만경강 물길 잇기’는 금강 하구둑-경포천-미제천을 총연장 16km의 운하로 잇는 사업으로 80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

한 참가자는 “군산시의 ‘금강-만경강 물길 잇기’사업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 중 ‘금강운하’ 계획을 조기추진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다. ‘운하’와 ‘물길 잇기’가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절에서 茶 만들기 정말 좋아요

금산사, 우리차 만들기 템플스테이



6월 6~8일 금산사에서 열린 ‘차 만들기’ 템플스테이에서 참가자들이 찻잎을 채취하고있다.

김제 금산사(주지 원행)가 마련한 ‘우리차 만들기’ 템플스테이가 행사 전 조기 신청마감 등 화제와 함께 사찰 템플스테이의 새 지평을 열어 눈길을 끈다.

‘우리차 만들기’ 템플스테이는 금산사 심원암 주변 1만평 차밭에서 채엽한 자생차로 차 만들기를 사찰 체험 프로그램에 접목했다.

6월 6~8일 열린 행사는 접수부터 정원 40여명을 훌쩍 넘긴 인원이 신청해 인기가 높았다.

금산사 ‘우리차 만들기’ 템플스테이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무엇일까?

금산사 관계자는 “발우공양, 예불, 명상 등 전통적인 산사체험에 직접 자생차밭에서 찻잎을 따 9번 덖고 비벼 그늘에 말리는 과정의 전통 제다법을 접목한 것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직접 차를 만들어 스님과 차담을 나누는 과정이 티백차에 익숙한 일반인들에게는 수행의 한 과정으로 비쳐졌다는 평가도 있다.

서울에서 참가한 윤효섭(46)씨는 “회사에 사직서 제출 후 복잡한 생각을 떨치기 위해 참가했다. 찻잎을 따 뜨거운 불에 차를 덖는 제다체험을 통해, 인고의 과정을 거쳐야 향기로운 차맛을 내듯이 지금 처한 현실을 이겨낼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다. 윤씨는 “고즈넉한 밤 냇물소리와 편한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맑은 공기는 차 맛을 더욱 진하게 하기에 충분했다”고 흡족해 했다.

남편과 함께 부부가 금산사를 찾은 박숙자(49)씨는 “차나무를 처음 봤다. 찻잎을 따고 덖고 하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체험해 좋았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한마음으로 하나된 자리

대불청 5·18 묘역서 27차 청년대회 개최



6월 15일 광주 5·18 국립묘지에서 대불청 회원들이 108참회를 하고 있다.

전국 청년불자 1000여명이 빛고을 광주에서 불심을 다졌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박법수)는 6월 14~15일 광주 무각사와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제27차 전국불교청년대회를 개최했다.

‘희망! 대동! 나눔!’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14일 광주 무각사 경내에서 각 지구별 율동대회와 촛불문화제를 시작으로 진행됐다.

각 지구별 율동대회에서는 부산지구가 ‘연꽃처럼’, 경북지구가 ‘우리 기쁜 날’, 전남지구가 ‘잔치 열렸네’ 등 다양한 율동을 선보이며 경연을 펼쳤다.

촛불문화제는 무각사에서 시작돼 광주시청 앞까지 이어졌다. 촛불문화제를 통해 청년불자들은 사회적 이슈인 한반도 대운하 반대와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했다.

촛불문화제 후 열린 전야제에서 도제(원각사 주지) 스님은 “광주에서 청년불자들을 만나 기쁘다. 대불청대회를 계기로 광주 불교청년회가 한단계 도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행사는 6월 15일 5·18민주묘지에서 진행됐다. 청년불자들은 시상식과 불교청년 결의선언문 낭독, 전국불교청년대회 깃발 이양식, 대불청 발전 서원 108배 참회 후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특히 참가자들은 민주화를 위해 산화한 영령들이 있는 5·18묘역에서 진행된 대불청 발전 서원 108배 참회에 감회가 남달랐다는 후문이다.

5·18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포교원장 혜총 스님은 “청년불자가 사회주인이 되고 희망이 돼야 한다. 투철한 신행으로 큰 서원을 세워 미래를 밝히는 청년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법문했다.

대한불교청년회 광주지구 이승동 회장은 “대불청 법우들이 모여 자비심 가득한 자리였다. 청년불자 모두 보시의 실천을 서원했다”고 말했다.

한편 2008년 불청대상 시상에는 대구지구 이만희 법우가 불청대상을 수상했고, 최우수지구로 경북지구, 최우수지회로 속초불교청년회가 각각 선정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mybuda@naver.com

광주 자비신행회 도심에 터잡았다

6월 13일 장동으로 이전 · 개원식 열어

광주지역 대표 신행단체인 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가 도심 장동으로 이전해 광주지역 신행활동이 새 전기를 맞았다.

시외곽 내남동 폐교에서 위치했던 자비신행회는 지리적 문제로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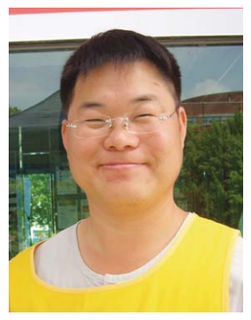
6월 13일 이전해 개원식을 가진 공간은 1999년 자비신행회가 노인무료급식을 시작하며 인연 맺은 공간이다. 전체 220평의 면적에 노인무료급식소(40평), 강당(법당, 45평), 다도교육장(20평), 시민선방, 주방, 사무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자비신행회는 노인무료급식과 재가 화엄학림 교육과 법회, 다도교육장 등 다양한 신행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화영 이사장은 “광주지역 불자 누구나 동참하는 열린 공간으로 활용하고 싶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생명나눔실천회 광주전남지부 윤예중 사무국장

부처님 일은 나의 사명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본부(이하 생명나눔) 활동은 호남불교계에서 유명하다. 1998년 광주에 첫발을 내딛은 이래 복지분야를 중심으로 활동해 온 광주전남지부를 찾아 윤예중 사무국장(사진)을 만났다.

“불교단체가 많지만 자생력을 갖고 사회적 활동과 영향력을 발휘하는 단체는 적다. 특히 호남지역 불교단체는 열악하다. 미비하지만 10여년 세월 동안 소외되고 아픈 이들을 위해 꾸준히 활동한 생명나눔실천본부는 그 자체부터 의의가 크다.”

현재 생명나눔실천본부 광주전남지역본부는 본부장 현지 스님을 비롯해 30명의 이사로 구성돼 활동을 펼치고 있다. 생명나눔에 참여중인 이사는 주로 광주 · 전남지역 사찰 주지스님들이다. 원효사 · 증심사 · 원각사 · 문빈정사 · 연화사 · 정안사 · 비전사 · 달마사 · 동원사 등 지역 사찰과, 콜롬버스시네마 · 미르치과병원 · 연화유치원 · 반야유치원 · 절로가는길 · 작은음악회 등 아름다운나눔의집 소속 10곳이 참여해 소아암백혈병 환아돕기에 동참하고 있다.

생명나눔 회원은 장기기증 회원과 후원회원으로 나뉘어 지난 10년간 2000여명에 이르렀다. 이들 회원이 이룬 성과는 2007년만 해도 치료비 지원 5000여만원 · 헌혈증서 1500매 지원 · 혈소판 헌혈지원 42건 등으로 광주지역 복지의 중추적 역할을 한다.

윤예중 국장은 “생명나눔을 시작으로 소아암백혈병 환우 지원체제와 혈소판 헌혈공여 체계가 시스템으로 정착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앞으로도 소외받는 중생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도울 것인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국장은 고등학교 2학년 때 광주 용화정사 학생회를 시작으로 불교에 입문한 꽤 오래된(?) 불자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와 해남 대흥사 기획과장을 거쳐 생명나눔에 왔다. 광주지역 청년불자들 모임인 육화포럼 멤버이기도 한 그는 생명나눔을 통한 봉사만큼이나 신행활동도 으뜸이다.

윤예중 국장 가족 모두 신심도 대단하다. 윤예중 국장은 물론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에서 만난부인 김혜숙씨도 “부처님 일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입을 모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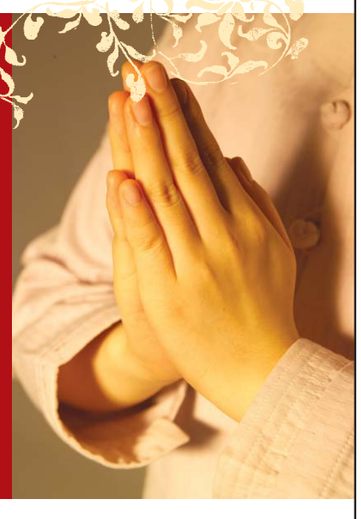
윤 국장의 남다른 신심은 가피로 이어졌다. 5년 전 퇴근길에 차가 전복된 사고를 당해 목뼈를 다쳤다. 병원 진단만 12주였다. 그때 주치의는 윤예중 국장에게 “당신같이 운 좋은 사람은 처음 봤다. 목뼈가 겨우 붙어 있는데 신경을 교묘히 건들지 않았다. 아주 살짝만 엇갈렸어도 목 아래 하반신은 마비가 됐을 것”이라 말할 정도였다. 윤 국장은 당시 대흥사 천불전에서 매일 같이 기도를 올리던 때였다.

윤예중 국장은 “목숨을 잃을 뻔한 사고에서 아무 장애 없이 회복된 것은 부처님 일한 공력 덕분”이라고 말했다. “부처님 일하는 것이 내 사명”이라는 윤 국장의 당당함은 생명나눔에서 크게 빛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소외받는 중생들 어떻게 도울까 ‘화두’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법률사무소 서안은 스님, 불자님들의 권익을 보호해 드리기 위하여 평촌에 사무실을 개설하였습니다.

부처님 법이 곧 마음법이어서 생활하시는데 걸림이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세속의 생활은 마음먹은데로 흘러 가지 않아 각종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이 많이 있고 또한 현실이 그러합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서안은 부처님 법을 받들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마음편히 스님, 불자님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서안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변호사 강영화 · 김기현 · 김택선 합장

瑞安 법률사무소 서안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7 한양월드빌 206호

강영화 변호사 | 031)436-3114 | 010-7504-4521

김기현 변호사 | 031)436-3054 | 017-535-0685

스님! 빙의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전생, 빙의, 자기 최면, 치료최면
(최면 시술사 과정)

개강일 : 2008년 7월 2일(수요일) 오후 1시

▷ 교육 기간 : 6주(24시간) ▷ 모집 인원 : 선착순 10명 ▷ 교육 비용 : 60만원 ▷ 교육 대상 : 스님, 포교사, 불자

특기사항
1. 10명의 소수 정예 엘리트 교육
2. 6주 24시간의 최단기 집중 현장 교육
3. 상상할 수 없는 최소의 교육 훈련비
4. 개인 교습식의 일대일 교육, 책임 교육
5. 현장에서 바로 활용 할 수 있는 실전 교육
6. 새로 개발된 테크닉 수시로 전수하는 평생 교육

적용 → 효과
금연, 금주, 단도박, 다이어트, 도벽 개선, 불안감 해소, 성격개선, 대인공포, 중오, 적대감, 우울증, 마음에 상처, 학습능력, 기억력, 집중력, 건강, 경기력, 자연치유능력, 심인성 장애, 부부 갈등, 외상후 스트레스, 빙의에 의한 사업실패, 건강악화, 정신이상 등등

수행과 포교 또 중생 구제에 바쁜 스님들께 귀의 합니다.
소승은
스님들께서 시간에 쫓기시고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스님들의 사정을 너무 잘 알기에 모든 거품을 빼고 최단기, 최소 교육비로 보시 하고자 합니다.
소승은 자리이타의 정신과 회향하는 마음으로 본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마하 반야 바라밀 – 무초 정락 합장

(사) 유마 정신 건강 최면 연구소
서울 지하철 1호선 종로 3가역 2번출구 앞 ☎ 02)763-0661~2

중생이 아프니 내가 아프다 (유마 거사)

“한 자 한 자 ‘평화’의 서원 담아…”

천안 구룡사서 호국 법화경 사경봉안 대법회…1만여 불자 동참

국가와 민족의 안녕을 위한 호국 법화경 사경봉안 대법회가 6월 14일 천안 구룡사(회주 도림)에서 봉행됐다. 구룡사 신도 1만여명은 이날 법회에서 2만여 권에 달하는 법화경 사경본을 봉안했다.

법화경 사경본이란 부처님의 말씀인 <법화경>을 직접 베껴 쓴 것을 말한다. 이날 법화경 사경은 관세음보살을 독송하며 불사리탑을 탑돌이 한 후 봉안됐다. 봉안된 사경본은 불자들이 쓴 사경집을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여 간 모아온 것들이다.

이날 수월 스님(부산 수월선원 조실)은 법어에서 “사람이 살다보면 누군가가 자신에서 나쁜 소리를 해서 고통을 주곤 하는데, 이것을 참고 견딜 줄 알아야 법화행자”며, “법화행자라면 자기 공부는 자기가 할 줄 알아야 하는데, 인욕수행에는 사경이 적절한 수행법이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동참한 1만여 불자들은 작게는 나의 가족의 안녕을 위해, 크게는 국가와 민족의 안녕을 기원하며 사경 봉안 직전까지 좌탁에 앉아 사경에 몰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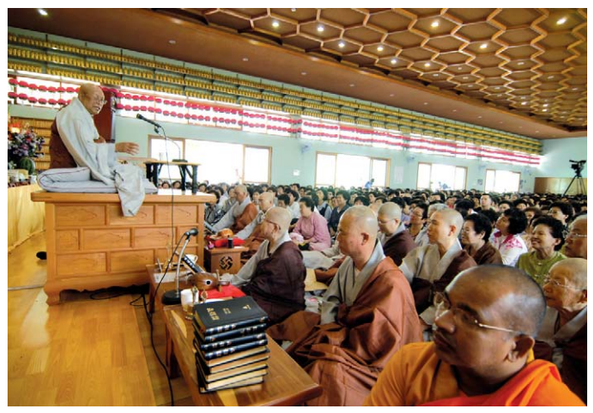
김인선(54 · 경기 성남) 불자는 “1년 전 성지순례를 통해 구룡사에 방문했다가 사경이라는 것을 알게 돼 마음이 심란할 때, 집착이 생길 때마다 사경에 매달리곤 한다”며, “사경을 시작하면 이내 마음이 평온해지고 잡스러운 생각 하나 들지 않을 뿐 아니라 부처님 말씀에 대해 진지하고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경은 이렇듯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법이다. 또한 한자 한자 사경을 할 때 마다 불교를 깊이 있게 공부를 할 수 있게 하는 길라잡이이기도 하다.

법화경 사경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는 도림 스님(법화정사 세계대각법화회 회주)은 “앞으로 서예가들이 쓴 법화경을 돌에 새겨 후세에 남기기 위해 천안 구룡사 세계불교수도원에 비림을 조성할 예정”이라며 “법화경은 말법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최고의 경전이니 열심히 사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님은 “구룡사는 임란과 정유재란이 일어났을 당시 스님들과 3만여 불자들이 항쟁하다 순국한 곳이다”며 “이 거룩한 자리에서 법화경을 수지 · 독송 · 사경하게 된 법화행자들의 불심으로 불법을 깊이 이해하고, 마음공부의 정진을 이뤄나가자”고 당부했다.

도림 스님은 8월 15일부터 2박 3일간 제주도서 진행될 ‘평화통일 불사리탑 사경봉안대법회’에 참석해 법화경 사경의 세계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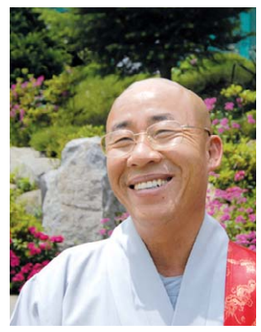

6월 14일 천안 구룡사에서 열린 호국 사경대법회에서 법문하는 수월 스님.

한편 구룡사는 봉안식에 앞서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관세음보살보문품과 다라니품 수지 독송, 명부전 · 산신각 상량식 등도 함께 진행했다.

손효선 기자

부루나 존자를 찾아서 | 무심사 주지 지근 스님

“동자승들의 아버지에요”



“동자승들이 내가 없어도 목탁치며 예불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습니다.”

괴산 무심사(주지 지근)에 동자승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건 5년전 이었다. 어떤 보살이 찾아와 동자승을 받아줄 수 없냐기에 지근 스님은 흔쾌히 허락했다. 그 뒤로 한 두 명씩 받아들인 동자승만 무려 7명. 지근 스님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을 때면 가족이 많아 한 장을 훌쩍 넘겨 버리곤 한다”며 웃어보였다. 친부모에게 상처받은 아이들이 방황하지 않고 해맑게 웃을 수 있는 것은 스님 아빠의 이 포근한 미소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곳에 있는 동자승 묘공(5), 묘성(8), 묘법(9), 묘각(12), 묘정(13), 묘덕(14), 묘선(15 · 행자) 모두 유치원과 학교 성적이 상위 10%안에 드는 우등생이다. 경제적 형편상 학원도 보내지 못하고, 과외도 못 받지만 스님이 사다주시는 문제집을 풀며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부모에게 버려진 동자승 7명과 함께 생활
“평생 소외이웃 보듬는 노력 계속할 것”

하지만 이렇게 공부를 잘 하는 우등생 동자승들도 가끔은 스님 속을 썩일 때가 있다고 한다. 지근 스님은 “한번은 산신각 청소를 맡겼는데 이 녀석들이 청소는 하지 않고 물장난을 해 오히려 일을 더 벌려 놨다”며 그날을 회상했다. 스님은 “동자승들에게 회초리를 들었는데 가뜩이나 상처를 안고 사는 아이들에게 몹쓸 짓을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에 역정을 내는 내내 마음이 아팠다”며 “그렇지만 마음이 약해진다고 해서 아이들을 보듬어 주기만 하면 올바른 스님으로 자라지 못 할 것 같아 마음을 굳게 먹는다”고 말했다.

이렇게 진정으로 아들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일까. 동자승들에서 꿈이 뭐냐고 물었더니 “큰 스님이요~!”라고 우렁차게 대답한다.

무심사에서 이렇게 많은 동자승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지근 스님이 출가할 당시 “소외된 이웃을 꼭 내가 보살펴 주겠다”는 다짐을 가슴에 새겼기 때문이다.

스님은 앞으로 동자승들 뿐 아니라 노인, 장애우, 다문화가정 등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할 예정이다. 그 다짐을 실천하는 첫 걸음이 동자승들과 함께 하는 것이라면, 그 다음 걸음은 오는 7월 1일 개관하는 노인들을 위한 ‘무지개 복지센터’다. 이곳에서는 노인재가지원, 단기보호, 주간보호 등이 이뤄진다. 즉, 노인들이 원하는 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자신의 집에서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노인은 재가지원을, 복지시설에서 서비스를 받고 싶은 노인은 단기보호와 주간보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지근 스님은 “복지도 서비스라고 여기고 행한다면 좀 더 질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이지만 전국 최고의 노인 시설이 되도록 노력 할 것이다”는 강한 포부를 보였다. 복지센터에서 스님은 또 어떤 모습으로 노인들에게 자비의 손을 드리울까.

손효선 기자

“천태종 발전 위한 초석되길”

청주 명장사 창립 36주년 기념법회 봉행


명장사 창립 36돌 법회에서 법문하는 도정 스님.

천태종 청주지부 명장사(주지 화산) 창립 36주년 기념 법회가 6월 18일 명장사 대승전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도정 스님(천태종 종의회 의장), 경천 스님(천태종 사회부장), 경천 스님(광수사 주지), 정우택 충북 도지사, 이기용 충북 교육감, 남상우 청주 시장, 오제세 통합민주당 의원 등 사부대중 700여명이 동참했다.

이날 법회에서 도정 스님은 법어를 통해 “36살이라는 나이는 인간으로 치면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라며 “지금까지 천태종 종도와 청주를 위해 열심히 일해 왔지만 더욱 노력하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이어 화산 스님은 개식사에서 “이 시대가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애국 불교, 대중 불교, 생활 불교가 우리 종단의 3대 지표다”며 “앞으로 종단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우택 도지사는 “명장사는 천태종의 근본 도량으로 많은 발전을 해 왔다”며 “앞으로도 종단 발전의 초석이 되고, 충북 발전의 중심이 되는 도량이 되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한편, 명장사는 창립법회에서 ‘종단의 발전과 기반 구축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해 정우택 충북 도지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밖에도 명장사 신도회 진천지회 지회장 이윤희 씨 외 6명에게 표창패를 각각 전달했다.

손효선 기자

공주 동학사 첫 포살법회 봉행

성우 스님 포살 법사로

비구니 전문 강원 공주 동학사(주지 요명)는 6월 16일 대중결계 후 첫 번째 포살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법회는 조계종에서 수행종풍 진작을 위해 하안거부터 전국의 각 교구본사 등에 포살 법회를 실시한 후 동학사에서 열린 첫 번째 법회다.

동학사는 그동안 보름마다 포살을 실시해왔으나, 이날은 성우 스님(불교TV 회장)을 모시고 보살계 수계법회와 포살법회를 함께 봉행했다.

이날 포살법사로 나선 성우 스님은 “계를 범한 이는 참회토록 가르치라”는 구절이 담긴 사십팔경구계(四十八輕垢戒)를 설했다.

동학사 주지 요명 스님은 “종단의 대중 결계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포살이기에 외부에서 율사스님을 직접 모시고 포살법회를 봉행하게 됐다”며 “이번 포살법회를 근간으로 삼아 강사스님들이 포살법사가 돼 학인스님들의 포살을 지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선 기자

청주불교방송 6대 사장에 현우 스님

운영위원 만장일치 선임



청주불교방송 제6대 사장에 현우 스님(법주사 총무국장)이 선임됐다.

청주불교방송은 6월 16일 열린 제30차 운영위원회의에서 신임사장에 현우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임했다.

현우 스님은 ▲남부권역의 난시청 해소 위한 중계소 설치를 위한 사업 ▲영상포교를 위한 준비 ▲생동감 있는 뉴스 보도 ▲정책을 적극 수용하고 협의하는 역할 등에 주력하겠다고 발표했다.

현 우 스 님 은 1997년 법주사 교무국장, 1999년 고산사 주지, 2004년 중화사 주지를 역임하고, 2008년부터 법주사 총무국장을 맡고 있다. 혜철 충청지사장

투투컴퓨터
전문가용 종합 역학프로그램 /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홈페이지 제작, 관리 / 종합사찰 서비스
전화: 서울 02)585-1141 / 부산 051)505-2434
www.twotwocom.co.kr
네이버에서 투투컴퓨터를 치세요! 사주대전, 금강장사, 홈페이지 제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금강장사 사찰신도관리 전문프로그램 금강장사
한눈에 보이는 신도관리! 철저한 사후관리!
축원관리/회원관리/영가관리/생일관리/명함관리/모듬처리/일정관리/회계관리/신수보기/전체신도인쇄/자료정리와 백업기능.. 투투컴퓨터의 금강장사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전문가용 종합 역학 소프트웨어 투투컴퓨터 검색
四柱大典
사주대전은 무료 업그레이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새로워지고 강력해지는 사주대전의 모습을
투투컴퓨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명리, 주역, 귀곡, 자미, 기문, 궁합, 성명, 택일, 당사주, 토정비결, 오운육기



홈페이지 제작
1. 제작에 관련된 모든 것을 전문담당직원이 직접방문 상담
2. 제작 후 지속적인 홈페이지 관리 컨설팅지원
3. 검색사이트 일반등록 무료대행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중생교육을 위한 맞춤 교육
전생 · 빙의 · 자기 최면 · 치료최면

개 강 일	2008년 7월 3일 (목요일) 오후 2시
교육기간	1개월 주 2회 (총 8회) : 고급 속성반
모집인원	선착순 10명
교육비용	60만원
교육대상	스님. 성직자. 의사. 한의사. 대체 의학인. 체육 지도자. 최면 관심자
교육내용	자기 최면 / 타인 최면 / 기억력, 집중력 증강 / 전생과 빙의 / 우울증 해소 / 대인공포 / 성격개선 스트레스 / 수면장애 / 다이어트 / 금연 / 금주

◆ 특기 사항
1. 상상할 수 없는 최소의 교육 경비
2. 개인별 심층교육, 이론을 토대로 실기 위주의 교육
3. 현장에서 바로 활용 할수 있도록 책임교육, 평생 교육
4. 지방 교육생을 위한 기숙사 무료 이용

진정 누가 당신을 능숙한 최면술사로 만들어 줄것인가를?
수많은 교육생이 바글 거리는 교실에서 이론 위주의 교육으로 얼마 만큼의 교육 효과를 얻으시겠습니까?
수강비가 수백만원씩 해야만 고급교육일까요?
훌륭한 강사 입니까?
소승은 최면의 본질적 이고 체계적인 최면지도자를 양성하고자 회향하는 마음으로 본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사단법인 해동 체육지도자 교육연수원
서울 · 구로구 구로 1동 685-201 천인빌딩 5F
본원 교학과 Tel : 02-853-6010~1



원장 우혜안 스님



강사 : 이혜숙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겸임교수, 불교아카데미 원장)
주최 : (사)지혜로운여성
일시 : 2008년 6월 17일 오후 7시
장소 :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원
후원 :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 불교여성개발원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갖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마음이 쓰이게 된다. 따라서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이는 것, 그러므로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얽혀 있다는 뜻이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에 나오는 문구다.
얽매임 없는 대자유는 소유하지 않음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6월 17일 오후 7시 사단법인 지혜로운여성 주최로 조계종 교육원에서 열린 이혜숙 동국대 교수의 '시대의 화두 • 나눔' 강연 또한 소유의 집착을 끊은 나눔을 주제로 한다. 이날 강연을 맡은 이혜숙 교수는 동국대불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강의뿐만 아니라 불교아카데미를 비롯한 불교단체 주최 강연 등을 통해 불교사회복지를 알리고 있다. 이혜숙 교수는 '나눔'이야말로 부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온 화두라고 강조한다.

나눔 통한 행복찾기…불자의 '화두'



시대의 화두 '나눔'

역설적으로 '나눔'이라는 말은 우리 시대의 화두가 아닙니다. 부처님 당시부터의 화두입니다. 부처님 기본 가르침인 연기는 '모든 것은 자성을 갖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현실에서 보면 가족과 친구, 더 나아가 내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소외와 고통 받는 사람도 내 인생의 일부분입니다. 나를 포함한 사회전반에 대한 통찰이 있을 때 진정한 나눔이 가능합니다. 불교는 크게 신(信) · 해(解) · 행(行) · 증(證) 4가지 믿음의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信)은 사찰에 가서 법문을 듣거나 경전을 읽는 등 불교를 접해서 그것이 마음으로 와 닿을 때 시작됩니다. 기복과 타력 · 자력을 떠나 신은 해 · 행 · 증의 단계로 이어집니다.

해(解)는 불교를 알고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믿어 알고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불자로써 다른 사람에게 불교의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오랜 신행생활을 한 불자들이 경전을 공부하고 교리를 배움에도 자꾸만 불교교리를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법회나 경전읽기 그리고 참선을 통해서 배운 교리가 회통(會通)하는 바를 잘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교교리를 현실에서 통찰하고 확인해 보려는 노력이 부족하여 배움이 배움으로만 그치기 때문입니다.

참다운 불교공부를 위해서는 평상시 개개인 마음작용을 살피는 것은 물론 사회의 움직임을 연기법에 적용하여 통찰해야 합니다. 광우병 파동을 비롯한 사회현안들에 대한 문제를 불교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안목을 키워야 합니다. 또한 중국 · 미얀마 · 북한 · 불우이웃 돕기 등 도움이 필요한 곳을 알아보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마음 안팎으로 나와 내 주변뿐만 아니라 그 밖에 소외받는 모두의 현실을 부처님 가르침으로 읽어내는 것이 진정한 불교공부라 할 수 있습니다.

행(行)이란 위에서 얻은 이해를 바탕으로 실천 ·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참선이나 위빠사나만 하더라도 행주좌와(行住坐臥) 언제 어디서든 실천하고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 가족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나 사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반대로 예상치 못한 행운이 찾아왔을 때 등 모든 일들이 수행의 일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불교적 성찰이 불자수행의 기본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성찰을 통한 깨달음을 나눌 때 수행은 완성됩니다. 가장 쉽게는 NGO단체 등 사회단체에 정기적인 보시와 후원을 통해 가능합니다. 복지현장에서 타종교에 비해 불교계의 위상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많은 불교복지단체들이 사회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 후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사찰신도회 등을 통해 노력봉사 하는 것으로도 가능합니다. 신도회에서 다른 사람을 따라서 하기보다는 주도적으로 나서서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다니는 사찰 또는 다른 사찰 행사와 봉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후원금이 어디에 얼마나 쓰이는지에 대한 관심과 기록도 따라야 합니다. 많은 불자들이 사회각처에서 노력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봉사활동들이 문서화 되지 않아 타종교에 비해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현실입니다. 기록을 통한 문서화는 대외적으로 홍보에 도움이 됩니다. 봉사 홍보를 통해 다른 불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 작은 일부터 봉사활동을 기록하면 다른 봉사자들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 · 정보교류 등 사회자본이 활성화되면 신뢰와 결속력 등이 높아져 사회전반적인 능력도 따라 높아집니다. 불자는 관심과 참여로 내가 나눌 수 있는 일을 찾고자 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여 사회현안에 언제나 깨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활동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에 있어서 대부분 자신이 노력해서 맞춰야 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을 인지하고 한 마음 바꿔 노력한다면 진정한 나눔이 가능할 것입니다.

증(證)은 위의 단계를 통해 성취하는 것입니다. 불교에 있어 성취란 무엇입니까? 수행정도에 따라서 그 성과를 증득하는 것이 분명한 법칙인 만큼 우리는 불자가 된 전후를 비교해 생활에 좋은 변화와 진전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 현실에 비춰보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불자라서 행복합니까? 신행생활을 통해 나와 내 주변이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둠속에서 등불을 비춰주듯 여러 가지 방편으로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가르침을 얻은 불제자들은 오래지 않아 마음의 취착(取着)이 없어지고 번뇌로부터 해탈한다고 했습니다. 해탈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널리 포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 귀의한 불제자의 역할과 성취해야 할 목표입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지금 자신이 행복하지 않고 평온하지 않다면 불자의 길을 다시 가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가슴속에 누군가를 원망하고 적대하는 마음을 품은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남의 이익에 대한 질투와 자신의 이익을 더불어 나누지 못하는 인색함 때문입니다. 사회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이익에 대한 탐심 그리고 물질소유에 대한 불만족입니다.

불교에서 물질이란 인연 따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것입니다. 소유의 탐심으로 인한 번뇌를 내려놓을 때 행복은 찾아옵니다. 돈과 체력, 권력뿐만 아니라 여타의 능력도 있는 그대로 아낌없이 쌓아두지 말고 나눔으로 회향해야 합니다. 마음 안팎의 경계를 수시로 점검해서 가볍게 털어놓고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업(業)으로부터의 해탈이고 대자유로 향하는 길입니다.

나눔은 지금 내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멀리보고 가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들어 주저앉을 때면 도반이 이어 다시 가고 또 이어감을 반복하다보면 언젠가는 지향하는 바에 귀결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나눔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주변사람에게 "사랑하세요" 말 한마디와 환한 미소를 건네 보세요. 그것이 바로 나눔과 행복의 시작입니다.

글=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사진=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부처님 가르침은 복잡 방대한 것 아니다
주변 작은 것부터 실천할 때 드러나는 것

관상학最高의 秘書
면상비급
절찬리 판매중
이제까지 공개되지 않은 관상학의 비법수록!!
관상학의 완결편!!


4×6변형판 / 432쪽 / 값 25,000원
▣ 관상학을 배우면?
첫째 자신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둘째 자신과 고객이 차별화되어 마주하게 됩니다.
셋째 한층 업그레이드되는 고객중심의 상담을 지향할 수 있습니다.
▣ 저자 직강
〈한국전통과학 아카데미〉 - 매주 일요일(오전 10:30~13:00)
문의전화 02)929-4646
기업은행 041-055985-02-010 문해성
전화 02)354-8646 팩스 02)384-8644 청학출판사

한글한문(겸용) 불교상용의식집
실무자 스님이 염불 한글화 하여!
"염불자가 경전의 내용을 알고 염불하는"
《의식집》을 만들어 소개합니다.
내 용 소 개
①한문염불(기존염불)과 우리말염불(경전 내용으로 구성)을 염불자가 어느 쪽이든 자유롭게 선택하여 집전 할수있게 만들었습니다.
②우리말 염불화를 하기위하여 한문의 (음)만 달은 것이 아니고 경전의 내용을 염불로 구성하여 편찬함으로 염불을 하면 자동적(주입식)으로 경전공부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③의식의 분야에 따라 각각 5권으로 분류하여 염불내용을 위주로 조직하여 책의 분량을 줄여서 소장용이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④염불의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운운)을 최소한 적게하고 실무차원에서 염불자의 작은 애로 까지도 배려하여 초보 집전자도 편안하게 집전 할수있게 하였습니다.
⑤염불의 한글화는 우리 불교의 과제인데 염불하는 방법을 한부분 소개한다면 "삼청을 하는 청사를 "2청은=한문염불(기존염불)로 하고 "1청은=우리말염불(한글염불)로 한다면 많은 시간과 노력 없이도 자동적으로 한글화 할수있는 지름길이 된다고 확신 합니다.
구 성
• 제 1권 : 예경:각청편 • 제 2권 : 천도:시식편
• 제 3권 : 수계:방생편 • 제 4권 : 장의편
• 제 5권 : 점안편
(이상 5권이면 기본염불 완료) 총 5권 특별보급가 67,000원
앞으로 상용의식집을 운주사 및 전국 불교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상용의식집을 보신 후 격려전화를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성묵 합장 -
문의 전 화 054)974-1345
핸드폰 011-277-8024
불서총판 운주사 02)3672-7181
(농협 : 211012-52-203756) 박명덕 ※각권 별도 구입 가능

발 로 해
(특수기능성 두한족열 양말)


발로해가 오리지날 기능성!
유사품이 가격은 비싸고 품질은 떨어집니다
◉절수행 최고의 수행도우미!
(법당에서,참선,명상,성지순례,등산,운전,고시수험생)
◉양말 내부의 금강저문양과 도트에서
노폐물,독소,나쁜기운 빼는 특급비밀!
◉신는 순간 발이 따뜻해지며
매끈매끈,보들보들,보송보송 100%보장!
KBS (생로병사의비밀, VJ특공대, 감성매거진 행복한오후)출연
SBS스페셜 (0.2평의 기적)출연 BBS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출연
동아일보 한겨레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 등 기사 다수
특별판매가 : 2만원 (배송은착불)
주문처 : 서울법당 (02)-456-0035
부산법당 (051)-583-7886
대구법당 (053)-743-0063
인터넷한글도메인 : www.법왕정사.kr

설법 연수생 모집
15년의 전통을 지닌 한국설법연수원에서는
"맞춤식 설법 지도" 연수생을 모집 합니다.
■ 교육목표
◇나의 발견 ◇나의 계발 ◇나의 실현
■ 교육내용
◇ 대인불안 공포증해소, 대담한 성격 배양, 자신감, 열정, 호소력, 화술··· 설법실기
◇ 인사말, 축사, 주례사, 토론, 회의진행법 등
■ 특징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최면(催眠)도 활용.
■ 일시 : 수시접수 · 교육일시는 맞춤식으로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나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나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 나를 만들자
◆ 문의 및 신청 ◆
TEL 02)747-1567
H·P 011-248-1567
한국설법연수원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층)
〈지하철 1, 3, 5호선 종로 3가역 2번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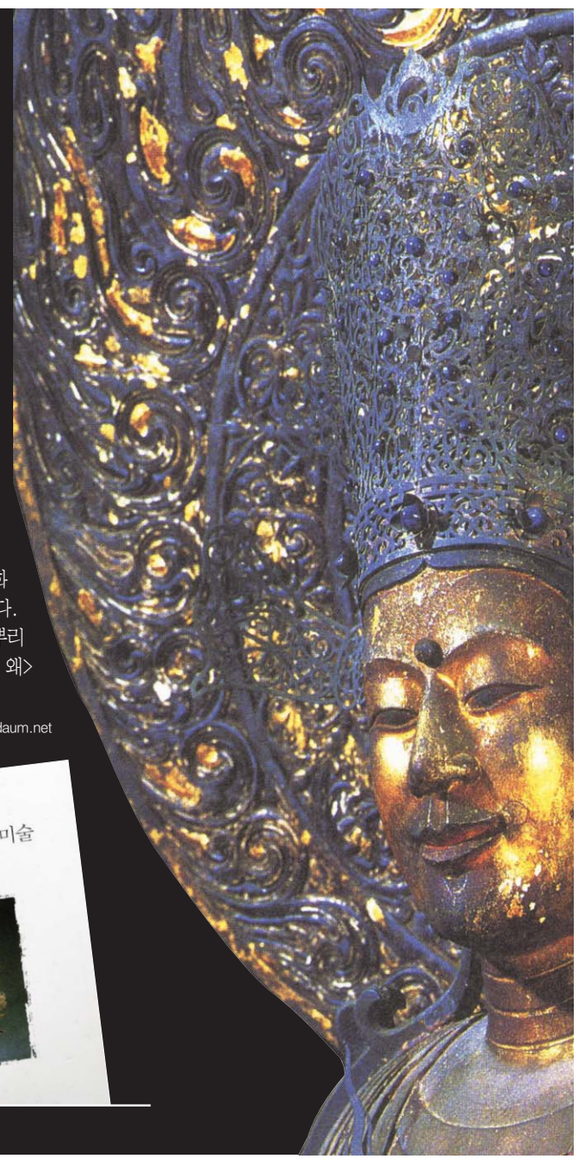
한 권의 불서 성불의 씨앗

불서읽기 캠페인

일본에 남은 한국미술

존 카터 코벨 지음 • 김유경 편역
글을읽다 펴냄 | 2만5000원

잃어버린 불교미술사 찾다



잃어버린 백제와 고구려의 불교미술사, 일본에서 되찾다.

1970년부터 1990년까지 미국 출신의 동양미술사학자 존 카터 코벨(Jon Carter Covell, 1910~96) 박사가 쓴 문화탐색서이다. 1천4백여 편의 글에서 분류된 90여개의 칼럼 · 3개의 논문 · 1권의 저서를 합쳐 번역 · 편집되었다. 일본의 그늘에 가려진 한국의 예술을 재발견하고 정작 일본에서 꽃피운 한국국적의 불교유물이 지닌 학문적 진실을 파헤친다.

존은 잃어버린 한국의 봄을 찾아 1960년의 덕수궁으로 향한다. 그러다 길을 잃었고 우연히 들르게 된 골동품 가게에서 10달러를 주고 청동거울을 두 개 산다. 헐값이기에 당연히 가짜라고 생각했다. 이후 일본 교토에서 그것이 2천 년 전 한국의 첫 샤만(무당)을 의미하는 무속의 상징으로 진품임을 알게 된다. 현재 그 '동경'은 호놀룰루의 은행금고에 보관되어 있다. 미국에 한국미술만 다루는 박물관이 개관되길 기다리며.

빼앗긴 것과 잃어버린 것은 엄연히 다르다. 존은 분노와 안타까움만이 해결책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녀가 숭고하게 바라보아 왔던 한국의 불교미술이기에 고대유물 '동경'도 10달러에 스스로를 허락했던 것이다. 그녀가 강조하는 것은 한국문화에 대한 자긍심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문화를 되찾기 위한 노력의 당부다.

오랜 기간 동안 성찰과 연구에서 걸러진 보석과 같은 사실은 절대 중국과 일본의 틈바구니에 낀 한국사를 간과하지 말라는 점이다. 그녀의 바람은 한국의 무속신앙과 불교의 습합으로 확대되는 궁금증을 해소한 첫 한글 번역 책 <한국문화의 뿌리를 찾아-무속에서 통일신라 불교가 꽃피기까지>에서 시작된다. 그녀의 그러한 애정이 발전되어 한권의 책으로 통합된 것이다.

지금 당장 일본 나라의 호류지(法隆寺)로 날아가 7세기 백제(구다라) 관음과 만나고 싶다. 한국에서 사라진 고려불화 '양유관세음도'가 모셔진 대덕사에서 일심으로 오체투지하고 싶다. 한국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돌이켜볼 시간이다. 한국문화를 두고 '중국문화의 변방적 아류' '일본문화에 미친 나라'라고 여겨왔다면 반드시 이 책을 보아라. 존의 <일본에 남은 한국미술> 탐험기는 일본에 남겨진 고대에서 조선에 이르는 한국의 문화유산을 망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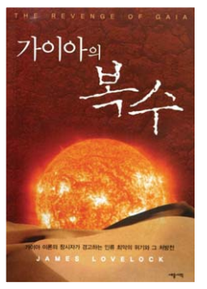
존은 1941년 미국 컬럼비아대학에서 서양인으로는 최초로 일본미술사와 고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녀의 세 번째 한국 방문이 된 1978년 이후 그동안 '일본 것' 혹은 '중국 것'으로 알아왔던 수많은 미술품들이 사실은 한국에 유래를 두거나, 한국인 예술가의 손에서 만들어져 나온 것이며, 한국적 주제 의식으로 만들어진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1981년 12월 16일 <코리아타임즈>에 "내가 컬럼비아대학에서 배운 일본사는 가짜였다"고 고백 했다.

편역자 김유경은 서울대 사범대 불어과와 이화여대 대학원 불문과를 나오고 경향신문 문화부 기자와 부장을 지냈다. 존 코벨의 <한국문화의 뿌리를 찾아> <부여기마족과 왜>를 편역했다.

가연숙 기자 omflower@daum.net



환경과 화해하는 법



가이아의 복수
제임스 러브록 지음 • 이한음 옮김
세종서적 펴냄 | 1만2000원

지구의 대변혁기인 지금, 가이아 이론은 유효한가?

영국의 과학자 제임스 러브록이 '가이아 가설(Gaia Hypothesis)'을 제시한지 35년이 됐다. 가이아의 어원은 카오스에서 태어난 대지의 여신(Gaea)이다. 지구의 뜨거운 내부와 그것을 둘러싼 상층 대기 사이의 땅과 물로 된 얇고 둥근 껍질에서 40억년 이상의 세월 동안 살아온 생물들의 상호작용을 가이아(Gaia)로 재탄생시킨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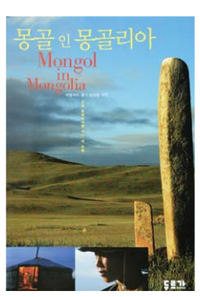
작가는 시시각각 다가오는 지구온난화라는 환경 대재앙을 가이아가 인간에게 되돌려주는 '그녀의 복수'라는 관점으로 분석한다. 이런 비유적인 의미로 지구가 살아 있다는 개념을 대우주로 확대한다. 인간이 자신이 사는 세계의 나머지 부분들과 화해하는 방법에 관해 소개하는 입문서이다.

러브록이 지적하듯이 우리는 현재 양의 되먹임(Positive feedback)적인 나쁜 순환 고리에 갇혀 있다. 인간은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위험할 정도로 모른다. 전체를 보고자 하는 시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구의 본질이 생명체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의 삶은 재정비 되어야 한다.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저질러 온 만행의 대가는 서서히 그 강도가 증폭되고 있다. 인간은 지구를 돌보는데 실패했고 지구는 인간을 내침으로써 스스로를 돌보려 하고 있다.

과학자로서 러브록은 가이아 이론이 일시적인 것이며 더 포괄적이고 더 완전한 지구관으로 대체될 가능성을 인정한다. 직관적인 환경론이 싹틀 수 있는 씨앗이 되길 바란다. 지구의 환경 문제를 지휘하는 고삐가 되어 인간이 가이아의 일부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가연숙 기자

대초원의 삶, 위대한 순환의 질서



몽골 인 몽골리아(Mongol in Mongolia)
어럴저뜨 글 • 김성철 사진
두르가 펴냄 | 1만5000원

몽골인에게 대지는 모든 생명의 어머니다. 유목민 또한 계절 따라 정해진 초지로 이동하는 순환적인 삶을 살아간다. 그들에게 있어 자연도 사람도 모두 존귀한 존재들이다.

고대유적 도시의 문명을 전문으로 취재하여 출판해온 '도서출판 두르가'의 네 번째 여행도시는 몽골이다. 2년의 취재 기간과 1년의 정리를 통해 1만 컷이 넘는 사진에 코멘트를 더하여 몽골의 역사 그리고 유목민의 삶을 이야기 한다.

<몽골 인 몽골리아>는 바람을 따라 초원을 가르며 13세기 몽골제국의 수도 하르허린과 고비사막으로 향한다. 여행자의 동선에 맞추어 나라를 이해하도록 하고 몽골인의 신앙적 측면까지 아우른다. 총 두 개의 장으로 구성하여 첫 번째 장은 유목민들이 남긴 유적과 그들의 생활상을 다루었다. 두 번째 장에서는 그들의 문화와 현재 몽골의 사정을 묶었다.

"오직 이 한마음의 자취를 따라가라"



위없이 심히 깊은 미묘법이여
김일수 글|도피안사 펴냄 | 9500원

진리의 근원을 찾아 마음을 헤맸던 한 인간의 행로(行路)가 여기 있다.

ID:유마, 고(故) 김일수(1954~2002)의 헌신적인 종교생활을 유마와 수자타의 대화 시리즈로 묶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대승기신론>을 읽고 회심(回心)한 이후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왜곡 없이 인지한다.

늘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마음의 법을 사유하는 흰머리의 장사꾼 유마에게 어진 여인 수자타가 찾아온다. 그리고 마음이란 모든 것을 내는 주인공임을 대화한다. 세상과 나의 사유 속에 만개한 희론(戱論)의 이념이 멈출 때 비로소 지혜와 만난다.

임종의 순간, 정신을 놓기 전에 써내려간 유마의 당부는 적정한 삼계(三界)의 열반으로 향한다. 그리고 수자타에게 당부한다. "오직 이 한 마음의 자취를 따라 길을 만들어 가라. 반드시 네 마음에 흔들림 없는 금강(金剛)의 믿음이 이루어지리니."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욕망, 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	정준영 외	운주사
2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3	신심	혜인	클리어마인드
4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월호	불광출판사
5	나를 깨우는 108배	구본일	김영사
6	아발로키테슈와라, 당신은 나의 연인	월호	운주사
7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운 삶
8	0.2평의 기적	나은희	크리에디트
9	인연(1)	정찬주	작가정신
10	아름다운 인생은 얼굴에 남는다	원철	뜰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모든불교서적이 모이는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

양지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 승무북,
모듬북 · 장고 · 징 · 꽹과리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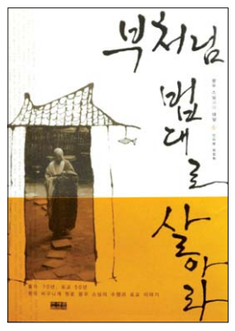
봉 해동불교무량종 행
종 도 모 집
해동불교무량종은 석가모니부처님의 자각, 계송, 각행원만의 근본교리를 바탕으로 상구보리하화중생의 보살도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생활 속의 적극적인 포교를 종지로 합니다
학성 (무량 대종사)
· 총재 및 조실 : 김정일 (법일 대종사)
· 종정 대행 총무원장 : 학성 (무량 대종사)
· 중앙고시법계위원장 : 박찬옥 (춘파 종사)
· 중앙교육원장 : 신원식 (도우 종사)
· 중앙포교원장 : 이광춘 (혜엄스님)
· 중앙사정원장 : 김광윤 (성일스님)
· 비 서 실 장 : 조종훈 (광원스님)
◆ 사암등록 입증서류 ◆ 사찰등록 명신자 등록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이력서 소정양식 1통
◆ 승려, 교임, 전법사 신고서 1통 ◆ 명함판 사진 5매
(재) 해동불교무량종
총본산 : 전남 여수시 소라면 관기 1구 10번지 무량사
전화 061)3114-4074 / 010-3114-4074
※입종시 사암등록증과 주지임명장과 법계증서, 수료증서, 승려증을 드립니다.

눈,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마루판
◆ 조립식 원두막 방갈로 7000×3500×3300(mm) 가격:750만원
◆물로 청소하는 평상 1800×1030×350(mm) 가격 : 190,000
연결, 이동 사용 할 수 있으며 보관 설치가 간단한 평상
갈라지거나 터짐이 전혀 없고 주기적 도색이나 관리가 필요 없어 반 영구적이며 특히 촉감이 부드럽고 비 온후 바로 앉을 수 있는 제품
지구산업
www.bangaro.com/ 조립식평상
TEL:(063)323-3011~2
FAX:(063)323-3010
계좌번호 (농협) 519 - 02 - 203482 예금주 : 지구산업 곽 영 호
전품목부가세별도 전국대리점모집



출가 70년, 포교 50년
비구니 원로 광우 스님의 수행과 전법이야기

바로 믿고 바로 행해 참사람 됩시다



부처님 법대로 살아라
광우스님 구술 | 최정희 정리|조계종 출판사 펴냄

"바로 믿고 바로 행해 참사람 됩시다." 비구니 최초 강원 및 정규대학 졸업, 비구니 최초 조계종 명사(明師) 법계 품수, 전국비구니회의 전신인 '대한불교 비구니 우담바라회' 설립 등 비구니계의 살아있는 역사인 광우 스님. 최근 출가 70년, 포교 50년을 기념하는 수행 포교 대담집 <부처님 법대로 살아라>를 펴낸 스님은 6월 17일 정각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평생의 구도역정을 '정신(正信) 정행(正行) 정각(正覺)'이란 세 단어로 요약했다.

1925년 경북 군위에서 태어난 광우 스님은 부친(혜봉 스님)과 모친(명성 스님)까지 모두 출가한 불교집안 출신이다. 1939년 15세 어린 나이로 어머니와 함께 직지사로 출가한 스님은 1940년 최초로 개원한 비구니 강원인 남장사 관음강원에서 처음으로 공부한 학인이었다. 스님은 1956년 비구니로서는 최초로 4년제 정규대학(동국대)을 졸업, 당시로는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물론 그때만해도 비구니가 대학을 다닌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이들이 많아 부득이 남장(男裝)을 하고 학교를 다니는 해프닝도 있었다. 또 스님은 2007년 종단 사상 처음으로 비구의 '대종사'에 해당하는 명사 법계를 품계 받았다.

이렇듯 법명 앞에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니는 스님에게 가장 큰 공적은 무엇보다 비구니계의 위상을 확고히 정립한 데 있다. 1967년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의 전신인 '대한불교 비구니 우담바라회'를 결성하는데 앞장선 스님은, 이후 1995년에는 두 번째로 전국비구니회 회장이 되어 8년간 재임하게 된다. 재임 당시 광우 스님은 전국비구니회관 건립이란 대작불사를 원만히 추진했다.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전국비구니회관의 낙성을 광우 스님은 많은 스님들이 공심(共心)으로 도와주었기 때문이라고 여겼다.

"총공사비가 120억원이 들어갔는데 전국 사찰에서 보내온 성금이 35억원이고, 나머지 85억원은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이 희사한 것입니다. 대행 스님이 비구니회관 불사에 동참한 것은 참 훌륭한 결정이었어요."

비구니승단의 발전에 매진해 온 스님은 도심포교에도 개척자적인 원력을 쏟아왔다. 1958년 삼선동에 정각사를 세울 당시만 해도 서울 시내에는 포교에 관심을 기울인 사찰이 손에 꼽을 정도였다. 그런 상황에서 스님은 비구니의 몸으로 그것도 세납으로 33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도심포교활동을 시작했다. 게다가 당시로서는 드물게 어린이법회, 중고등학생법회, 대학생법회까지 개설해서 운영했다. 이런 연유로 당시 정각사 법회에는 윤호균(성신여대 대학원장 역임), 이이화(역사학자) 등 많은 지식인들이 몰려들었고 개신교, 통일교 등 이웃 종교 성직자들이 눈에 띄기도 하는 등 성황을 이루었다. 이런 활동은 현대 한국불교 포교사의 시발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구니회관 건립 등 비구니계위상 강화
도심포교에도 개척자적인 원력 쏟아내

당시로서는 드물게 <신행불교>란 사보를 발행하고, 학생법회를 지도하는 등 40년 동안 정각사에서 신행한 서윤길 동국대 명예교수는 "스님의 절 정각사가 그리 큰 것도 아니건만, 모든 수입을 거의 톨톨 털어 국내외 어려운 학인들을 돕고, 각종 장학사업을 벌이고, 군부대와 교도소를 찾아 지원하셨다"고 회상했다.

특히 출재가를 막론하고 불교공부 하는 인재들을 아끼고 도와준 스님의 한평생은 '학승과 불교학자들의 대모(代母)'라는 닉네임까지 얻게 했다. 미산 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은 "스님은 불교학 발전을 위해 뇌허학술상을 제정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룬 불교학자들에게 용기와 자부심을 일깨워주고 학인들에게는 각종 장학금을 마련해주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깊은 배려와 사랑을 베푸셨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스님의 일거수 일투족은 그대로가 구도의 몸짓이요, 생생한 법문으로 다가온다. 출가후 70년 동안 거동을 못하지 않는 한 하루도 빼놓지 않고 새벽예불을 올리고, 50년 동안 전법과 인재불사를 쉬지 않은 것은 참선과 포교를 둘로 보지 않는 스님의 수행관에서 비롯됐다. 특히 평생 수지독송하며 사경하고 강의한 <법화경>은 대작불사에 임할 때 숱한 난관에도 물러서지 않는 용맹심과 원력을 갖추게 한 밑거름이 되었다. 스님은 "모든 중생이 다 불도를 이루고 부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화경>의 위대한 정신"이라며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든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법화경>의 일승(一乘)사상"이라고 강조했다.

'부처님 법대로 살아라'는 책 제목처럼 평생을 여법(如法)하게 수행한 원로 비구니의 출가인연에서부터 수행 및 포교담, 후학에 대한 당부가 할머니의 포근한 음성으로 다가오는 것은 무엇보다 인터뷰와 원고정리에 심혈을 기울인 최정희 前 현대불교신문 편집국장의 정성이 큰 몫을 했다. 그는 "나로서는 대담 내용도 내용이지만 팔순이 넘은 노비구니 스님이 노구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꼿꼿하게 앉아서 옛날 얘기를 섞어가며 부처님 가르침을 들려주는 그 태도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고 말했다.

책을 읽다 보면 무명초(無明草)를 자른 15세의 소녀가 83세의 원로 비구니로 거듭나는 모습이 한 거인의 드라마틱한 일대기를 넘어서, 한국 현대불교사를 그린 장편 서사시처럼 다가올 것이다. 김성우 기자

한 권의 불서 성불의 씨앗
불서읽기 캠페인

내 인생의 불서 한권

고따마 붓다(역사와설화)
성열 | 도서출판 문화문고 | 2008

임창홍 교사불자연합회장

'시대적인 붓다'를 만나다



'사바세계에서 보통의 인간이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다'라는 그 깨달음의 과정을 거쳐 붓다의 경지에 이르신 석가모니의 화신불(化身佛)에 대한 많은 책자들이 있다.

어릴 적 어머니 손목 잡고 절에 가 스님이 들려주신 부처님 얘기와 10여년간 불교를 이해하며 읽어보았던 붓다의 일대기 내용들이 탄생에서 입멸까지의 과정을 풀이한 것이었다.

필자는 지난 서울경인교사불자회 '53선지식을 찾아서' 행사를 서울 강남포교원 법당에서 봉행한 바 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의 저자이신 성열 스님은 우리를 반겨주시며 "교사들은 우리의 기둥인 청소년 포교의 최일선에선 막중한 책무를 지녔다"고 하시며 <고따마 붓다(역사와 설화)>를 참석한 모두에게 나눠주셨다. 그러면서 "붓다를 바르게 이해하고 청소년교화에 힘쓰라"고 당부하셨다.

부처님 탄생에서 입멸까지 다각적으로 풀이
그 시대 인도의 상황 여실히 보여준 연구서

이 책은 처음 전개되는 내용이 다른 책과는 다르게 인간 '고따마 붓다'의 탄생 무렵 인도의 정치 · 경제 · 사회적 환경 · 탄생에 관한 전설과 설화, 젊은 시절의 고민과 출가와 수행과정 · 항마와 성도 · 초전설법 · 전법을 위한 45년간의 발자취를 수록하였고 붓다의 입적이후 제자들의 경전결집과 그 밖의 이야기 등으로 엮었다. 독자를 위한 1200여개의 주석이 이해를 도와 이 한권으로 말미암아 불교를 바르게 이해하고 옛 개국시조들의 '신화적인' 붓다 또는 '신통술'을 부리는 붓다가 아닌 그 시대적 인도의 상황과 붓다 자신이 중생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여실히 보여준 사실임을 바르게 알았다.

성열 스님은 이 책에서 "한국불교의 현실이 조선시대 억불의 유산이 남아있어 부처님을 신으로 모시는 신학화(神學化)"이라고 표현하며 "신도들이 기복(祈福)의 도구로 알고 출가자인 승려는 사제(司祭)로 전락되면 안 된다. 붓다는 법당에 모셔진 우람한 불상도 아니고 우상화된 신도 아니다. 붓다는 그 시대에 몸으로 나투어 깨달음의 길을 여실하게 보여주신 오직 인간 고따마 붓다이다"는 사실을 말씀하신다.

나의 경우 이 책의 후기가 특별히 인상적이었다. 한국불교의 중흥은 사찰의 수나 규모가 작거나 허름하고 화려하지 않아도 그 안에 살고 있는 출가자의 정신에 달려있음을 후기에서 설파하시기 때문이다.

이 후기의 주옥같은 이야기가 내 가슴을 요동치게 했고, 두 눈에서 뭉쳤다 떨어지는 눈물이 책장을 적시게 했고 석가모니부처님의 80년간 여정이 사흘 만에 그 걸음을 쉬게 했었다.

'내인생의 불서 한권'은 불서를 통해 삶의 지혜를 얻거나 행복을 새롭게 발견한 체험담을 싣는 코너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생생한 체험담을 기다립니다. 담당자: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새는 지붕"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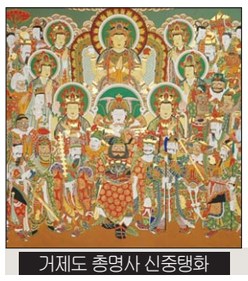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27,5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0,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거제도 총명사 아미타후불탱화



거제도 총명사 신중탱화



거제도 총명사 칠성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 동 불 교 미 술 원
016-219-7180 / 011-743-5167

조계종 77조 전강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법성게 출간

보인 전등록 전5권 / 보인 무문관 / 보인 벽암록
보인 천부경 / 보인 금강경 / 보인 신심명 / 보인 증도가
보인 반야심경 / 보인 선문염송 전30권 중 11권
보인 환단고기 전5권 / 보인 법융선사 심명
보인 선가귀감 / 주머니 속의 심경 / 영원한현실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첫눈 희다
선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 세월을북채로세상을북삼아

법회 안내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육조정맥선원 선가귀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육조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육조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육조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0122 www.zenparadise.com

시끄러운곳 화두 참구가 관건

오늘의 禪語 ㉔ 수행

위빠사나 수행법이 들어와 대중화 된 이후에 이제 수행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수행이라고 하면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인 양 인식되고 있습니다.

수행에는 화두를 들고 참구하는 참선수행을 비롯하여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는 위빠사나와 사마타수행, 소리 높여 관세음보살과 아미타불을 부르는 염불수행, 경전을 독송하거나 탐구하는 간경(독경)수행, 기도와 참회 · 절을 통해 자신을 정화해 가는 참회수행, 진언을 외우는 주력(呪力)수행, 절수행이 있습니다. 그 외에 요가수행과 단전호흡을 통한 수행 등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관조하거나 화두에 몰입하기
존재의 근원에 대해 깊이 '사유·사색·명상'

수행이란 몸과 마음의 수련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끼인 이물질을 정화해 가는 작업, 무지와 욕망(貪) · 분노(嗔) · 어리석음(癡) 등 세속적인 것들을 제거해 가는 작업, 집착과 번뇌 · 미망 등을 제거하여 미완의 인간을 전인적인 인간 즉 부처님과 같은 인격을 만들어 가는 작업입니다.

그러므로 넓은 의미에서 몸과 마음을 수련하는 것이라면 모두가 다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엄격히 가려야할 것은 부처님 가르침이나 불교교리를 토대로 한 수행법이냐? 그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불교수행은 그 목적이 깨달음입니다. 따라서 목적이 깨달음이 아닌 정신적 신체적 신비함을 추구한다거나 육체적 단련 등을 추구하는 것은 불교수행은 아닙니다. 예컨대 오늘날 일반적인 단전호흡과 요가는 참고는 되지만 불교의 수행법은 아니고, 또 진언이나 다라니 수행도 영감을 얻기를 바란다면 그 역시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아닙니다.

'선(禪, dhyana)'을 풀이하여 '사색하며 닦는다(思惟修)' 또는 '고요히 생각하다(精慮, 명상)'라고 설명하고 있듯이, 선에서 수행이란 조용한 곳에 앉아서 하나의 주제 즉 자기 자신을 관조한다거나 화두에 몰입한다거나 또는 존재의 근원에 대하여 깊이 '사유' '사색' '명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삼매'라고 합니다. 직관적 사색, 무분별의 사색입니다. 근원적인 탐구, 근원적인 사색입니다.

따라서 앉는 자세, 참구 방법, 주의사항 등만 확실히 알면 수행은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도심에서도 사무실에서도 집에서도 걸으면서도 누워서도 의자에 앉아서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버스나 지하철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보다는 지도자가 있는 선원 등 전문 도량에 가서 하는 것이 좋고, 자세 역시 앉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좌선을 택하는 것입니다.

화두참선을 대성시킨 대혜 스님은 "조용한 곳에서 그 누군들 참선을 못하겠느냐? 시끄러운 곳에서 화두를 참구하는 것, 그것이 관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원이나 수행처에 있을 때는 마음이 아주 편안했는데 복잡한 도시로 나오니 다시 마음이 산란해진다면 그것은 수행이 아니라 환경에 의해 일시적으로 마음이 편안해진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수행의 최대 관건은 '몇 년 앉아서 참선했다' '몇 년 선방에 있었다' 또는 '몇년 수행처소에 있었다'고 하는 경력(커리어)이 아니라 얼마만치 진정으로 그 주제를 탐구했느냐? 무엇을 알았느냐? 존재의 근원을 파악했느냐? 정안(正眼)과 정견(正見)을 갖추었느냐? 얼마만치 번뇌와 물욕에 마음이 동요되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일부 수행자들 가운데는 수행이라는 것을 마치 대단한 계급장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몇 달이나 몇 년 참선도량이나 위빠사나 수행처에 있었다고 해서 깨달은 척 목에 힘을 주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는 학술 세미나 같은 곳에서도 발표자를 향하여 "수행해 봤느냐?" "참구해 보고 말하라"는 식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교수행의 목적은 번뇌와 욕망 · 아만 · 아상 등을 떨쳐 버리고, 존재의 실상을 파악하여 망상으로부터 속박되지 않는 자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타인도 함께 깨닫게 하자는 것인데, 참선을 통하여 오히려 아만과 자존심을 양성시키고 있으니 수행의 목적과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승속을 막론하고 아만은 참선했다는 사람들이 가장 심하고, 염불이나 참회수행을 한 사람은 비교적 겸손한 편입니다.

수행에도 올바른 수행과 잘못된 수행, 건전한 수행과 불건전한 수행이 있습니다. 수행을 통하여 아만을 없애는 것, 무지 · 욕망 · 분노 · 어리석음 등 세속적인 것들을 제거하는 것, 허상으로부터 마음을 정화하여 자신은 물론 타인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올바른 수행이지만, 조용한 곳에서 일신의 편안함을 추구한다거나 자존심을 강화하는 것, 또는 영적체험이나 정신적 육체적 신비를 추구하는 것 등은 건전한 수행이 아닙니다. 부처님 가르침과 맞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행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한다면 정신적 수행(선)은 물론이고, 이론적 수행(교학적 탐구)과 육체적 수행(참회 등)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결합되었을 때에만 가장 이상적인 수행, 가장 훌륭한 깨달음, 전인적인 인격자(=붓다)가 탄생할 것입니다.

■ 윤창화 민족사 대표

깨달은 여인들의 수행법

하심과 텅 빈 마음, 수행법의 시작과 끝

㉔ 여종 뿐나

부처님께 올린 공양계기로 수다원과 증득
급고독 장자의 존경받아 출가 허락 얻어

부처님 재세시에 급고독 장자의 집 하녀의 딸로 태어난 뿐나, 즉 '(아만이) 가득한 이'라고 불린 여종이 있었다.

어느 날 뿐나는 밤늦도록 주인집 쌀 방아를 찧고 있었다. 방아를 찧던 그녀는 너무 피곤하여 잠시 쉬고 있던 중, 답바 스님이 부처님으로부터 설법을 들은 뒤 여러 비구스님들을 인도하여 자기들의 수도원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다.

그때 뿐나는 혼자 이렇게 생각했다.

"비구스님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밤늦게 다니실까? 나는 가난한 신세라 이처럼 밤늦도록 일을 해야 한다지만, 저렇게 의젓한 분들이 밤늦은 시간까지 돌아다녀야 하는 이유를 나는 통 모르겠어."

한참을 곰곰이 생각해 본 그녀는 이런 결론을 내렸다. '아마도 어떤 스님이 병이 났거나 뱀에 물려 돌아가신 거겠지.'

다음 날 뿐나는 싸래기 쌀을 물에 담가 불린 다음 떡을 만들었다. 그런 뒤 떡을 가지고 강가로 나가다가 부처님께서 탁발을 다니시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자기 떡을 부처님께 공양하고 싶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보잘 것 없는 거친 떡을 잡수실지 걱정이 되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그녀의 생각을 아시고 다가와 떡을 공양 받으셨다. 그리고는 아난다에게 그 자리에 돗자리를 깔라 이르신 뒤 자리에 앉아 거친 떡을 잡수셨다. 공양이 끝난 뒤 부처님께서는 뿐나가 간밤에 의심했던 문제에 대해 이런 말씀으로 의심을 풀어주셨다.

"뿐나야, 너는 가난하여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열심히 일해야 하거니와, 여래의 비구 제자들도 밤에 잠자지 않느니라. 왜냐하면 그들은 언제나 마음을 집중하여 경각심을 갖고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게송을 읊으시었다.

"항상 깨어 있어 살펴보는 사람들/ 밤이나 낮이나 계정혜(戒定慧)를 배우고/ 열반을 향하여 굳게 정진하면/ 마음의 모든 번뇌가 사라진다."

이 게송 끝에 여종 뿐나는 거기에 선 채로 수다원과(須陀洹果) 즉, 진리에 대한 그릇된 견해나 의심 따위를 버리고 성자의 길에 들어서는 첫 번째 과위(果位)를 성취했다.

뿐나는 뒷날 물에 의한 청정을 지향하는 바라문을 진리로 인도하고, 마침내 급고독 장자에게도 존경을 받아 자유민의 상태가 됨으로써 출가를 허락받았다. 그 후 그녀는 위빠사나 수행을 하면서 머지않아 통찰력을 얻고 아라한과를 성취했다. 신통력을 얻고 마음의 흐름을 아는 지혜에 자재했던 뿐나 장로니는 훗날 부처님을 찬탄하는 게송을 <장로니게>에 남겼다.

"위대한 성자시여, 저는 전생을 알았고 천상의 눈은 청정해졌으며, 모든 번뇌는 단멸되었고 이제 다시 존재함이 없습니다. 의미와 법, 언어해석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이해에 더러움이 없고 청정한 지혜는 부처님 때문에 생겼습니다."

<법구경>과 <장로니게>에 따르면, 뿐나는 지극히 평범한 한 마디 법문에, 일찍이 참선 한번 한 적 없는 여자 종으로서 생사해탈의 길로 접어든 것이다. 이처럼 말끝에 단박 깨닫는 언하대오(言下大悟)의 사례는 초기불교에서 무수하게 나타난다. <법구경 주석서(Dhammapada-Commentary)>를 근거로 한 통계에 따르면 부처님 재세시에 최소 8353인의 아라한이 출현했으며, 2612명의 성자들이 법문 즉시 깨달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달마 선사 이래 무수한 역대 조사들이 말끝에 단박 깨닫는 언하대오가 가능했던 것이 결코 새로운 일이 아니라는 증거다. 물론 문답을 통한 이러한 '단박 깨침(頓悟)'은 '나'라는 아집(我執)을 버리고 겸허히 불법과 수행법을 대신심으로 받아 지니는 하심과 텅 빈 마음을 전제로 한다. '도(道)의 근본이자 공덕의 어머니(信爲道元功德母)'인 바른 신심 없이는 그 어떤 수행법으로도 깨달을 리가 만무함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

아직도 이런 돈오 법문을 믿지 못하는 수행자들이 있다면 돈오선의 주창자인 육조혜능 스님의 법문에 귀 기울여 보자. "선지식들아, 법(法)에는 단박에 깨침(頓)과 점차로 깨침(漸)이 없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 영리하고 우둔함이 있으니, 미혹하면 점차로 계합하고 깨친 이는 단박에 닦느니라."(육조단경)

김성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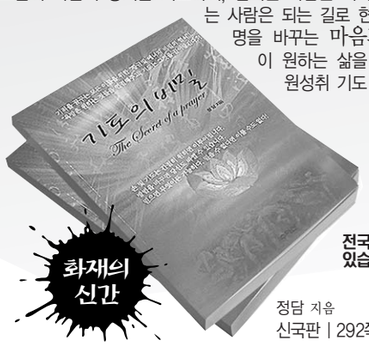
신행게시판

●**아비담마 특강**=서울 보리수선원이 〈아비담마 해설서〉 편역자 강종미씨를 강사로 아비담마 특강을 개최한다. 7월 5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열리는 이번 특강은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강사가 미얀마에서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한 위빠사나 수행법을 〈아비담마〉에 근거하여 이론과 실기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9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강의 동참금 13만원은 강종미 강사가 편역해 펴낼 〈양굿따라 니까야〉 출판에 사용된다. (02)517-2841

●**비로자나국제선원 어린이 여름 영어캠프**=서울 비로자나국제선원이 7월 26일 오전 9시부터 어린이 여름 영어 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영어 캠프에서는 재미있는 퀴즈, 과자 따먹기, 끝말잇기, 만화그리기, 수계식, 불교시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모든 프로그램은 외국인 선생님이 진행한다. 불교시장은 굿잡(Good Job)카드를 사용해 물건을 살 수 있다. 한 달 동안 한 착한 일을 매일 독서카드에 적어서 가져 와야 굿잡카드를 받을 수 있다. 영어로 적으면 2점, 한국어로 적으면 1점이다. (02)6012-1731

●**불일박물관 교실 여름학기 수강생 모집**=서울 법련사가 '행복한 불일박물관 교실' 여름학기를 개강한다. 주말 박물관 교실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1~6학년 학생 및 가족을 대상으로 월 1회 넷째 놀토에 박물관 견학을 시행한다. 6월 28일 오전 10시 개강하는 불일박물관 교실은 6월 경복궁 궁궐의 특징, 7월 국립민속박물관 우리옷, 우리음식, 8월 티베트박물관 티베트불교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의 재발견 궁궐지킴이 이지은씨가 강사로 학생들을 지도한다. (02)733-5322

아봐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Avatar 밝은길 아봐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봐타 마스터 김희균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 02)512-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삶에 기적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과 운명을 바 꿔 주 는 "기도의 비밀"
한 번의 인연으로 미래가 보입니다
꼭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위하여 어떤 기도로 어떻게 성취 하는가 ? 대충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해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기도의 비밀"은 불쌍함에서 벗어나 행복으로 가는 길, 삶의 절망에서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사람을 성공으로 끌어 올릴 수 있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내쫓고 막대한 부를 쌓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며, 세상살이 장벽에 부딪혀 오갈 때 없는 자신을 스스로 보듬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여, 잘되는 사람은 더 잘되는 길 안 되는 사람은 되는 길로 현제와 미래의 운명을 바꾸는 마음과학이며,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소원성취 기도 법이다.


전국 유명 서점에 있습니다.
정담 지음
신국판 | 292쪽 | 15,000원
"기도의 비밀"?
국민은행 562101-01-033348 | 관음정사 02-943-8573
• 찾아오시는길: 4호선 길음역 3번출구 - 정릉 청수장가는 버스 - 혜미리마트 3거리 - 중앙하이츠아파트 - 관음정사
기도 상담 기도의 비밀이 자신의 인생과 가족평생의 길흉화복을 좌우합니다. 관음정사에 오시면 한번의 인연으로 미래가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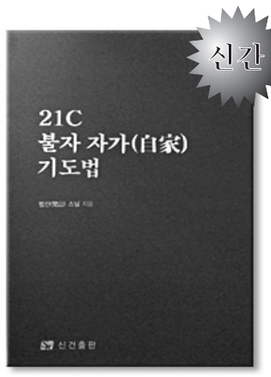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21세기 불자 자가(自家) 기도법

해조(解祖) 범산(梵山)큰스님이 쓰신불자 한 사람이 꼭 한 권씩 수지 독송해야 할 "21C 불자 자가 기도법"이 드디어 불자님들께 선을 보입니다.
이책은 한글만 아는 사람이면 자기 집에서 혼자 충분히 기도할 수 있도록 저술하였음으로 불자님들에게는 필수적인 경서 입니다.
· 해조(解祖) 범산(梵山)스님
· 1949년 전남 순천출생
· 東山 無盡 큰스님을 은사로 득도 수계
· 법무부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역
· 대한불교 원효종 경남종무원장, 중앙종회의원 역
· 현)해동불교대학,대학원교수
· 현)몽골불교대학 객원교수
· 현)여래암 주지
[논문]
· 인도불교의 철학적 고찰
· 원시불교의 선정사상에 대한 연구
· Buddkism과 인도철학과 제학파의 비교 연구
· 공사상에 대한 일 고찰
· 독서문화의 정착 방안에 관한 고찰 등
[저서]
· 그 속에 길이 있었다 · 웃으며 가는 저승길
· 공저 국역상용법요집 · 외 전문분야 다수
신간


[차례]
제 1장 - 기본학습
제 2장 - 중요경전
제 3장 - 불공편
제 4장 - 진언과 다라니
제 5장 - 각종발원문
제 6장 - 기도체험수기
제 7장 - 불서출판수지공덕
제 8장 - 내면탐사와 여래33천통기도
제 9장 - 자가기도법
제10장 - 불교기초지식
제11장 - 권선문
◆ 택배발송(발송비 무료) ◆ 정가 30,000원
◆ 문의 : 055-761-7462 / 011-552-3222
◆ 계좌번호 : 농 협 801032-51-032261
우체국 610790-01-001194 (예금주: 이래암)
홈페이지 www.yeraeam.com / cafe.daum.net/yeraeam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크신 은혜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 드리며
2008년은 더욱 크신 기도의보시공덕으로 가정이 늘 번창 하시고 행복 하시기 기원 드리겠습니다.
처음처럼 늘
의지의 열정을 갖고
일 하겠습니다.
좋은 인연 좋은 만남의
행복한 성혼을 이루 십시요.
2008년은
새로운 도약의 해로
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 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
1호선 영등포역 3번출구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200m지점
※ 전화 상담 후 방문약속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원장 이영숙(법명 : 無生子)
사무실 : 02)2677-5442
휴대폰 : 011)288-2944
현 대 결 혼 연 구 원

“남을 위해 열심히 사는 사람이 부처”



극락선원 회주 금담 스님

장마를 앞둔 하늘은 태풍 전 고요만큼 쾌청했다. 고희를 맞은 선지식 한 분이 법어집을 내고 6월 13일 진주 동방호텔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는 소식에 경남 진주 극락선원으로 주인공 금담 스님을 찾았다.

극락선원에 도착해 법당에서 삼배를 올린 순간, 뜻밖의 광경이 눈에 들어온다. 보광전(普光殿) 부처님이 두 분만 모셔져 있는 것이 아닌가? 대적광전으로도 불리는 보광전은 대개 비로자나불을 본존불로 아미타불과 석가모니불 세 분 부처님이 봉안된다. 그런데 극락선원 보광전에는 비로자나불과 아미타불 두 분 뿐이었다.

세 부처님이 계실 법당에 두 분만 모셔진 것이 이상해 금담 스님께 이유를 여쭸다. 스님은 “일체 만법에 정해진 것은 없지 않냐?”며 웃었다. 계속된 질문에 금담 스님이 답했다. “화신(化身)인 석가모니불 역할을 내가 하려고, 법신(法身) 비로자나불과 보신(報身) 아미타불 두 분만 모셨지.”

올해 고희를 맞은 스님의 삶은 ‘석가모니불처럼 살겠다’는 스님의 원처럼 올곧은 수행자 모습 그대로였다. 금담 스님은 7세에 진양 두방사로 동진 출가해 절에서 글을 익혔다. 금강산 유점사 대승 스님 상좌로 선객이던 성민 스님 손에 이끌려 대구 동화사로 옮긴 뒤 15세에 사미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그곳에서 바리때를 들고 두타행으로 중생을 교화하던 보문 스님과 조계종 초대 종정을 지낸 설석우 스님에게 불교를 배웠다. 해인사 강원에서는 명봉 스님, 성능 스님, 고봉 스님, 관응 스님 등 당대의 선지식들 아래 수학했다. 1962년 군 입대 전 금담 스님은 사천 다솔사 뒤 석굴에서 기도 · 정진했다. 그때 인연으로 스님은 해마다 양력 초하루면 석굴을 찾아 기도하고 시를 읊었다.

방장산정보안좌(方丈山頂普眼座)
신해일출조법계(晨海日出照法界)
나목하엽본자연(裸木下葉本自然)
석실고불상광명(石室古佛常光明)

방장산 높은 곳 보안암에 앉아보니
새벽마다 일출이 법계를 비추누나.
잎진 나목은 본래 자연 그대로이나
돌집 속 고불은 늘 광명을 비추네.
–2001년 원단 경남 사천 다솔사 보안암에서

금담 스님은 평생을 선사로 선(禪)을 닦았지만 선에도 얽매이지 않았다. 자운 스님에게 염불을 배웠고, 영암 스님에게 어산을, 혜암 스님에게 범패를 배웠다. “평소와 달리 부처님 앞에만 서면 절로 염불이 나왔어.”

염불만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은 스님 말씀에 금새 우문이 됐다. “수월 스님, 혜월 스님도 ‘신묘장구대다라니’로 깨달음을 얻으셨지. 염불삼매로도 선정에 들어 확철대오할 수 있어.” 염불과 선이 둘이 아니라는 스님은 선과 염불을 이렇게 설명했다. “선은 고속도로고, 염불은 돌아가는 길이야. 능력껏 맞는 방법을 찾아 열심히만 하면 돼.”

“목 마르면 물 마시고, 곤하면 자고, 배고프면 밥 먹는 그 속에 만법이 있다”는 금담 스님은 깨달음은 쉽지만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문제라 지적했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간절함이 없어서야. <법화경>에도 나오잖아? 본 마음을 보려거든 신명을 아끼지 말라(一心欲見佛 不自惜身命)고.”

금담 스님은 “사회 문제도 ‘열심히’ 살지 않아서야. 노력 않고 쉽게 얻으려다보니 생긴 것들이지. 회사를 예로 들면 사장은 사장대로, 직원은 직원대로 각자 자기 할 일만 다해봐. 사심(私心)을 버리고 공심(公心)으로 ‘열심히’ 살면 회사가 편안해지고, 사회가 편안해져. 부처님 가르침은 나보다 남을 위해 사는 것”이라며 ‘열심히’ ‘지극하게’를 수없이 강조했다.

스님께 정말 열심히만 하면 되냐고 여쭸다. 금담 스님은 “대개 절에 왜 다니냐고 물으면 복 지으러 다닌다 하지. 조금 다녔다 싶은 사람은 복 짓는 것 말고 업장소멸 위해 다닌다 하고. 열심히만 다녀봐. 성냥불 하나가 산더미 같은 풀섶도 순식간에 태우듯 모든 업장을 소멸하게 돼”하며 껄껄 웃었다.

웃음을 멈춘 금담 스님은 갑자기 붓을 들어 글을 쓴다. 스님의 붓글씨는 이미 구름이 일고 물결이 넘실대는 듯한 서체로 유명하다. ‘보화비진요망연(報化非眞了妄緣) 법신청정광무변(法身淸淨廣無邊) 천강유수천강월(千江有水千江月) 만리무운만리천(萬里無雲萬里天)’ “보신과 화현은 허망된 인연과 같고 법신은 청정해 광대무변하다. 천강에 물 있으니 천강에 달이요, 만리에 구름 없으니 만리 하늘이로다.” 문장을 읽은 스님은 붓을 놓고, 달을 비유로 중생과 부처에 대해 말했다.

“달은 언제나 있지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중생이 본래 부처라도 무명에 가려져 청정심을 못보고 있는 것과 같아. 밝은 달을 보지 못해 윤회하는 것이야.”

깨닫지 못하는 것은 ‘간절함’이 없는 까닭
각자의 자리서 열심히 살면 모두가 편안해져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누구인가’ 반조해야

스님의 안타까움은 당부로 이어졌다. “중생과 부처의 자리가 본래 하나임을 몰록 깨달아야해.”

달과 청정심, 그래서 스님은 고희를 맞아 출간한 법어집도 <월인천강(月印千江)>이라 이름 했다. “달은 청정법신, 마음자리를 뜻해. 구지 선사는 누가 무엇을 물어도 항상 손가락을 세워보였지. 하늘의 달을 보라는 뜻이었어.” 금담 스님의 설명이 계속됐다. “인(印)은 삼매를 뜻해. 흔들림, 번뇌 없이 구름도 없는 시공을 초월한 자리를 말하지.” 스님의 당부도 이어졌다. “흙탕물 속에서도 맑은 삼매를 얻을 수 있게 정진을 쉬지 않아야 해.”

금담 스님은 “부처님을 머리에 이거나 등에 업고 시방세계를 다녀도 정법을 펴지 못하면 은혜를 다 갚지 못하는 것이라며, 불자라면 누구나 부처님 정법을 널리 펼치는 포교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참회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성철 스님은 당신을 만나러 온 사람에게 3000배를 시켰잖아? 3000배 한 사람과 안한 사람은 법문 듣는 자세가 확연히 달라. 두 귀로 듣는 것은 같아도 마음 속에 와 닿는 깊이가 달라.” 금담 스님은 젊은 마음이 가벼워지고 신심을 키우는 수행법이라 소개했다.

금담 스님은 “<화엄경>에서는 ‘믿음은 도의 근본이요, 공덕의 어머니(信爲道源功德母)’”라 했다”며 신심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지도무난 유혐간택(至道無難 唯嫌揀擇)이라. 도에 이르는 것은 어렵지 않아. 다만 시비를 취하는 분별심이 문제야. 하지만 정법에 대한 믿음만 돈독하다면 이 또한 쉽게 해결할 수 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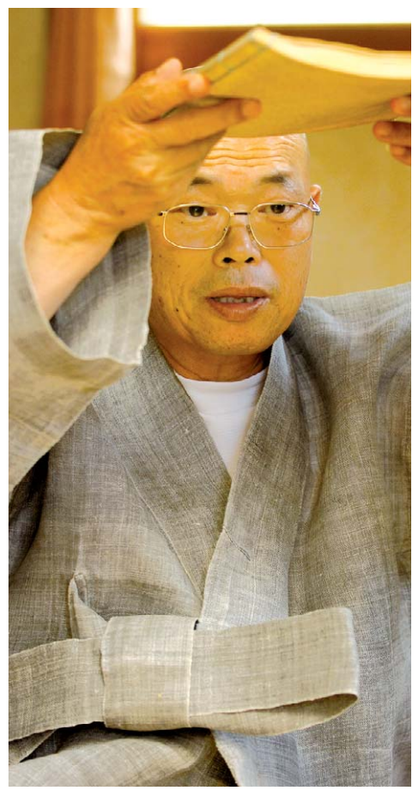
스님은 “어디서 무엇을 해도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자기 마음을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는 누구인가’하고 항상 반조해야지. 항시 부처님을 생각하고 살면 기쁨 속에 사는 거야. 혹여 괴로움이 있다면 무엇 때문인지, 왜인지? 돌이켜 보라고.”

금담 스님은 1990년 4월 15일 광도중생을 발원해 9000일 기도 입재한지 6000일 회향을 바라본다. “나이가 드니 절하기가 예전 같지 않아 불편하다”는 스님은 매일 300배 이상 절을 하고 <금강경>을 독송한다. “모든 불 · 보살들은 원이 있어. 그래서 나는 불자들에게 경전을 독송 후 꼭 발원을 하라고 권해. <금강경>을 예를 들면 다 읽고 이마 앞에 <금강경>을 들고 ‘금강반야바라밀, 금강반야바라밀…’ 108번을 외라고. 그 후에 꼭 발원한 것을 외고 마치면 돼.”

금담 스님은 자신을 “참선으로 크게 깨닫지도, 경학을 공부해 박학하지도, 염불로 정업을 닦지도 못했다. 밥값도 못하며 살고 있는 초야에 묻혀 사는 산승”이라 소개하며, 한사코 선지식으로 소개되기를 거부했다.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라. 상구보리(上求菩提)하는 수행과 하화중생(下化衆生)의 법문으로 참된 출가자로 살아온 금담 스님은 극락선원 보광전에 계셔야 할 석가모니불이었다.

“살면서 부처님 빚진 이가 많아. 밥값은 하고 살아야지. 물 한방울도 빚이 되지 않으려면 삼보정재 아끼고 목숨 걸고 열심히 공부해야 해.”

글=조동섭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금담 스님은

1939년 경남 진양에서 태어나 7세에 동진 출가 후 평생 정진의 삶을 살았다. 1990년부터 현재까지 진주 극락선원 회주로 9000일 참회정진 중이다. 2008년 6월 13일 고희를 맞아 법문집 <월인천강>을 출간한 스님은 중생교화를 위해서라면 먼길을 사양 않고 달려가 법문을 하는 것으로 명성이 높다. 창원 봉림사, 부산 명지사 등 다수의 사찰에서 정기적으로 법문하고 있다.

SHC삼환종합양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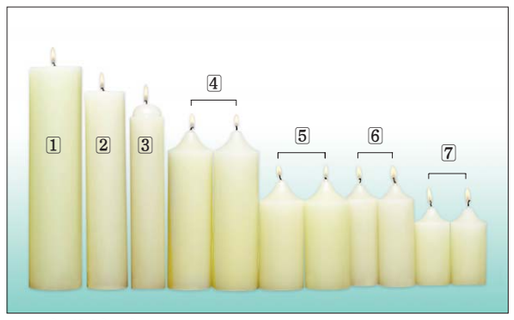
삼보귀의 하옵고 저희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기업입니다. 꾸준한 신상품 을 개발하여 (실내용 양초 = 밀납양초, 약쑥향양초, 식물성 양초) 라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TEL 031)766-0242~3/FAX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무료전화 080-0766-8888
※ 주문하시면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 밀납양초(蜜蠟洋燭)
1 밀납초(1~4호까지 8개入 받침대 2개入)선물세트
2 밀납초금강경(7개入)선물세트
3 밀납초원기둥 7.4φ × 30Cm 4 밀납초돈타레 5.6φ × 27Cm
6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φ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7 밀납초 1호 금강경찬 5.9φ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8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φ × 14Cm 연소시간 約 30시간 이상
9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φ × 10Cm 연소시간 約 24시간 이상



■ 약 쑥향 양초
1 원기둥 7.4φCm × 29Cm
2 돈타레 5.6φCm × 27Cm
3 밀 대 4.7φCm × 25Cm
4 1호 5.9φCm × 20Cm
5 2호 5.9φCm × 14Cm
6 3호 4.7φCm × 13Cm
7 4호 4.7φCm × 10Cm

장엄용 양초


■ 육각초 45cm


■ 야광 호랑이(산신) 70φ X 35cm


■ 야광 용초 70φ X 35cm


■ 원기둥 마패 7.4φ X 30cm
등신불 마패 4.7φ X 19.5cm

주소창에 “양초.net” 라고 치세요~ 주소(D) 양초.net



사찰음식의 모든 것

정산 스님 산촌 대표

43 깻잎버무리

깻잎은 임자엽(荏子葉)으로 불리는 들깨 잎사귀를 식품으로 일컫는 말이다. 원산지는 동남아시아로 추정되고 한국과 중국에서 재배된다. 재배 토양은 유기질이 풍부한 양토가 좋다. 씨앗뿌리기는 연중 가능하나 가정에서 재배할 경우 3~5월 사이에 파종하는 것이 관리하기 편하다.

깻잎에는 철분이 시금치의 2배 이상 함유돼 있고 칼슘 등 무기질과 비타민A · 비타민C도 풍부하다. 엽록소는 식욕부진이나 설사 · 변비 등 위장 장애에 효과적이다.

위장 장애·성인병 예방에 효과적

윤기 흐르고 줄기 생생해야 싱싱

혈액을 응고시키는 비타민K도 풍부하다. 암과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깻잎의 성분 중 페릴라 알데히드(perillaaldehyde) · 리모넨(limonene) · 페릴 케톤(perillketon) 등 방향성 정유 성분이 독특한 향으로 입맛을 돋우어준다. 특히 육류의 누린내와 생선의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 쌈으로 많이 먹어, 상추와 함께 쌈의 대명사로 불린다.

향긋한 나물 반찬이나 장아찌 · 깻잎김치 등의 밑반찬으로 먹기도 하고 무침이나 탕 등의 향신료로 사용된다. 이밖에 깻잎 주를 담가 약용주로 이용하기도 한다.

싱싱한 깻잎은 윤기가 흐르고 줄기가 옅은 초록색으로 생생하다. 솜털같이 붙은 잔가시가 선명하고 까슬까슬하며 가장자리 윤곽이 뚜렷한 것을 고른다. 점점이 검은 구멍이 나 있는 것은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오래 보관된 것이므로 피해야 한다. 나물에 이용할 경우 다 자란 깻잎을 쓰면 쓴맛이 나, 어린 줄기에 달린 작은 잎을 쓰는 것이 좋다. 산촌 (02)735-0312



깻잎버무리

재료 : 깻잎 또는 깻순, 쌀가루, 간장, 깨소금, 고춧가루.

만드는 법

①맵쌀을 하루 전에 담가 푹 불린 다음 소쿠리에 건져 물기를 빼고 방앗간에서 빻는다.
(가루 양을 넉넉히 해서 냉동실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 꺼내 쓰면 편리하다)
②깻잎이나 깻순을 씻어 소쿠리에 건진 후 깻잎에 물기가 있을 때 쌀가루를 넣고 버무린다.
③찜통에 베보자기를 물에 적셔 깔고 찜통 물을 끓인 다음 버무린 깻잎을 넣고 찐다.
④다 쪄졌으면 찜통뚜껑을 열고 한 김 나간 후 그릇에 덜어 낸다.
⑤간장 • 깨소금 • 고춧가루 • 참기름을 넣고 양념장을 만들어 따로 찍어 먹거나 양념간장으로 버무려서 내도 좋다.



청오 스님의 청다향 이야기 ❹

오로지 '좋은 香' 만들 생각 뿐…

문을 닫을 수도 없고 열 수도 없었다. 그 원인은 태우는 향 연기 때문이었다. 서울 J사 부근에서 구입한 제일 좋고 비싼 향이었는데 그 향을 한 개비도 제대로 못 태우고 다 버리게 됐다. 오히려 향이 없음이 나았다. 그런데 다음날 문제가 생겼다.

예불하려는데 향이 없었다. 향을 올리지도 않고 향공양 진언을 외며 거짓으로 무례함을 범하는 것이 가슴을 무겁게 누르는 것이 아닌가!

향을 억지로라도 태우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향 만드는 기계를 모두 불태운 장본인이 다시 향을 만들어 써야 하는 현실이 됐다. 예전처럼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한 향이 아니라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기 위한 향이었다.

향 재료를 찾기 위해 산을 오르고 들판을 찾았다. 솔잎을 비롯해 차잎 열매를 찾기 위해 농약이 살포되지 않는 고지대에 올랐다. 코로 호흡할 수 있는 향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었고, 입안에 바로 넣어도 해가 없는 자연 산야초를 채취하기 위해서였다.

어느덧 덕유산 해발 1600m 정상에 도착했다. 향 원료를 따는 순간 코끝에 와 닿는 상큼한 향기를 향에 담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또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 아니겠는가? 오로지 좋은 향을 만들 재료를 찾아 헤맸다. 미끄러운 절벽도 두렵지 않았고 가시에 얼굴이 긁혀 피가 흘러도 아무렇지 않았다. 향을 찾는 그 눈빛에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날이 갈수록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향에 미친 사람"이라며 "얼마 못가 제풀에 힘이 빠져 이곳을 떠날 것"이라는 수근거림이 들렸다. 매일매일 그렇게 따온 잎과 열매를 법제해 향 그릇에 담아 그 향기에 취해 빠져들었다. 그러나 채 한 시간도 못 지나 향기는 커녕 풀 냄새도 나지 않았다. 속된 말로 미칠 것 같았다.



박하(사진 왼쪽)와 산초.

그때 마침 TV에서 '6시 내고향'의 전통민속주 뽑는 장면이 보였다. 수증기를 모아 한 방울씩 똑똑 떨어뜨리는 방법이었다. 향기가 너무 좋다는 소리에 귀가 번쩍 트여 한 마디라도 놓칠세라 볼륨을 크게 올렸다. 그때 무언가 팍 뚫리는 느낌이 왔다.

"이곳에 첫날 잠잘 때 나타난 도인이 흐르는 물에서 병을 건져주지 않았던가! 물에서 건져 올렸지!" 미친 사람처럼 "그래 맞다! 맞아!" 그때부터 향기 나는 차잎 열매를 증류로 뽑는 장치를 해 밤낮없이 불을 땠다. 며칠 동안 18ℓ 한통 가득 증류 받아 발향기에 담아 켜 두었다. 그 향긋함이 숨을 크게 몰아쉬게 할 만큼 상쾌했다. 그러나 이게 웬일인가?

밖에 나가 한참 만에 들어오니 향기는 간데없고 꿉꿉한 수분만 방안 가득 차 있었다. 그때 심정은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향 만드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055)941-1083 <계속>



health 치아 건강 칼럼 column

소중한 이 치과 안은영 원장 32 치아 균열증후군

중장년층 질기고 딱딱한 음식 주의해야

K씨(35)의 별명은 '병따개'. 이로 병뚜껑을 잘 딴다 해서 붙은 애칭이다. K씨는 치아 건강을 자신했다. 하지만 그는 최근 이가 시리고, 음식을 먹을 때도 이가 시큰거려 잘 못 씹고, 밤잠을 설칠 정도로 통증이 심해 치과를 찾았다. 진단 결과는 치아 균열증후군(crack tooth syndrome)이었다.

치아 균열증후군은 치아에 미세한 균열이 간 후 균열된 틈으로 씹을 때 힘이 가해져 치아가 벌어지는 자극으로 통증을 느낀다. 균열이 깊어 치아 안 신경 가까이까지 진행된 경우는 차가운 음식이나 더운 음식, 단 음식 등에 시린 반응을 보인다.

치아의 미세한 금은 빛을 투과시키는 광투과 검사나 염색검사와 같은 세밀한 검사를 통해서만 확진될 정도로 육안으로는 쉽게 판별되지 않는다. 또한 방사선 사진검사로도 잘 발견되지 않는다. 방사선 사진검사에서 확인될 정도의 금은 굉장히 많이 진행된 것으로 최악의 경우는 치아를 뽑아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평소 건강한 이를 가졌다고 자신하는 환자들이라도 약간의 증상이 있으면 바로 치과에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한다.

치아 자체는 법랑질(사기질)로 돼 있어 표면에 미세한 균열이 많이 생긴다. 이러한 균열이 점점 길어지고 깊어지면 식사할 때 심한 통증이 유발된다.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음식 중에는 유난히 질기고 딱딱한 음식이 많다. 마른 오징어, 쥐포, 누룽지, 멸치볶음, 오돌뼈 등이 있다. 이런 음식들은 치아에 무리를 줄 뿐만 아니라, 턱관절이나 턱관절주위의 인대 및 근육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 치아 균열증후군의 치료는 해당 치아의 동통 유무나 환자의 식습관, 이갈이 등의 악습관 유무에 따라 다양한 치료방법을 선택한다. 한 치료 방법만 선택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여러 방법으로 복합적으로 치료한다.

먼저 통증이 없이 금만 간 경우는 간단히 교합조정만을 하거나 금이 간 부위만 삭제한 후 치과재료로 충전한다. 단순히 씹을 때만 통증이 있는 경우는 균열이 좀 더 깊이 진행된 경우로 해당 치아를 찾아 저작력이 가해져도 균열이 진행되지 않도록 크라운 같은 보철수복으로 치료한다. 씹을 때뿐만 아니라 차갑거나 뜨거운 음식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는 균열이 치아내 신경조직 까지 진행된 경우로 신경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최악의 경우 위의 치료들을 모두 거쳤음에도 심한 증상을 계속 보이면 발치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이갈이 등 나쁜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특정 치아가 아니라 전체 치아에 광범위하게 금이 가는 양상이 보인다. 경우에 따라 악습관의 증상을 줄여주는 구강내 장치(스플린트)를 끼거나 보톡스 주사로 습관을 조절하는 치료를 병행한다.

한 치대병원 보존과 교수팀이 한해 동안 치아 균열이 의심되는 14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54개의 치아균열을 발견했다. 남자가 83명으로 여자보다 1.2배의 치아균열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40대 이상이 58%로 나와 우리나라 중년층의 건강하지 못한 치아 상태를 보여줬다. 한국인 치아 균열 조사에서 치아균열은 음식물을 씹는 위, 아래 어금니에서 대부분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위쪽 어금니의 균열율이 33.8%로 가장 높았다.

치아균열은 딱딱한 음식을 선호하는 식습관과 치아를 악 물거나 이를 가는 등의 나쁜 습관이 중년 이후 치아균열의 원인이다. 일단 균열이 생긴 치아는 자연적으로 다시 붙지 않으므로 조기에 진단해 치료해야 한다. 특히 40대이후에는 단단한 고기뼈를 즐겨 씹는다거나 오징어와 같은 건어물이나 딱딱한 과자를 먹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아로 병뚜껑을 따거나 호두를 깨는 행위도 금물이다.

이상과 같이 금이 간 치아는 환자나 치과의사 모두에게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힘들뿐 아니라 치료 후 예후도 불량할 수 있다.

따라서 치과 치료계획을 세울 때 서로 잘 상의하여 치료방법을 결정해야 치아를 발치하는 경우를 피할 수 있다. (02)776-2882

[법보시 PR]

대중법문

스스로를 이겨라

전장(戰場)에서백만 인과 싸워 이기는 것 보다 나 하나를 이기는 것이 진정한 최고의 승리자다 ..... (법구경)

본문 파리어로 담마파다(Dhammapada)라고 부르는 법구경의 한 귀절이다.

이 경전은 우리나라에도 여러 사람의 번역이 영문으로 번역한 것은 막스뮐러(Maxmuller)로부터 비롯 되었다.

그 뒤 독일어, 불어 등 각국의 말로 번역되어 동양은 물론 구미(歐美) 지역에까지 널리 소개 되기에 이르렀다. 영(英), 독(獨), 불역(拂譯)에서 '진리의 말씀' '감흥(感興)의 말씀 ' 이라 불려지는 이 법구경은 423구의 4구게(四句偈)로 이루어져 있다. 불교의 실천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저명(著名)한 고전으로서 최고의 영향력을 준 시집(詩集)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것이다.

그 연대에 대하여는 갖가지 논의가 있지만 비교적 오래된 가르침의 교본(敎本)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감명 깊게 읽고 기억에 오래도록 남게 되는 경구(經口)이다.

앞에 예를 든 법구는 인간의 지혜를 완성시키기 위한 하나의 가르침이다.

극기(克己), 곧 '자기 자신을 완성시켜서 참다운 한사람의 인격자로 그 자신을 형성시켜 나아가는 뜻'을 담고 있다.

월(越)나라 양관(良寬)이 지은 시가(詩歌)에 '마음이란,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것이기에 마음이란, 이 마음의 고삐를 늦추지 말라'는 구절이 있다.

즉, 이것은 욕심과 망상으로 가득찬 번뇌가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까닭에 마음을 잘 단속하라는 뜻으로 극기와 그 뜻을 같이 하는 말이다.

또한, 당나라의 도작(道綽)이 지은 안락집(安樂集)에 의마심원(意馬心猿)이란 말이 있다. '모든 범부는 그 마음이 야생마 같고 그 생각하는 바가 원숭이보다 더하여 육진(六塵: 곧 객관의 경계)에 끌려 가는 것이기에 어찌 쉴 수가 있겠는가' 하는 데서 유래한 것이다.

그러므로, '의마심원'역시 극기를 종요하게 여김으로써 6진이란 육경(六境) 곧 색, 성, 향, 미, 촉(色聲香味觸)등 감각기관의 대상을 다스려 우리들의 인식을 이 육경에 좌우되지 말게 하고 잠시도 그곳에 집착하지 말라고 했다.

심지관경(心地觀經)도 '마음은 원숭이 같다. 오욕(五慾)의 나무에 놀면서 잠시도 멈추지를 않는다' 하여 극기에 대한 가르침을 말한다. 오욕도 육진과 같이 색. 성. 향. 미. 촉. 법의 인식을 대상을 하기 때문이다.



남해 미륵암 주지 청운

매일 신문 지상에 보도 되는 범죄사건들이 많다.

이런 범죄자들을 결함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것이 잘못 됐다는 생각을 가지지 못한다.

그것은 곧 그들의 자제력(自制力)결함이 그 원인인 것이다.

이 자제력을 너무 가져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적당한 자제력은 생활의 활력소가 되어준다.

따라서 법구경의 극기는 자기 자신을 다스릴줄 알아야 하는 것을 가르치는 높은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미륵암 청운 011-870-0021]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佛心 춤사위로…영산재는 내 운명"

삶과 예술 '제2의 최승희' 무용가 김미영씨



옥천범음대학에서 영산재 연수를 받고 있는 무용수 김미영 선생이 작법무(作法舞)에 심취해 있다.

보살춤의 전설, 무용가 최승희(1911~1969)가 김미영으로 되살아났다.

아버지를 스승으로 둔 여섯 살 소녀의 남다른 춤사위는 그로부터 평생의 시간을 아우른다. 1979년 캐나다로 혈혈단신 떠나며 가슴에 인(印)으로 남은 것은 아버지와 불교였다. 기독교 환경인 캐나다에서 한마음선원의 법당 한편에 연등을 밝혀왔다. 무용인에게 있어 몸이란 평생을 켜켜이 갈고 다듬어야 하는 악기와 같은 것. 그녀의 무용 인생이 한국 전통 불교의식 '영산재'와 만나 재도약을 꿈꾼다.

무용과 함께 한 김미영(64·캐나다 한국무용연구회 회장) 선생의 인생은 그야말로 물이 흐르듯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이 자연스럽다. 환갑(還甲)을 훌쩍 넘은 나이가 무색하게 고운 자태다. 그러한 그녀가 한국 전통의 불교 의식과 작법무의 뿌리를 찾아 영산재(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를 보존하고 전수하는 옥천범음대학(학장 일운)을 찾았다. 그녀의 아호 또한 '수류(水流)'다. 그리고 매년 가을 캐나다에서 '수류무용제'를 연다.

3대째 이어져 내려온 예술인의 피는 뜨겁다. "아버지(김윤학·민족무용가)의 모든 것이 옳다고 여겼지요. 아버지의 무용을 배우다 보니 이미 내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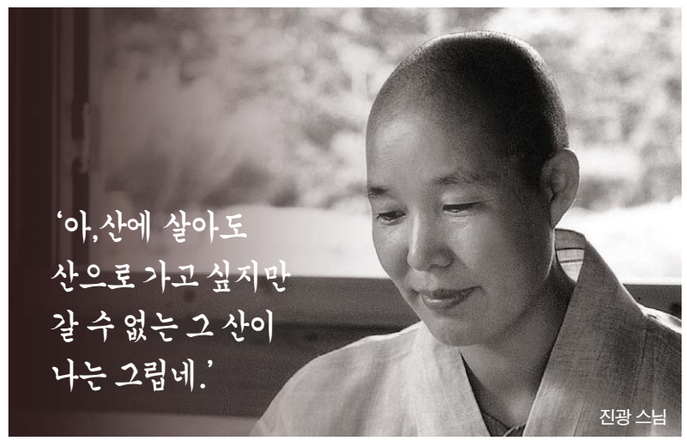
선생의 부친은 1940년대 일본에서 현대무용을 배우고 돌아와 지금의 명동 자리에 있던 극장 '시공간'의 무대에 올랐다. '석불' '승무' 등 불교적 색채의 무용을 왕성히 선보였고 딸 김미영을 제자로 삼아 '장고춤'을 전수했다. '제2의 최승희'로 불릴 정도였다. 그러한 아버지가 1995년 만 73세로 이생을 마감하고 49재를 지낼 적에 한국의 불교의식 영산재와 처음 만났다. 부조리한 한국의 공연계가 싫어 타국으로 떠난 지 16년 만에 아버지가 일깨워주는 죽비였다.

"아버지의 한(恨)이 저에게 재주로 전수됐습니다. 무용인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은 한국불교의식을 널리 알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 말씀하셨어요." 욕심 없는 그 모습 그대로가 진심(眞心)이다. "저에게 남은 인생을 영산재를 통해 승화시켜 보렵니다."

발아된 불성(佛性)이 한국 전통의 불교 의식과 만나 종합 예술로 꽃피울 날을 고대한다. 섭수(攝受)의 법음(法音)으로 울려 퍼지는 영산회상의 재현을 꿈꾼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의 문화유산 지원으로 진행된 이번 영산재 연수는 7월 초까지 진행된다. 현재 '캐나다 한국무용연구회'는 캐나다 정부 지원으로 미래 전문 무용인을 집중 양성하고 있다. 캐나다 사회에서 한국 전통무용의 중요성을 널리 보급하는데 주력한다.

가연숙 기자 omflower@daum.net



가슴으로 듣는 詩語

진광 스님 오디오북 '구름나그네' 발매

자유로운 길 위에서 읊는 다정한 시 한 수, 구름과 물을 벗하여 걸어가는 운수납자(雲水衲子)의 노래다. 구름문(雲門)으로 들어서 서른 번의 봄을 지낸 스님의 삶이 목청을 타고 강물처럼 흘러든다.

덴가슴 가슴마다 고이 어루만져주는 청아한 목소리는 고요한 마음을 관조한다. '새벽 별 벗하여 법당으로 향하며 지심귀명례,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 바쳐 돌아가리.' 스님의 굳은 의지가 청아한 평화의 결실을 맺는다.

이문재 · 나태주 · 임의진 · 곽재구 · 박노해 · 임길택 · 김선우 · 강제윤 시인을 비롯 음유시인 정태춘에서 J.메스필드 · 헤르만 헤세까지. 곡마다 수놓아진 배경음악은 남녘교회 담임 목사를 역임했던 떠돌이별 임의진씨가 선곡을 맡았다. 붓다와 예수의 제자가 종교를 넘어 도반의



진광 스님이 발매한 오디오북 <구름나그네>.

사이로 도타운 화해와 우정을 나눈다. <구름 나그네>는 법정 스님의 <연꽃 향기를 들으면서>(김세원 낭독)에 이은 아울로스미디어의 두 번째 오디오북(AudioBook) 시리즈다. (02)922-0100

가연숙 기자

팝아트로 표현한 불상은?

화가 김태연씨 '이 가벼운 날들의生' 展 27일까지

하이힐을 신은 보살의 S라인!

고대 미술에 팝아트 소재를 접목하여 재해석해온 화가 김태연은 6월 27일까지 서울 신사동 프라이어스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연다. 자신만의 독특하고 자유로운 시각으로 개성 넘치는 작품 세계를 구축해 온 젊은 작가다. 직접 흙이나 황토를 이용해 흙벽화 기법으로 캔버스를 제작하고 그 위에 그림을 그리는 방식으로 둔황의 벽화를 일상으로 가져온다.

'일회용 삼존불'의 연화대에 재활용 종이컵이 올라 있다. 그 안에 담긴 티백에서 우러난 향기가 말씀이 되어 청중으로 모인 다양한 일회용품에게 설법을 하는 듯하다. 좌우 보처로 자리한 면봉과 젓가락은 본존인 종이컵의 위용을 돋보이게 한다. 뿐만 아니라 '둔황 막고굴 벽화'에서 보살의 수인에 얹어진 천도복승아를 감싼 스티로폼 재질의 보충재는 과일의 생기를 유지시켜준다. 천 년간 변치않는 신선도 유지의 비결이 재기 발랄하다.

깊이 있는 화가의 시각은 엄숙함 너머의 인간미를 통해 일상의 공감대로 초대한다. 재치 있는 소통의 방식은 현재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의 유한성과 부질없음을 상기시킨다. 현대에 만연한 물질 만능주의와 숭배를 작가 나름의 주관적인 시선으로 환기한다. 세밀화를 통한 고정관념의 역설은 현대의 소비 아이콘을 반영한다. (02)545-4702

가연숙 기자



일회용 삼존불, 2007.



둔황 막고굴 벽화(부분), 2007.

화가 김상용씨 초대展

갤러리 갈라에서 27일까지

찰나삼세(刹那三世). 순간의 창을 이야기한다.

삶의 연속성의 주관적인 탐구를 화폭을 통해 펼쳐온 화가 김상용의 초대전이 서울 인사동 갈라에서 6월 27일까지 열린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흐름을 중심으로 나의 원초적인 근원에 대한 물음을 이야기 한다. 시공은 계절의 순환 또는 무의식적인 과거의 관념으로 표현되고 그 심장부에 화가의 자화상이 투영된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닌 불이선(不二禪)의 평등함으로 전이 시킨다. (02)725-4250

가연숙 기자

조선 회암사가 무대에

연극 '매혹' 7월 4일부터

극단 양지무리(대표 남우성)는 연극 매혹(연출 김성노)을 7월 4일부터 20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무대 위에 올린다.

인간의 욕망은 소유함으로 채워질 수 있는가. 억불의 조선왕실 정책에도 불구하고 왕실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아 융성했던 회암사, 그 곳에서 펼쳐지는 눈 먼 인간들의 욕망을 다룬 이야기다.

세상의 모두를 가진 남자였으나 결국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남자 이방원, 그의 악업에 얽힌 인연의 순환 고리가 폐허가 된 회암사터를 배경으로 무상(無常)의 도리를 펼친다. (02)306-2005

가연숙 기자

고무신코 만 행 화

특 무 명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진회색

사부대중 선 물

지압슬리퍼
• 가격 : 50,000원
• 규격 : 230-280mm (10mm단위)
• 색상 : 진회색,검정

지압 · 동 깔창
조극세사
실 리 콘
동 99%
가격 15,000원
• 사이즈 : 230-280

조각무명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자연색

건강샌들
• 가격 : 90,000원
• 규격 : 230-280mm (10mm단위)
• 색상 : 진회색,검정

지압동 깔창

사계절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검정

3-1밴드
• 가격 : 90,000원
• 규격 : 215-255mm
• 색상 : 검정,회색

망사단화
• 가격 : 7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검정

3-1끈
• 가격 : 90,000원
• 규격 : 215-255mm
• 색상 : 검정,회색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합장

NAVER 통합검색 만행화 검색
인터넷쇼핑몰 만행화 를 검색해 보세요

◆ 본사, 전시장 : 서울 종로구 공평동 143번지 402호 (종각역 2번 출구 100m거리)

30년 전통의 맥을 이어오는 목탁제조전문
영천목공예사
http://www.ycwoodart.co.kr
실용신안등록 · 디자인등록
2007년 한국불교박람회 출품작품

영천목공예사의 목탁은 자연 그대로를 살려주며
절대로 벗겨지지 않아 반영구적인 제품입니다.
국내산 살구나무로 제작한 수작업 목탁은
실용신안특허를 받은 우수한 제품입니다.

▲죽비

옻칠 수작업 목탁

수작업 목탁에 사용한 옻칠은 생칠로 일반적으로 바르는 방법이 아닌 나무 속까지 침투시키는 칠을 먹이는 방법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나무결을 자연그대로 살려주며 절대로 벗겨지지 않아 반영구적입니다.

수작업 목탁

목탁제작 35년 경력에도 불구하고 맑고 청아한 목탁소리를 찾기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작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약 100년~300년된 산살구나무로 작업한 제품

경북 영천시 언하1동 167-1번지 054)334-9757 / 011-540-9757
[농협 757-12-096397 안종식]

천연 유황 온탕욕을 가정에서 즐기세요.
신비로운 대자연의 선물 히말리아산 천연유황소금 블랙솔트



각종 질병을 치유하는 유황온천

유황온천은 유황, 나트륨 성분과 알칼리성 라듐 등으로 아토피, 무좀, 비듬, 피부병, 주부습진, 피부미용, 성청결용, 피로회복, 신경통, 관절염, 만성습진,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동의보감문헌참조)

대자연의 선물 블랙솔트

블랙솔트는 고대 해저 화산에서 분출된 용암의 열에(5.000℃이상) 의해 해수(바닷물)가 증발되며 산으로 형성된 천연암염과 용암에서 분출된 천연유황 성분으로 고대 청정해수를 구성하는 천연 미네랄과 무기질이 원형그대로 함유된 신비로운 대자연의 선물입니다.

유황온천보다 탁월한 천연유황 온탕을 가정에서 즐긴다

블랙솔트는 초자연적으로 형선된 자죽염 성분과 천연유황 성분등 인체에 유익한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온탕욕에 따뜻한 물과 블랙솔트를 풀어주시면 유황온천보다 효능이 뛰어난 천연유황해수 온천탕욕을 가정에서 간편하게 즐기실수 있습니다.

아토피, 무좀, 비듬 등에도 효능

100:1 정도의 물과 희석하여 완전히 융해된후 인체의 해당부위에 충분히 스며든후 가볍게 맞사지 한 후 씻어주기를 반복하면 아토피등 피부가 부드럽고 편안해 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블랙솔트는 피부미용, 습진, 신경통에도 최고!

블랙솔트에 함유된 자죽염 성분은 피부 미용을 촉진하여 피부를 탄력 있고 부드럽게 가꾸어 주며 피지 제거 작용이 우수하여 맑고 깨끗한 피부로 가꾸어 드립니다. 또한 물질을 부패시키는 산화력을 억제하여 물질을 원래의 상태로 복원시키는 환원력이 매우 탁월하여 손상된 피부를 진정시켜드리며 피부의 활력을 되찾아 드립니다.

독점수입판매 : 블랙솔트코리아 02)723-9184
농협 : 강환영 053-12-125418 원산지 : 히말리아

웃음보살 불등거사 <4>



도인의 눈을 뽑아 온 대신 [백유경(百喩經)]



천안(天眼)으로 땅 속에 묻힌 온갖 것과 갖가지 보배를 환히 보는 도사가 있었다. 도사를 곁에 두고 싶어하는 임금을 위해 어리석은 대신은 도사를 찾아 그의 두 눈을 뽑아 왔다. 그는 왕에게 아뢰었다. "신(臣)이 그의 눈을 뽑아 왔습니다. 그는 절대 어디로 가지 못하고 항상 이 나라에 있을 것입니다." 왕은 그 대신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을 여기 있게 하려는 까닭은 땅 속에 묻혀 있는 모든 것을 보려고 한 것인데, 네가 지금 그의 눈을 뽑았으니 어떻게 그가 모든 것을 볼 수 있겠는가."
세상 사람들도 마치 저 어리석은 대신이 남의 눈을 뽑은 것과 같다.

옛 판화의 세계

최초의 가람

죽원정사(竹園精舍)



석씨원류(釋氏源流)중 죽원정사(竹園精舍)편 불암사판 1673년간행, 반곽(半郭) 27.2×18.0cm

불암사판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삽화 중 한 장면으로, 부처님과 죽림정사를 기증한 빔비사라왕이 함께 의자에 앉아 대좌하고 있는 모습이 죽림을 배경으로 표현돼 있다.

불의 법문을 설한 부처님은 제자들과 함께 왕사성으로 들어가 빔비사라왕에게 무아의 법문을 설한 다음, "나를 잊고 백성을 생각할 것"을 당부했다. 이 법문을 듣고 환희심을 일으킨 대왕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오늘부터 세존과 비구승들을 공양해 4사(수행승에게 필요한 네 가지 물건: 음식, 의복, 침구, 탕약)에 부족함이 없게 하겠습니다. 오직 원하오니 세존께서는 죽원에 머물러 주십시오." 부처님은 흔쾌히 허락했다.

왕은 신하들에게 명령해 속히 죽원에 여러 당사를 짓게 하고, 부처님이 그곳에 머물기를 원했다. 왕으로서 부처님을 처음 만난 이가 빔비사라왕이며, 최초의 가람도 죽림정사다.

부처님은 죽림정사에서 열린 첫 법회에서 "보시(布施)는 탐욕을 없애고, 인욕(忍辱)은 분노를 잠재우며, 지계(持戒)는 어리석음에서 깨어나게 한다. 이 세 가지는 열반에 들어가는 문이다"라는 법문을 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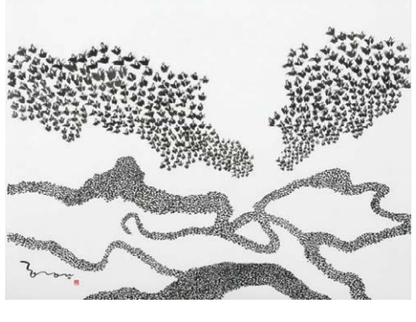
최초의 사찰에서 최초의 법문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보시와 인욕과 지계의 당부이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또 다른 의미로는 얼마나 실천하기 어려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리라.

결국 모든 사람들은 불성을 가득가지고 있는 완전한 행복의 존재이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자신의 편견으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불길로 타오르고 있어 자신이 얼마나 완전하고 행복한 존재임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보시와 인욕과 지계를 실천하여 마음속에 타오르고 있는 탐 · 진 · 치 삼독을 불을 끄고 행복의 삶을 누려야 할 것이다.

선학 스님(명주사고판화박물관장)

허허당의 세상만사

▪ 존재의 커밍아웃



고요하고 고요하다. 편안하고 편안하다.
이대로 죽어도 좋을 만큼. 지금 나는...
이 고요함과 편안함 속에서 인생은 궁극적으로
슬픈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다.
깨달음도. 고요함도. 편안함도 이대로 죽음 또한

존재의 커밍아웃
모든 존재의 궁극 실상은 슬픈 것이다

그렇다 슬픔을 알아야 자비가 나온다
사랑이 나온다

원순 스님 '열강' 동영상으로

원각경 특강 CD 제작 100부 한정 보급

현대불교신문이 창간 13주년을 맞아 불자 여러분의 공부를 돕고자 '원순 스님의 <원각경> 특강 CD'를 제작 100부 한정 보급합니다. 해인사 백련암에서 성철 스님 문하로 출가해 제방 선원에서 수선(修禪)하고 제경전(諸經典)을 연찬한 원순 스님이 조계종 동화사 기본 선원에서 10일간 강의 한 내용을 그대로 생생한 동영상 CD에 담았습니다. 문수 보현 미륵 보살 등 12보살이 열어 주는 진리의 세계, 그 환한 세상으로 가는 길, 동영상 CD로 만나는 원순 스님의 '열강'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제 목 : 원순 스님의 〈원각경〉 특강
■ 분 량 : 총 10강 동영상 CD 20매
■ 강 의 : 2007년 9월 16 ~ 27일(10일)
■ 장 소 : 조계종 동화사 기본선원
■ 제 작 : 현대불교영상사업단
■ 가 격 : 19만원(교재 포함)
■ 교 재 : 함허득통 주해 원순 스님 풀이
〈한글원각경〉(법공양 刊, 2만 5000원)
■ 구입문의 : 02)2004-8397, 8200
■ 입금계좌 : 국민은행 038-25-0008-365
(예금주 : 에이치비엠씨)



세계로 가는 서병후의 불경영어 · 천수경

수리수리마하수리

THE THOUSAND HANDS SUTRA

Mystical Gateway to Happiness and Enlighten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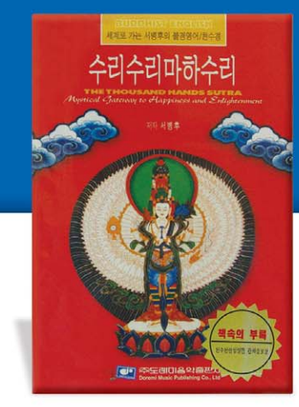


보다 활발한 한국 불교의 해외 포교, 그리고 신세대 지식인들에 의한 넓은 시야의 불교 공부와 수행을 위한 기본적 불경 영어 가이드로서 기획된 이 책은 천수경을 첫 텍스트로 했습니다.
영어화된 산스크리트어는 영어로 다루고, 그 표기도 표준적 국제 시스템에 따랐습니다.

자비와 깨달음의 감로를 내려주시는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의 구원의 염원이 담긴 천수경의 신비스런 비밀공식이 우리들 앞에 펼쳐집니다.

오랫동안 국내외에서 불교를 연구해 왔고, 풍부한 영어교육경험을 갖춘 필자가 선사하는 최초의 영어완역 천수경과 현대적 시각의 주해, 통쾌할 정도로 행간을 꿰뚫는 새로운 해석은 우리들을 감동케 할것입니다.

책1권, 오디오테이프 3개포함
20,000원 → ₩14,000원
저자 서병후 | 156쪽 | A5
출판사 : 도레미음악출판사



온라인 책방 여시아문
02)737-0695

불자생활정보 | 전면광고 | 21

▷ 문의 : TEL 02)2004-8219,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parkwonbum@yahoo.co.kr
▷ 가격 : 1Box(4.4×4.4) 4만원, 1Box(9×4.4) 8만원 ▷ 계좌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원고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전통사찰 등록
문 화 재 등록
법 인 등록
"비법인 설립"
(서류대행)
성산개발
011-9476-9001

사주 · 역학 · 비법전수
순한글과 숫자로만 30일을 공부하여 복없이 고통받는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참제자를 구합니다.
한문을 전혀 몰라도 사주를 통달함
(스님,법사,일반인 출장지도)
010-5668-5775
보현불교 역학대학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원인없이 아프신분 영험
궁금증 즉시 해결
수국사 원성 합장
02)2603-2992
011-340-5963

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문화재9호 영산작법무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부산)
금정사 대명 합장

역학 개인지도
명리 철학 배워도 영가를 못 빼내고 조상을 못 찾는분 (스님 · 무속 · 일반)
물상으로 영가를 배워 재를 지낼 수 있도록
명리철학을 1~2개월 완성
(실제 감정 위주)
051)333-3258
011-591-5277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역학, 전생요법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 (출장지도)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대한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영산재 제9호 작법무 교육도량
● 학인수시모집 : 범음,범패, 바라,나비춤
● 사찰행사 : 49재,천도재, 점안식,구병시식
010-3928-0006
무량사 무상 합장

초능력 기공비법 무료전수
※봉사활동으로 평생직업 무료전수
㉮ 수강료 납부 곤란한 재정 형편자
㉮ 고졸이상의 신심견고한 불자여성
㉮ 40~50세의 숙식가능한 불자여성
㉮ 참신성 진취성에 걸림없는 불자여성
02)584-8844
011-354-8484

각종 불공 범음 · 범패전문
점안식, 49재, 천도재, 구병시식
영산재, 수륙재, 각시식, 불교의식,
사물, 바라나비춤, 명리활법
실전 위주 교육. 학인행자모집
02)939-3327
011-9923-3329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미얀마 사야도 기도 명상지도
몸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쉬운 명상법
뜻 있는 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7월부터 합니다)
5인 이상 단체는 목~월(4박5일가능)
문의 033)433-3847
건봉사

신비의 일침요법 및 기치유 전수자모집!
일선의 포교에 힘드신 스님과 포교사님들께 23년간의 임상 노하우를 전수 합니다.
1개월이면 누구나 즉시 현장에서 통증을 없애는 신비를 발휘합니다.
속성비결 책임완성까지! *현장에서 체험하십시요*
▷개강일 : 2008년 5월 24일 토요일
* 스님 및 포교사 특혜 *
041)576-0633
네이버에서 '연화도법'을 검색하세요!
대한불교조계종 인덕사 주지 도안 합장

자격취득안내
◦포교사 분야 : 상담포교사,역학상담사 유아놀이포교사,불음법회포교사,주술포교사 풍수지관포교사,국악연주포교사,장묘관리포교사
◦법사분야 : 상담법사,교법사,상담지도법사, 아동지도법사, 불음지도법사,염불지도법사, 장례지도법사,국악지도법사
◦대법사분야 : 교학사,종학사,종사,대사,선사,율사
(법인등기 제1969호)
한국불교지도자연합회
011-412-8040

(역학)수강생모집
명리 · 궁합 · 택일 · 작명 · 육효 · 자미두수 그 외 기초반, 중급반, 연구반 1대1 개인지도도 가능합니다.
역학연구 30년 유명교수
강의 속성완수
032)508-0381
019-9007-9746
인천 불광사

몸이 아프십니까?
목 어깨 척추 짝다리 등등
고질통증(허약,의욕,기력 상실자)기공활법교정
* 빙의 천도재,구병시식,신병,효력 못 본분
* 무료결혼식 올려드려요(晩婚)
인생사 www.mukuk.net 치세요
성왕사 무극합장 10~12시 전후 상담
TEL 02)835-2955
010-3817-3387
온라인 농협 712-12-003387

초혼 · 재혼 · 국내 · 국제
대졸 초 · 재혼,신원확실
직장인,공무원,사업가
국제,필리핀,베트남,한족
재혼 70세까지 전화상담환영
02)312-5004
017-766-6888

불화그림 배울분구함
남 · 여 20~30세
노원구 상계동 전철 4호선
당고개역 부근 화실
011-257-4601
02)931-2287

600년된 벽조목(霹棗木)
● 양도가액 3천만원
● 벼락맞은 대추나무뿌리
● 사진 자세히 보실분 다음까페 부처골풍경소리
cafe.daum.net/jijangsw
054)383-8553
011-9585-4908

비구니부전스님 모십니다
010-5290-3709
031)592-7315

조계종 사찰에 깨끗하고 조용한 수행도량에서 수행기도 겸 후원을 관리할 40~50대의 공양주 속히 구함. 그리고 평생 사원을 관리하며 물욕을 떠나 은사를 의지할 비구, 비구니 40~50대를 찾고 있음.
소백산 지장보궁 내원암
경북 054)653-1180
010-6353-1180

달마그림 아직도 못 구하신 불자님 무료로 드립니다
(달마스님)
010-8861-9856

청정한 나반 도량에서 수행과 공부하실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055)835-9450
011-9790-1779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지역천년고찰)
011-527-063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부부환영)
▷경기도 여주
010-8819-8988

충남 천안시 광덕면 신덕리 12번지 천안공원 앞 천안사 봉안당(납골당)
동참하실분 모집
041)568-4610
010-5777-4799

비구니부전스님 모십니다
(대구시내)
011-512-5794

비구니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칠곡
016-521-0003

청정한 기도도량에서 수행과 공부하실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054)748-5808
010-9999-459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031)584-1541
011-9723-0967

비구니스님 15년 이상 염불하신 기도 잘하는 스님, 노전스님 모십니다
054)762-4269
010-3156-9797

사찰(女)사무장 구합니다
(월 60만원) 진주시
011-595-3973
055)744-3973

- 공무원으로 퇴직하신 불심이 돈독한 처사로서 사찰에서 공부하며 함께 기거 하실분
- 스님이 되시고자 하시는 젊은 분을 찾습니다 (50대이전)

(대구 팔공산)
011-9045 또 9045

기도 부전스님 (비구니) 자리 원합니다
(부산지역)
010-2047-83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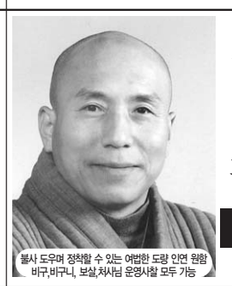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 - 60대)
▷위치 : 경주
011-9562-4457

마음이 편치않으신 분들을 위해
구병시식을 집전해 드립니다
019-4949-9705
지리산 토굴에서 이산 합장

간병인 구함
건강하신 할아버지 돌보시며 같이 생활 하실분 구합니다
(단, 55세이상 홀로계신 불자님 모십니다)
017-573-29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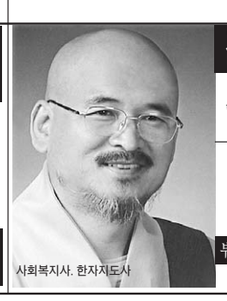
역 학 공 부
- 사주 + 궁합 + 택일 + 작명 : 초급반 7월 7일(월) 18:30개강
- 인터넷 동영상 강의 : 사주+궁합+택일+작명(초급부터 완성까지)=45만원

www.kbs.cc 풍수, 관상, 육효, 자미두수, 수상/수료증 자격증
한국역학협회 관인학원 월간역학교육원
동대문운동장역 4번 출구 도보 2분, 전화 1688-1137


불사 도우며 정책할 수 있는 여법한 도량 인연 원함
비구,비구니, 보살,처사님 운영사찰 모두 가능

바라 · 작법무등은 원할경우에만 시연해 드리며 큰 법력으로 사물과 함께 우리말 · 한문등을 마음대로 구사하여 재자와 영가를 동시에 해탈케 하는 정말 신심나는 천도재,49재 및 불상, 불화 점안 각종 불공의식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리오니 믿고 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1-854-8107
비구승 무진장 합장

대방등 대집경 특별강좌
● 강좌내용 : 28숙 ● 대상 :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전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02)926-1259 / 011-741-0867


사회복지사. 한자지도사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학 인 모 집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분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배워야 할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정말 힘든일이지요.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
문의 051) 867-8438
부산시청 뒤 거제리청과시장에서 양정쪽 150m 삼화탕 앞 송광정사

출가의 꿈을 체험해 볼 수 있는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단 기 출 가 학 교 모 집
● 대상 : 대학생 및 일반인, 45세 미만, 미혼인 남자
● 일시 : 7월 7일(월) ~ 7월 16일(수) - 10일간
● 대구큰절, 감포선방 동시교육
● 교육비 전액무료, 선착순
● 문의 : 053)474-8228, 010-2488-8228, 010-9400-8350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중풍 오십견 요통 관절통 담결림
㉮ 장기 병원치료 했으나 효과없는 각종신병환자
㉮ 스님 포교사 기치료사 코치감독단장 비법전수
㉮ 무속인 지압시술 및 신묘한 령적비법 전수
※중국 초능력기공사 초빙 치료기법시술 및 전수
02)584-8844 / 010-9137-1667
청계암 주지 만허 합장

간 건강해야 장수할수 이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깨끗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 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에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주문하시면 (생산) 달여 드립니다. 참 다슬기 농축액은 주문(생산) 달여들이며 주문시 기간은 3일~4일 걸리오니 참고하시고 주문해 주세요!
상담 (055)963-9583
문의 (055)355-5626
산마을 토종(민속농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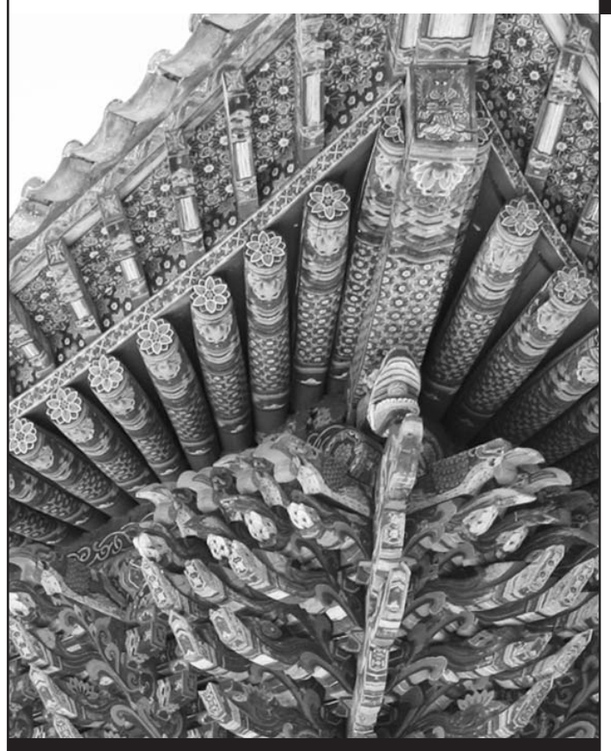
본각사 일두 스님의 수맥파 상담
"지금 당신에 침실은 안전합니까"
수맥파를 알면 가정이 편안 합니다.
만병의 원인 **수맥파**
법당에 들어서면 무서움 오싹한기분 냉기가 돌고 신도가 줄어들고 의욕이 떨어지고 머리가 아프고 신경질적이고 매사 되는일이 없고 다툼이생기고 학생은 성적이 떨어지고 짜증만내고 남편은 귀가가 늦고 부부싸움이 잦고 법당,사업장,주택 사무실,기타영업장에도 사업이 부진하고 원인모르게 건강이 악화되고 병에 시달리고 악몽,가위눌림 깊은잠 못자고 생체리듬파괴 각종 암,중풍,관절염,심장질환,학습장애, 면역력이 떨어져 생기는 모든 건강문제!
식욕부진,만성 소화불량, 신경통, 고혈압, 뚜렷한 병명없이 원인모를 병에 시달리는 분.
만약 수맥파 위에서 잠을 자거나 근무한다면 당신은 이미 병들었거나 병들 위험이 매우 큽니다. 수맥탐사 1급 자격증 소지한 일두승이 탐사를 도와 드리고 수맥을 중화 시키거나 차단하고 미세한 수맥은 자리이동을 시켜서 수맥파에서 해방되도록 도와 드립니다.
귀 사찰이나 단체에서 원하시면 생활수맥 강의를 경기도 서울지역은 출장 강의를 해 드립니다.
2-3시간 교육으로 수맥을 찾아낼 수 있도록 기본 교육을 시켜드리고 잠자리 이동을 가능하게 교육시켜 드립니다.
수맥을 중화 차단하고 난 후 약 5-7일간 경험해보신 후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확실하게 건강을 찾을 수 있는 해법이 있습니다.
궁금하신점 문의하여주십시요.
사찰의 주지스님 및 단체 개인분들께서 연락 주시면 성심 성의로 수맥 다우징 (탐사)을 해 드립니다.
02)391-8540 / 010-6395-1644
한국 생활불교 조계종 (사단법인) 수맥협회 자문위원
본각사 일두 합장

육임 수강생 모집
「육임 수강생 모집」
1. 개인 지도 수갱생 모집
2달 완성(수강료 300만원)
단, 명리나 오행에 기초를
익히신분에 한하여 가능함
2. 기초 수강생 4기모집(수강료 100만원)
6월 개강 목요반 4시 - 6시 30분
6월 개강 토요반 10시 - 12시 30분
고급반 육임을 하신분들에 한해서...
신 간 안 내
최고에 오행술인 육임을 보다 쉽고 빠르게
공부 할 수 있도록
설명을 각 점단마다 국수를 부쳐 설명하였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온 목적사를 말할수 있는 내정 비법인
시간법이 들어 있습니다.
공 념 학 당 : 상담 가능 (전화로도 가능)
■ 상담문의 : 02)793-7333 (전화 상담도 가능)
■ 홈페이지 : www.saju79.com(강의 홈페이지)
www.unsemaru.com(운세상담 홈페이지)
■ 사 무 실 : 서울시 용산구 보광동 35-45호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26-21-0792-969(예금주 : 박옥자)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이나 찾아오세요
명리학 [사주첩경통달 이석영저자]
명리학 질문 10초내 답변
(만세력 책없이 5초 이내에 두뇌로 일주 통달, 양력)
격국 · 조후 · 통관 · 용신 · 신약 · 신강
신경쓰지 마세요.
핵심은 년 · 월 · 일 · 시 와 지장간 전체의 대흐름 판독입니다.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가출,
부부간의 갈등, 혼사지연, 부모와 자식간의 불화,
학업성적부진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알려드립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라면 ○표를 믿겠죠.
X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또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등흉살이 있다고 해도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굿이나 부적 등 일체 부담 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02)826-5067
(통화 중일때는 02-574-3427) 핸드폰 011-498-5067
(3호선 양재역 5번출구 100미터 직진 버스정류장 옆 10초 운세 3층)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5× 5cm 50.000원
규격 5× 7cm 70.000원
규격 5×10cm 100.000원
● 계좌번호 :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TEL 02) 2004-8219 / 02)732-1522 (直)
FAX 02) 737-0696
● 원고접수기간 : 매주 월 - 수요일
· e-mail : parkwonbum@yahoo.co.kr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찰(대가람)안내

마이 부처바위 출현(보물급)
※ 자연석 높이 15m, 가로 50m

● 건물:법당 및 요사채 400평(6동)
● 대지:2500평 임야:12000평
● 사찰 내 유명 약수터(100년생)
● 도량 주변 칠보석 다량 매장
● 30년생 주목, 단풍나무 다수
● 심산유곡,주변 직벽암반 경관최고
● 계곡 폭 25m, 전면 300m
● 버스진입가능(12m 도접)

※ 가액 9억

부산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부산시내 및 암자 토굴 소액 7천 ~ 30억까지 다량확보

사 찰 안 내

● 위치 : 제주도
● 법당 : 30평
● 요사 : 60평
● 부지 : 700평
● 가액 : 3억

● 위치 : 서울
● 법당 : 28평
● 요사 : 38평
● 부지 : 170평
● 가액 : 10억

● 위치 : 부산
● 법당 : 22평
● 요사 : 25평
● 부지 : 191평
● 가액 : 7억5천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칠곡 다부동 예술대방면
● 법당,방2,거실(건물 25평), 작은 마당있음
● 공기 맑은 산밑 토굴로 조용히 공부 하실분들께 적합
● 가액:보증금 시설금 합 1700만원
010-5063-2781

토굴(급)안내

● 법당 1동 삼존불,요사채 1동 방2개 창고2개
● 시설일체무료양도 주차시설 완비
● 가액 : 3500만원
010-9518-3177

명당 암자터 별장지 안내

● 위치 : 충북 영동 영동역 2분거리, 버스 도로접
● 앞에는 금생수가 흐르고 복바위가 둘러싸여있는 복터
● 대지 200평, 300평, 600평, 1000평
● 평당 13만원
010-3545-9992
043)732-275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상가 아파트 밀집 최요지
● 평수 : 45평
● 방2, 법당, 공양간, 시설완비
● 즉시법회 및 숙식가능
● 보증금 2천만원, 월50만원 시설금 절충가
055)337-8600
011-834-8545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시내 도심사찰
● 대지 : 500평, 법당 20평, 요사채20평, 스님방, 종무소 20평
● 가액 : 5억6천만원

대구시내, 근교사찰터

● 가액 : 2억 5천 ~20억
● 평수, 금액 다양함 (사찰 양도하실 분 소문없이 해결 해 드립니다)
019-534-7239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대 앞 주택지)
● 4층 건물의 3,4층(120평)
● 진신사리 봉안
※ 30여 년간 포교에만 전념해 왔으나, 건강상 급 안내 합니다.
● 최고의 시설, 일산상의 이유로 부득이 저렴하게 양도함
● 가액 : 총 4억 (절충가능)
*꼭 하실 분만 연락 바랍니다
02)338-0567

지리산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산청 시천 중태리
● 대지 374평(실평수 약 600평)
● 법당 25평, 요사 30평, 산신각 2,5평
● 차실, 텃밭 760평 총 2800평
● 뒷산 홍송, 절옆 폭포
● 가액 : 2억 8천만원 (대출 및 절충 가능)
011-9393-496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 평수 : 750평
● 법당 20평, 요사채 2채 방4개, 창고
● 비구니스님 기도처로 적합
● 가액 : 2억원
011-9920-1224

수행과 포교하기 좋은곳 양도

● 위치 : 대전시
● 2층 건물에 2층 50평
● 주차와 교통이 편리하고 인근에 공원과 산이 있어 포행하기 좋음
● 보증금, 시설비 포함 2천만원
● 관심있는분은 직접방문 후 결정하길 바랍니다
010-9315-919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서초구 양재동
● 평수 : 50평(5층)
● 법당, 방2, 사무실, 욕실, 주방, 시설완벽
● 보증금 및 시설비 5천5백만원
017-232-3389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괴정3동 (지하철 5분거리)
● 법당 시설 완비 차 진입가능, 주차시설 완비
● 가액 : 답사 후 절충
051)294-1204
010-9998-2926

사찰(절)터 안내

● 위치 : 경북 경산시 (최고의 명당 자리)
● 정남향 약 2,000평
● 평당 23만원
010-3524-5677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장흥군 회진면 진목리 산1번지 여래암
● 대지 1700평, 법당 36평 요사채 방 2칸 (앞 에 바다가 잘 보임)
● 가액 : 1억6천
011-9424-1005

사 찰 안 내

천하절경 명당터 천연계곡접
● 위치 : 강원북부 영서지방, 서울에서 1시간 30분소요
● 1만여평 부지 중 대지 3000여평 전각10여동, 30억 이상의 가치
● 사찰연혁 3백여년
● 가액 : 17억원
010-6304-5998

도심속 포교당 급 안내

● 위치 :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신이문역 7분)
● 평수 : 23평(2층 건물중 2층)
● 삼존불, 후불, 신중탱화
● 보증금 5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 1200만원 전세 4500만원. 양도가 9000만원
010-7669-860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칠곡군 약목면 약목기차역 맞은편
● 건평 : 약 45평
● 2층 건물중 2층, 아주편리함
● 법당, 큰방2, 주방, 화장실, 베란다
● 보증금 1,500만원, 월10만원 시설비 2,200만원
● 스님 LA 파견으로 급 안내함
017-217-1919
054)974-030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이천시 설성면 소재
● 대지 : 300평(건물만) 도지 : 1년에 쌀 한가마
● 법당, 가사, 산신각, 구옥 2채 법당 : 와불(3m), 삼존불(관음, 약사, 지장), 미륵(160cm)
● 양도가 : 2700만원(절충가능)
010-9793-8977(달마스님)

사찰터 안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여초리 화왕산 주령 상교산 명산 사찰터
● 평수 : 임야 관리지역 12,792평 임야 농림지역 31,337평 총 44,129평
● 가액 : 4억6천(급)
017-570-1600

사찰터 최적지

1.경북 봉화군 석포리 소반야계곡 밭 1200평(평당 8만원) 자연석 약 5천만원 보유
2.충북 단양군 천동굴 옆 소백산 아래 밭 3000평(평당 4만원)
3.충북 제천시 수산면 남한경옆 임야 1540평(평당 7만원)
016-464-6386 한산합장

사찰(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사천읍 대로옆(항공산업도시)
● 대지 : 42.5평(07.11월 준공) 시부지 터밭 약간
● 1, 2층 각24평 2층 : 법당 15평, 방2, 주방1 포교원, 시민선방, 친견소 최적지, 현 기도중
● 가액 : 1억4천만원(절충가능)
● 사유 : 건강상(꼭 필요한분만)
010-4668-2061
(부재시 음성녹음요망)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강서구
● 전체 평수 100평, 법당 삼존불, 요사채 방2
● 가액 : 보증금 시설비 합 2,000만원 월 5만원
010-6222-2624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김제시 납골공원 내 있는 절
● 법당 15평, 삼존불, 시설일체, 몸만오시면 됩니다
● 전세 1500만원 법사님, 역학하시는 분 환영
※60세 이상 연락바랍니다
063)543-5551
018-427-2256

도심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북구 칠곡 아이씨 근교
● 평수 : 46평, 3층 건물 중 2층 법당, 방 3개, 인등, 원불 평생입회 봉안
● 보증금 1,000만원 월 40만원 주차장 완비 아파트 밀집지역, 시설비 2,000만원 정도
● 즉시 법회 가능, 꼭 하실분만 연락 요망
011-9424-477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덕에서 10분거리
● 평수 : 565평 (대지 200평, 전 365평) 건물 4동(법당 포함)
● 가액 : 1억 5천만원(절충가능)
※ 뜻있는 분만 연락바람
010-5074-3012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아산
● 구옥법당 20평, 공양간 20평, 주지실 10평 보살방 4평, 문중땅
● 가액 : 3800만원
041)541-0533
010-3410-000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주시 가흥2동 시내인근지역
● 법당.방4칸.주방 1개
● 양도가 : 이천만원 (가격조절가능) 월세-1년에 백오십만원 내고 계속계실분도 가능
● 부처님은모셔져있고 몸만들어오시면됨
011-9370-7513

대작불사!

자신만의 인생 최대 걸작을 원하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확인하십시요
● 불교 문화 유적을 남길 절호의 기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 대도량터의 必緣者에게 시세 이하로 드립니다.
● 6,000평을 원하십니까? 부담이 된다면 3,000평 분할 가능합니다.
● 대웅전 33평, 기타 117평, 신축 불사중
● 위치: 대구 팔공산 제2석굴암 근처
010-4512-0813

사찰(급) 안내

● 위치 : 안동 암산 유원지 테마 마을 안쪽
● 대지 200여평 법당 20평
● 작은방 가구시설일정 양도
● 삼존불 소불(240불)각단탱화
● 관광단지조성계획지로 주변 경관이 수려하고 넓은 주변땅으로 잔디조성
● 가액 : 억 7천만원
054)858-9628-9
019-377-8967

포교원안내

● 위치 : 밀양군 무안면 운정리 노리실 석불암
● 대지 450평. 법당 50평 요사채 20평
055)356-5322
051)254-3016

사 찰 안 내

● 위치 : 익산시
● 법당 : 20평, 요사 : 30평 대지 : 151평
● 가액 : 9천 5백만원
※ 시세이하
011-811-5466

포교당 인수 하실분

● 위치 : 경기도 광명시
● 평수 : 45평, 2층
● 아미타불,지장,관음,약사,산신각
● 시설 A급 스님 사정상 급 양도함
● 보증금 1,000만원/월50만원 시설비 3,500만원(절충가능)
02)864-7709
010-4763-4395

포교당 터(임법당) 안내

● 위치 : 경북 칠곡군 왜관읍 낙동강변
● 대지 232평, 신축건물 60평(3년)
● 현재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주변경관이 사찰로 운영함이 좋을 듯 싶고 포교당으로도 적합함
● 심야전기시설, 주차시설 완비
● 가액 : 현 시가액에 맞지않은 3억2천만원에 인연맞는 분께 양도하려함
011-803-7448

암 자 안 내

● 위치 : 구미시 근접 칠곡군 약목면
● 임법당, 연꽃, 연못 옆산 옆마을 넓은 정원
● 총 320평
● 가액 : 1억 3천
017-813-9126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 법당 10평, 방1개, 부엌1
● 시설 A급, 위치 좋음 몸만 오시면 됨
● 보증금 500만원/월 32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0-9195-3254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횡성 IC 10분거리 이내
● 평수 : 5,800평
● 법당 3동, 요사채 5동, 창고 1동
● 가액 : 22억
010-4445-517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집현면 덕오리
● 대지 280평(밭 조금 있음)
● 집 2채, 법당, 요사
● 가액 : 1억
● 비구니 스님 적합
017-552-7350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두시지하철 2분거리 불교 도량 최적지
● 법당 25평, 요사25평, 대지 600평
● 가액 : 답사 후 절충
010-9798-1091
011-574-3303

사 찰 중 개

● 위치 : 서울, 종로
● 부지 : 1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20평
● 가액 : 5억
● 전국 사찰 암자 급히 양도하실분이나 구입하실분 전화주세요. 만족을 드립니다. 성불하세요.

전국사찰암자포교당부전스님공양주소개합니다

포교당 안내

● 신비의 바다 보배의 진도 (전남 진도군 내)
● 대지 : 약 2500평
● 법당, 산신각, 요사채(식당 겸) 전기보일러, 산세수려함
● 가액 : 3억 3천만원 (답사 후 절충가능)
011-9928-0005
061)544-0484

사 찰 안 내

● 지리산으로 불사가 되어 내려감
● 시설 전체 양도 평당 500만. 41평. 2억 (땅값만 받음)
● 법당 20평, 아랫채 식당
● 인천 수봉공원 17번 버스 종점 앞
016-777-7656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포천시 송우리(의정부 경계)
● 평수 : 446평
● 2층 건물중. 1층 : 종무실, 공양실, 주지실, 화장실 2, 방 5, 2층 : 대웅전(47평) 별채 : 약 50평 건물, 위패단 및 지장도량
● 모든 집기 그대로 양도합니다
● 가액 : 15억(절충가능)
010-9757-7245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 영월읍 동강에서 700m, 시내에서 3km
● 70년된 사찰. 법당 목조단청 25평 지장 목조단청 13평, 산신각 목조단청 8평 관음전 8평, 석불전 6평, 용왕정 4평, 요사채 30평, 15평, 화장실 2동
● 미륵석불1, 5층 석탑 2, 용탑 2
● 가액 : 3억5천 ●스님 노환으로 양도원함
011-484-0663
033)374-445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초동면 반월리
● 법당 슬라브 기와 20평, 대지 235평
● 요사채 슬라브 20평, 산신각 6평, 황토방
● 법당 뒤에는 대밭이 있고, 산자락 아래 위치 앞쪽으로는 낙동강이 흐르고 있는 전망 좋은 곳
● 즉시법회가능
● 가액 : 1억3천(상담 후 절충가능)
011-879-7551

포교당 안내

● 위치 : 마산시 산호동 산호시장앞
● 평수 30평, 2층 단독
● 삼존불, 신중탱화.,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1,000만원/월40만원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능
010-4001-8476
055)232-7151, 243-375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산청 지리산 자락
● 평수(전3400평,대지50평)
● 법당1, 요사채2, 산신각, 화장실
● 양도가 : 평당 10만원
011-499-9662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대산면 옥열리
● 대지 605평, 건평 130평(4동)
법당 60평, 다용도실 10평,
요사채 30평(슬라브건물) 창고 및 화장실 18평
주택 12평(기와건물)
● 가액 2억 8천만원
011-836-1829
010-3351-1829



송찬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41>
(修習止觀坐禪法要)

제6장 정수행(正修行) ⑤

육근·육식·육진엔 나의 참모습 없어

慈心觀 對治瞋恚 界分別觀 對治著我 數息觀 對治多尋思等 此不分別也

다음으로 진심의 망념이 많은 사람은 반드시 자비의 마음으로서 관찰하고 대치해야만 한다.

수행인이 좌선으로 관법을 행할 때 마음속에서 갖가지 진심과 원한심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는 과거에 내 감정을 위배한 경계를 따라서 일어나는 진심이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은 채 아무런 까닭 없이 번뇌를 일으키는 진심도 있고, 또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내 친구를 핍박하고, 나와 원한이 맺힌 집안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칭찬했던 일을 되새기면서 이를 따라서 진심이 일어난다. 또는 자기는 옳고 타인은 틀렸다는 생각에서 시비 논쟁의 진심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러한 내 감정을 위배하는 경계에서 일으키는 갖가지 진심과 원한심은 일체 중생이 내 과거에 부모나 친척 등이었다고 상상으로 관찰해야만 한다. 나의 부모와 친척이었다면 항상 그들을 안온하고 즐겁게 해주어야만 되며, 진심의 번뇌를 일으켜서는 안된다. 이것이 자비의 마음으로 관찰하여 불처럼 일어나는 진심을 대치하는 수행이다.

그 다음으로 나에 대한 집착의 망념이 많으면 내 몸의 한계를 분별하는 관법으로서 대치해야만 된다. 여기에서 말한 분별이란 '한계'를 말하는 것이다.

나의 몸은 지(地) 수(水) 화(火) 풍(風) 공(空) 근(根) 식(識) 등 칠대(七大)가 임시로 화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칠대는 각자마다 한계가 있어 그 성질이 동일하지 않다. 지대는 견고한 성질이고, 수대는 젖는 성질이며, 화대는 뜨거운 성질이고, 풍대는 움직이는 성질이며, 그 나머지 공과 육근과 육식은 이에 준해서 유추하면 된다.

자신에 대한 집착이 지중한 사람은 반드시 나의 본모습을 미세하게 관찰해야만 된다. 즉 지대가 나일까, 수대가 나일까.

만일 지대가 나라고 한다면 화대와 수대는 내가 아니며, 화대가 나라고 한다면 지대와 풍대는 내가 아니며, 또 칠대가 모두 나라고 한다면 일곱 개의 생명으로 나눠지게 된다. 그렇다면 나는 본래 하나가 아닌 것이어서 한량없이 많은 몸이 있게 된다.

이렇게 관찰하면 육근과 육진과 육식의 한계에서 나의 실제 모습을 찾으려 해도 끝내 찾지 못하며, 찾지 못한 것이 바로 내가 없는 곳이다.

중생은 이러한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없는 가운데 내가 있다고 망상으로 집착한다. 사대가 자신의 몸이라고 망상으로 인식하고, 육진의 그림자를 분별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마음의 모습이라고 인식한다.

그러나 실제로 오온은 본래 공이며, 사대도 내가 아니다. 이와 같이 분별하고 추구하면 나라고 집착하는 망념이 소멸하게 된다.

다음으로 사려심 때문에 산란한 마음이 자주 일어나는 사람은 수식관(數息觀)으로 대치해야만 한다.

수식관은 코로 호흡하는 횟수를 세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콧구멍에서 미미하게 있는 듯 없는 듯 내쉬는 호흡을 하나부터 열까지 세고, 열부터 다시 하나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한다. 또 호흡을 들이마실 땐 내쉬는 호흡을 세지 않는다. 면면밀밀하게 마음은 호흡을 의지하고, 호흡은 마음을 의지하여 따로 다른 인연이 없이 오직 호흡만을 따라서 그 횟수를 분명하게 기억해야만 한다.

이와 같이 한다면 내 마음속에서 추구하는 사려가 남김없이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분별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였다.

二者正觀 觀諸法無相 並是因緣所生 因緣無性 卽是實相 先了所觀之境 一切皆空 能觀之心自然不起 前後之文 多談此理 請自詳之

이상에서 보조수행으로서의 관법인 조관(助觀)은 끝내고 지금부터는 수행의 주체인 정관(正觀)에 대해 밝히기로 한다.

일체 제법은 독자적으로 일어나지도 않고, 대상에서도 일어나지도 않으며, 자체와 대상이 공동으로 화합해서 일어나지도 않고, 아무런 원인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

제법 그 자체는 바로 공[卽空]이고, 바로 가[卽假]이며, 바로 중[卽中]이다. 이를 두고 불가사의하게 원융한 일념삼제의 이치[一念三諦理]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관찰해야만 한다.

사대가 내가 아님을 깨달으면 집착도 사라져
공가중 삼제 원융한 이치 오묘하게 관찰해야

삼관 가운데서 가장 닦기 쉽지 않은 것은 공관이다. 왜냐하면 범부중생은 무시이래로 무명번뇌에 가려 만법이 실제 있다고 집착하고 있어 공을 설해주어도 쉽게 공의 경지를 체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제법은 무상의 이치라는 것을 통달해야만 하는데, 무상은 바로 공인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제법이 무상이라는 이치를 명료하게 알 수 있겠는가. 그것을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해보자.

가령 여기에 아름다운 꽃이 있다고 하자. 사람들이 꽃을 보고 좋아하고 기뻐하지만 꽃은 며칠 지나면 시들고 잎도 떨어져 버린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꽃은 끝내 소멸되기 때문에 원래 그 자체가 무상이라는 점이다.

꽃이 진실한 모습이 있었다면 변화하고 파괴되지 않았을 것이다. 꽃의 모습이 이와 같았을 때 일체 제법의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제법은 무상한 이치라고 관찰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는 근기가 둔한 사람을 가르치는 말인데, 그 이유는 모든 법이 파괴되기를 기다린 이후에야 제법이 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근기가 영리한 사람이라면 제법 그 자체가 바로 공이어서 파괴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도 공이라는 이치를 통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제법은 인연을 따라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일체가 이미 인연을 따라서 일어났다면 그 인연으로 일어난 모습은 있다 해도 실체가 없으며, 실체 없는 성품이 바로 제법의 실제 이치로서 오묘한 성품인 것이다.

실상이란 무상이다. 무상은 인연을 따라서 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는데, 이를 제법의 실제 이치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두고 금강경에서는 "일체 존재해 있는 차별적인 모습은 그 모두가 허망한 인연의 모습이다. 그 인연의 모습으로 떠오른 것은 있다 해도 실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본다면 그 즉시 제법의 실제 이치를 볼 수 있다"라고 하였다.

만일 이와 같이 여실하게 관찰대상 경계로서의 제법은 모두가 공의 이치라고 통달하게 되면 그 이치를 관찰하는 주관적인 마음까지도 자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말하면 마음은 본래 일어남이 없는데, 인식대상 경계를 따라서 일어나며 대상경계가 없다면 그것을 인식하는 주관적인 마음까지도 역시 동시적으로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지관의 이치는 앞에서 이미 설명을 끝냈으므로 거듭 덧붙이지 않겠다. 여러분 스스로 자세히 살펴보고 참구하기 바란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오온법(五蘊法)

식상(識相)의 의미②

안 이 비 설 신 의 육식과 말나식, 아뢰야식 등 여덟 개 식에는 각각 그에 상응하는 심소(心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령 안식을 예로 든다면 이 단어에는 안식에 상응하는 촉심소 등 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는 단일한 따로의 자체가 아니라 하나의 안식심왕(眼識心王)에 다수의 심소(心所)가 복합돼서 하나의 안식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의 여덟 개 심식을 다시 각각 이분(二分)으로 분류하여 설명하는데, 이분은 상분(相分)과 견분(見分)을 말합니다. 안식이 인식하는 대상인 색경(色境)을 안식상분(眼識相分)이라 하고, 그 상분경계를 명료하게 식별하는 주관적인 인식활동을 안식견분(眼識見分)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견상이분(見相二分)을 합해서 하나의 안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식'은 논사들의 견해에 따라서 다시 삼분(三分)과 사분(四分), 또는 일분(一分)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사대논사(四大論師)의 이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안혜(安慧)논사는 오직 자증일분(自證一分)만을 수립하였는데, 이는 만법유식문(萬法唯識門)의 측면이 강합니다.

다음으로 난타(亂陀)논사는 상견이분(相見二分)만을 수립하였으니, 이는 만법을 심경문(心境門)에서 고찰한 경우입니다.

세 번째로 진나(陳那)논사는 삼분(三分)설을 수립하였는데, 이는 만법 체용문(體用門)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호법(護法)논사는 사분(四分)을 수립하였는데, 이는 양과문(量果門)의 측면에서 고찰한 학설입니다.

총론적으로 말하면 우주만유는 모든 중생들의 여덟 개 심식, 즉 여덟 개 심왕(八個心王)과 그에 상응해서 일어나는 오십일심소(五十一心所)를 의지해서 일어난 천만갈래의 상분과 견분이 활동하는 모습일 뿐입니다. 이것이 만법유식(萬法唯識)의 대체적인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덟 개 심식이라는 말은 중생마다 각자 활동을 일으키고 있는 우주론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불교 유식학파의 현상론입니다.

이상에서 '식'이 활동하는 모습인 현상계를 대략 살펴보았으므로 다음으로 그 근원인 종자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정리=張如舟

차용품전문회사 홍다원

홍다원이 위치한 북촌지역(가회동, 삼청동 일대)은 조선시대 경복궁과 창덕궁, 종묘의 사이에 위치해 서울 600여 년의 역사와 함께 한 전통 거주지역입니다. 주변에는 북악산과 인왕산이 있어 예로부터 길지(吉地)로 알려진 지역이기도 합니다.
홍다원은 중국 전통의 보이차와 다구용품을 전시 판매하는 회사로 중국 보이차와 한옥의 멋스러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따스한 공간입니다. 중국 본토에서 수집한 50여가지의 골동품도 전시하고 있어, 차와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보이차
홍다원은 10년 전부터 주재원이 상주, 곤명의 운남성 차엽공사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다원의 보이차는 식약청의 검사를 통해 직수입하고 있습니다.



■ 전시된 보이차 · 목공예작품과 함께 차를 시음하실 수 있는 공간

자사호
홍다원의 자사호는 이싱(宜興) 정산 황용산의 홍니만을 사용하여 직접 작가에게 주문의뢰한 작품을 취급하며, 고객이 원하는 작가의 작품 또한 주문생산하고 있습니다.





■ 퇴수기와각종 차용품, 보이차를진열한 공간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74 www.hongdawon.com
TEL : 02)744-3311 / FAX : 02)744-3700



불상, 석탑, 석등 사찰공사 전문업체 일심석재
대한민국 석공예명장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등석 : 황등석은 색상이 아름답고 천 년의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아 절분이 많고 쉽게 부식되는 중국산 수입 돌과는 차원이 다른, 석질이 우수한 익산에서만 생산되는 무철분 화강암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931-1
전화 063)836-0231 팩스 836-7527
011-673-7527



김옥수 석공예명장

- 대한민국 석공예명장
- 전라북도 무형문화재(제36호)
- 대한명인(06-122호)
- 現 일심석재/일심산업 대표이사
- 전국기능올림픽 석공예 2위
- 대한불교조계종 금산정사 공로패 수상
- 원광대학교 대학원 한국사상과정수료
- 대한광업진흥공사 석공예기능 훈련강사 역임
- 전국 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역임
- 노동부장관 표창
- 대구기능대학교 명예교수
- 사)돌문화보존회 이사장
- 제9회 돌문화축제위원회 위원장

인터넷 블로그에 「김옥수」 또는 「일심석재」를 검색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 가까운 곳에 끝없이 펼쳐진 '들늪' 이…


거품벌레집.


쉬땅나무 꽃.


높은산세줄나비.


쥐똥나무 꽃.


쇠측범잠자리.

(100) 밀양 재약산 표충사

내셔널트러스트(National Trus)는 시민들이 모금이나 증여를 통해 중요한 자연유산이나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시민환경운동이다.

100여 년 전 영국에서 시작되었으나, 그 먼 시원은 부처님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장자들은 철저한 무소유였던 부처님과 제자들에게 숲을 증여해 수행처로 삼게 하였다. 그 숲은 수행자 집단에 의해 영구히 지켜지게 되었다. 1600년 한국불교에서도 수행자들이 산중에 사찰을 지어 숲을 지키고 가꾸어 왔으니 내셔널트러스트 활동에 다름 아니다.

우리나라 내셔널트러스트는 2000년 들어와 공식적인 사회활동을 시작했다. 작년(2007년)에 밀양 표충사가 소유하고 있는 재약산 산들늪이 '꼭 지켜야 할 자연문화유산'으로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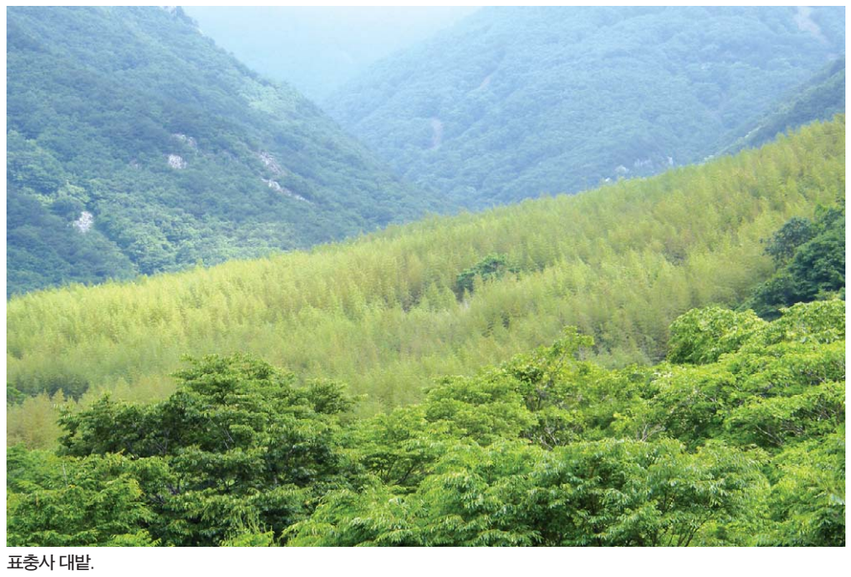
산들늪이 자리하고 있는 해발 1108m 재약산은 낙동정맥 남부에 자리하고 있다. 가지산을 비롯해 1000m급 산들과 함께 영남 알프스를 이룬다.

표충사가 재약산에 처음 터를 잡은 것은 신라 무열왕 때 원효 대사에 의해서라고 한다. 그 후, 흥덕왕 때 인도의 고승이 재창했다고 전한다. 흥덕왕의 셋째 아들이 병에 걸려 산중의 영정약수를 마시고 나았다고 해서 절 이름을 '영정사(靈井寺)'로 바꾸었다고 한다. '재약산(載藥山)' 이름도 그때 지어진 것이라고 한다. 영정사가 오늘의 '표충사'라는 사명을 갖게 된 것은 임진왜란 이후 사명 대사 사당인 '표충사(表忠祠)'가 절에 들어서면서부터라고 한다.

정류장에 내리면 재약산과 천황산 능선이 멀리 보이고, 그 골짜기에서 시전천이 내려온다. 시전천은 아래쪽에서 단장천에 합류되고, 단장천은 다시 밀양으로 내려가서 밀양강이 된다. 시전천 어류는 버들치와 갈겨니 등이 주류를 이루지만, 비가 내리고 나면 피라미, 쉬리, 돌고기, 돌마자, 자가사리, 참몰개가 물을 타고 감밭골까지 올라온다고 주민들은 말한다.

이 지역에서는 피라미를 '피리'라고 부르고 있다. 봄철 짝짓기 무렵이면 수컷은 아름다운 혼인색을 띠고, 뒷지느러미가 길어진다. 피라미는 다른 물고기들보다 번식력과 적응력이 뛰어나서 전국 어디서나 서식한다. 표충사까지는 늙은 나무들의 숲길이다. 초입에 노송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지만, 늙은 활엽수들이 주류를 이루는 숲길이다. 일주문에서부터 길바닥에 화강암 판재가 깔려 있는데, 비나 눈이 내리면 길이 미끄러워 통행에 적지 않은 불편을 주므로 개선이 요구된다. 수충루 앞 가람각 내부에 '나무가람수호신위(南無伽藍守護神位)'란 위패가 봉안돼 있는 걸 보면 다른 절의 국사당(局師堂)과 같은 성격의 건물인 듯하다. 국사신앙은 화재나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절을 지키려는 의지의 발현이다.

표충사 사역이 넓지만 가람배치가 흩어진 느낌을 주는 까닭은 임진왜란 이후 표충사당과 서원이 경내에 들어선 까닭이다. 지금의 동선은 마치 경내의 옆구리를 통해서 월담해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다. 그


표충사 대밭.

표충사 대나무밭은 조선때 화살·무기 만들던 관죽전
산들늪엔 꼬마잠자리·하늘다람쥐 등 희귀동물 서식

전까지는 대광전과 마주한 우화루가 진입로였다고 전한다. 만일루 앞에 늙은 사철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늙고 병들어 여기저기 사지를 많이 잘렸지만, 철이 되면 꽃 피우고 종자를 맺는 것이 가상하다. 만일루 건물의 합각에 폐기와를 이용해 만들어놓은 나무 문양도 눈맛이 좋다.

표충사 대나무밭은 역사유물이다. 조선시대에는 화살이나 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할 대나무를 확보하기 위해 남쪽지방 여러 곳에 관죽전(官竹田)을 지정하여 대나무를 생산케 하였는데, 표충사 대나무밭도 그때 관죽전으로 지정됐다. 그 연유로 '죽림사(竹林寺)'라는 별칭도 얻었다. 현재 대밭 속에는 대나무로 자리를 엮어 참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놓았다. 템플스테이가 있을 때 탐방객들이 들어와서 참선 실수를 하는 곳이다. 효봉 선사 사리탑은 거대한 유문암 바위 위에 세워져 있다. 유문암은 화강암질의 마그마가 분출해 급히 냉각되면서 생긴 것으로, 오랜 풍화작용으로 틈이 생기면 공명(共鳴) 현상을 일으킨다. 사람들이 바위를 두드리면 목탁소리가 난다.

사리탑 앞으로 내원암-한계암-사상암을 지나 천황산으로 오르는 숲길이 계곡을 끼고 나 있다. 내원암에서는 양봉을 해서 절 살림에 보태고 있다. 표충사 일대에 자생하는 초본 가운데 노루오줌, 석잠풀, 꿀풀, 기린초, 돌나물, 부처꽃, 개망초, 까치수영, 현호색, 양지꽃, 돌단풍, 배암차즈기 등이 때맞춰 꽃을 피워 꿀을 제공하고 있다.

노루오줌은 여러해살이풀로, 여름을 여는 꽃이다. 잎 모양도 예쁘거니와 꼿꼿한 꽃대에 솜사탕처럼 모여서 피는 홍자색 꽃도 예쁘다. 주로 계곡 주변에 군락을 이루어 자라며, 꽃이 피어있는 시간이 길어서 사찰 조경에도 어울린다.

표충사 주변에서 관찰된 나비로는 높은산세줄나비를 비롯하여 긴꼬리제비나비, 애기세줄나비, 네발나비, 모시나비, 작은주홍부전나비 등이 있다. 쇠측범잠자리, 왕잠자리, 물잠자리, 베치레잠자리, 밀잠자리, 된장잠자리, 아시아실잠자리 등은 시전천이 흐르는 사하촌 부근에서 관찰됐다.

높은산세줄나비는 세줄나비 가운데 비교적 늦게 나타나는 종이다. 검은색 날개에는 3줄의 흰 띠가 있고, 뒷날개에는 적갈색 무늬가 있다. 다른 세줄나비에 비해 개체수가 매우 적은 편이다.

쇠측범잠자리는 왕잠자리의 일종으로, 주로 계곡 주변에 서식한다. 가슴은 검은색, 가슴 옆면과 뒷머리는 노란색, 배는 검은색을 띠고 있다. 겹눈은 황록색을 띠고 있다. 비교적 일찍 나타나는 잠자리이다.

숲길 가장자리 나뭇가지에 마치 침을 뱉어놓은 듯한 거품들이 보인다. 이것은 거품벌레가 몸을 숨기기 위해 배 끝에서 나오는 액체를 공기로 부풀려서 거품처럼 만든 은신처이다. 이 거품의 재료는 나무의 수액으로, 새끼들의 먹이로도 제공된다.

한계암과 서상암을 지나면 천황봉으로 이어진다. 요즘 천황봉 케이블카 설치 문제가 다시 시비에 올라있다. 최근 낙동강환경청이 사전영향평가를 받도록 했기 때문이다. 거의 허가 수준이나 마찬가지인 이 결정에 대해 표충사와 환경단체들이 산들늪 습지 파괴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사자평 가는 길은 수충루 앞에서 왼쪽으로 난 계곡길이다. 물소리 사이로 멀리 검은등뻐꾸기 울음소리도 함께 들려온다. 딱새, 곤줄박이, 직박구리, 노랑턱멧새, 멧비둘기, 붉은배새매, 흰배지빠귀 등이 관찰됐다. 노랑할미새와 알락할미새는 시전천 주변에서 관찰됐다. 사자평에 이르는 구간의 숲은 온대남부활엽수들이 우점한다. 가막살나무, 감태나무, 개암나무, 개옻나무, 굴피나무, 비목나무, 사람주나무, 노각나무 등이 모두 온대남부활엽수이다. 쥐똥나무, 쉬땅나무, 인동, 병꽃나무, 다래, 산딸기, 산수국, 조록싸리 등이 꽃을 피워서 여름을 열고 있다.

쥐똥나무 이름은 열매의 생김새를 보고 지었다. 북한에서는 검정알나무라고 부른다. 쥐똥나무 하면 일반적으로 생울타리용 조경수로 각인되어 있지만, 야생에서는 산기슭이나 계곡에서 자란다. 쥐똥나무 꽃은 흰색으로 크기는 자잘하지만, 향기가 진한 밀원식물이다. 쉬땅나무는 높이 2m 가량의 관목이다. 산기슭 계곡이나 습지에서 자라며, 뿌리가 땅속줄기처럼 뻗고 한군데에서 많은 줄기가 난다. 꽃이 많이 피기 때문에 사찰에서 관상용이나 울타리용으로 심어도 무난하다. 쥐똥나무를 남방계 식물로 보고, 쉬땅나무를 북방계 식물로 본다.

표충사 주변에는 두꺼비 등 여섯 종류의 양서류가 발견됐는데, 그 중 청개구리와 무당개구리의 개체수가 가장 많았다. 무당개구리의 경우는 표충사 경내 곳곳에서 짝짓기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산들늪에서는 희귀종인 물두꺼비 서식이 최근 확인됐다.

사자평은 재약산 동쪽 기슭에 펼쳐진 해발 700~800m의 고지대 평원이다. 사자평 일부에 자리한 산들늪은 '산중에 있는 넓은 들늪'이라는 의미로 지어졌다. 58만㎡(28만평)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고산습지이다. 해발 700m가 넘는 고지에 습지가 형성된 데는 바닥이 석영안산암으로 이루어져 있어 물을 잘 담아두기 때문이다.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이탄층(泥炭層)이 물 먹은 스펀지 역할을 해주는 까닭도 있다. 이 늪에는 진퍼리새를 비롯한 끈끈이주걱 등 습지식물과 친수성 목본인 오리나무도 군락을 이루고 있다. 그 밖에 희귀종인 노랑무늬붓꽃, 복주머니난, 큰방울새난, 개불알꽃 등이 있다.

동물로는 희소가치가 높은 꼬마잠자리를 비롯해 삵과 하늘다람쥐까지 서식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놀라운 사실은 다른 산지습지와는 달리 버들치와 가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재약산의 옥류동천가 폭포에 사철 물이 마르지 않는 것도 머리 꼭대기에 이 같은 늪이 있기 때문이다. 2002년부터 전문가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조사된 후 2006년 12월 환경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산들늪을 위한 표충사의 노력은 본보기가 될 만하다. 표충사 스님들이 중심이 되어 불교습지연대를 조직하고, 템플스테이를 통해 수시로 시민들에게 산들늪의 중요성을 알려왔다. 환경부가 산들늪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게 된 것도 표충사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가하면 5월 23일에는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산들늪을 위한 세미나도 열었다.

사찰생태연구소 김재일(temple-e@hanmail.net)

이 름	나 이	신장	학 력	직 업	주소지
정영식	1964년생	170	고 졸	공 무 원	서 울
임용우	1966년생	174	고 졸	자 영 업	청 주
노해용	1972년생	173	고 졸	C E O	청 주
이준우	1964년생	168	고 졸	회 사 원	대 전
김현태	1957년생	173	고 졸	회 사 원	대 구
조복재	1965년생	180	고 졸	일반전문직	구 미
임태빈	1981년생	180	대 졸	공 무 원	서 천
김기엽	1969년생	180	전문대졸	자 영 업	서 울
홍봉표	1967년생	180	전문대졸	회 사 원	경기고양
최명길	1974년생	165	고 졸	회 사 원	경기시흥
오상택	1965년생	165	고 졸	회 사 원	경기부천
한용석	1975년생	167	고 졸	회 사 원	부 여
최경복	1971년생	174	고 졸	회 사 원	전 주
이정배	1966년생	172	고 졸	회 사 원	충북영동
임형준	1973년생	176	전문대졸	회 사 원	대 전
이영근	1976년생	165	대 졸	회 사 원	대 전
김대중	1974년생	173	대 졸	회 사 원	경기용인
정화섭	1960년생	175	대중퇴	공 무 원	경기이천
이동희	1972년생	180	대 졸	회 사 원	경북예천
강정복	1965년생	170	고 졸	자 영 업	인 천
정지영	1974년생	174	중 졸	회 사 원	수 원
임인갑	1974년생	165	고 졸	회 사 원	대 구
이현철	1972년생	175	방통대재	금 융 직	서 울
김종희	1963년생	163	고 졸	회 사 원	서 울
이영일	1965년생	165	대 졸	회 사 원	강원태백
박종구	1972년생	175	고 졸	회 사 원	경기안양
최용상	1970년생	170	방통대재	공 무 원	서 울
이동원	1970년생	172	대 졸	회 사 원	서 울
남정대	1971년생	173	고 졸	회 사 원	경북구미
육근성	1970년생	185	전문대졸	회 사 원	충북옥천
박이수	1960년생	168	중 졸	회 사 원	경기수원
배영순	1956년생	150	대중퇴	자 영 업	경기화성
오성택	1970년생	165	고 졸	사업예정	경기부천
변희섭	1965년생	174	고 졸	회 사 원	경북구미
김대환	1973년생	172	대 졸	학원실장	광주광역시

이 름	나 이	신장	학 력	직 업	주소지
김창영	1970년생	163	대 졸	복 지 사	충주시
박영학	1967년생	170	고 졸	회 사 원	고양시
홍진석	1968년생	167	대 졸	시설관리	부천시
조성현	1969년생	170	전문대	회 사	서 울
배병언	1967년생	169	대 졸	회 사	부 산
전남진	1972년생	172	전문대	치기공사	서 울
이규안	1970년생	165	대 졸	건 설 사	광주시
이광표	1968년생	168	고졸자	영 업	서 울
권순석	1978년생	171	대 졸	건 설 사	경기도
박영규	1966년생	182	고졸자	영 업	전주시
문윤종	1970년생	163	고졸자	영 업	광주시
김길성	1975년생	175	전문대	공 무 원	대 전
민의식	1969년생	172	고 졸	운 송 업	부 산
최정우	1978년생	178	대 졸	건 설 사	서 울
노금광	1972년생	162	고 졸	회 사	진해시
정연종	1959년생	165	고 졸	공 무 원	충 남
오세준	1975년생	175	고 졸	회 사	경기도
박헌득	1964년생	163	고 졸	회 사	서 울
임상훈	1973년생	172	대 졸	회 사	경기도
연길호	1973년생	175	대재학	공 무 원	경기도
박성준	1965년생	169	고 졸	회 사	대구시
박준규	1971년생	170	대 졸	건 설 사	제천시
최용우	1962년생	164	고 졸	자 영 업	홍성군
조현욱	1972년생	166	고 졸	조 리 사	경기도
김진묵	1969년생	170	고 졸	공 무 원	충 북
김재원	1966년생	175	고 졸	회 사	대 구
서종은	1971년생	170	고 졸	회 사	경기도
이건우	1971년생	173	대 졸	자 영 업	경주시
박천수	1975년생	160	전문대	발전공사	강원도

[캠페인 PR]

현대불교신문 구독자 인연찾아주기

"아름다운 인연 찾기" 공개 구혼

현대불교신문 독자님들을 위한 인연 찾기 캠페인입니다.
부처님 제자로서 서로 아끼고, 함께 닦아 갈 인연을 찾습니다.
오랜 인연의 기다림으로 여성 불자님들의 전화를 기다립니다.

현대불교신문 충청지사 대성사 주지 혜철

주관 현대불교신문 충청지사 지사장 혜철스님 충북 옥천군 옥천읍 교통리 297-4 대성사
전화 | 043)732-5560 / 010-9422-8453 팩스 | 043)732-5520
홈페이지 | www.dss.or.kr 다음카페 | cafe.daum.net/dasungsa





길을 묻는 이에게

제 685 호 현대불교
2008년 6월 25일(음력 5월 22일) 수요일 / 불기 2552년
법공양 페이지 25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바깥으로는 절대 믿지 마세요!

(지난 호에 이어서)

요새 그런 것 잘 보시죠? 그런 것도 다 마음, 마음,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다스릴 수 있다면 내면세계 그 의식들의 마음들도 전부 한마음으로 지배인을 따라 줍니다. 여러분은 실험을 안 해 보셨으니까 모르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실험해 보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부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부처님의 골수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역대의 조사들, 천백억화신들, 일체제불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응해 주시면서 한 찰나에 드시고 한 찰나에 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알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내 집에 전화를 놔야 전화를 받기도 하고 전화를 하기도 하지, 내 집에 전화를 놓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화를 받고 전화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그 보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보배에 의해서 내가 수억겁을 거쳐 온 사실을 알게 될 것이며 미래가, 바로 정신세계가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차 지나간 뒤에 차를 쫓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타고 다닐 겁니다. 자가용이 있는 사람은 편하지만 버스 타는 사람은 차를 놓치기도 하고 타기도 하고, 이렇게 애를 쓰다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인지 고거 하나로만 비유해 봐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날까지 추운 거를 춥다고 해 본 일도 없고 더운 거를 덥다고 해 본 일도 없습니다. 사계절도 사계절 나름입니다. 여름이라고 고정되게 항상 장마가 들어서 사람을 해치고 가는 것만도 아니고, 그런 장마도 없습니다. 괜찮았다가도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었다가도 그렇게 안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여름이 아주 무덥기도 하고 덜 덥기도 하고, 겨울이 덜 추울 수도 있고 더 추울 수도 있고, 고정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고정되지 않습니다. 북극 남극이 여러분의 입과 직장과 똑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항상 여러분이 잡수시죠? 잡숫고 그 잡수신 게 그냥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잡숫고도 그거를 불들어 놓고는 그냥 애를 쓰고 있는 때가 많아요. 그냥 놔뒀으면 소화가 돼서 그냥 나갈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돈 벌기보다 돈 쓰기가 더 어렵고, 어떠한 것이 사는 건지 그 맛을 모른다면 살기가 극히 어렵다는 얘깁니다. 부처님께서 "내 형상을 해 놓고 빌고 거기다가 갖다 놓고 시주를 하고 그러는 것이 공덕이 크게 될 것이니라." 하셨습니까? "너희들의 마음을 깨쳐서, 너희들의 물리가 터져서 슬기롭고 지혜롭게 살아나가라. 유의 세계 무의 세계가, 정신세계와 물질세계가 바로 너희들 마음속에 들어 있느니라. 너희들은 마음, 마음, 마음을 깨달아야 한다." 하고 가르치셨죠. 마음병을 고쳐 주시려고 49년을 설하셨고, 마음병을 고쳐 주려고 한 사람이 있어도, 거지가 앉아 있어도 설하셨습니다. 이 허공에 사람만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런 나무 한 그루, 이파리 하나가 다 생명입니다.

그런데 중생 아닌 것이 어디 있겠으며 부처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생 속에서 부처가 나왔고 부처 속에서 중생이 나왔겠죠. 여러분, 바깥에서 기복으로만 나가는 것을 지금 불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위패를 모셔 놓고 빌고 있습니다. 자식이든지 형제든지 부모든지 다, 죽으면 위패에다가 붙여서 그냥 꽉꽉 묶어 놓죠? 그런 것부터 좀 개선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세상에,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 아니 잡숫는 것도 그냥 있지 않은 세상에,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고 배우는 사람도 그렇고 좀 깨고 깨어야 됩니다. 옛날에도 그랬지만요. 지금 말하고 금방 돌아가고 금방 돌아가고, 걸어왔는데 발자취가 하나도 없고, 가도 간 것이 없고…, 또 부산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렇게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시발과 종점이 어디 따로 있겠습니까? 이게 즉, 끝간 데 없는 한마음으로서 불바퀴 돌아가듯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 추저분하게 생각해서 음식물이나 놓고 빌고 절하는 것이 불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치고 마음이 폭 넓고 지혜로우며 물리가 터지게끔 자기가 채찍질을 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면 바로, 앉는 것도 선이요 서는 것도 선이요 눕는 것도 선이요 먹는 것도 참선이요, 참선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요다음에 만날 때는 서로 질문과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봅시다. 인연에 따라서 또 만날는지 모르니까요. 인연이라는 것이 그렇게 수가 없으니 인연이라는 말은 해서 뭘 합니까? '한마음' 그러면 됐지요. 하하하…, 안 그렇습니까? (대중 박수) 아니, 세상에 인연이라는 말을 어떻게 감히 할 수 있습니까? 만나면 인연이요 말하면 인연이요, 그저 아버지 만나면 자식이 되고 또 자식 만나면 아버지가 되고, 부인 만나면 남편이 되고 온통 그렇게 바뀌어지는데 어떤 사람 만났을 때 내가 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부처님이지요. 이름이 없는 게 부처예요.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가 아니고 부처님이 아닌 것이 부처님입니다. 어떤 거 할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없는 게 부처님이라는 뜻으로 여러분한테 설해 주신 겁니다.



그림 · 최주현

그러니 부처님께서 "야! 죽는 것이 사는 거냐, 사는 것이 사는 거냐?" 하고 물으셨대요. 여러분한테 그렇게 물으셨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네? 대답 안 하시렵니까? 지금 우리가 한 발 한 발 걷고 있는 게 몸뚱이로 봐서는 죽으러 가는 길이지요. 마음은 영원한 거지만, 영원한 그 주장자가 없으면 도로 환생을 할 수도 없지요. 이끌어 갈 수도 없고요. 그런데 그렇게 한 발 한 발 지금 죽으러 가는데 말입니다, 죽어야 또 새로 탄생을 하죠. 그죠? 이치를 보면. 그런데 살아 있으면서 죽으시라 이겁니다. 허허허…. 몸뚱이를 살려 두고 마음이 죽으라 이거예요. 마음이 죽어서 죽은 세상에 가면 전체를 알게 돼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데서 눈 뜨고 보는 것보다도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요만한 구멍을 조그맣게 뚫어 놓고 안에서 보면 바깥이 내다보이는데 바깥에서 그 안을 들여다보려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 이 심안의 도리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보배고 얼마나 귀중한 공부인데 그렇게 흐지부지하게 생각하곤 바깥으로만 살려 달라고 합니까? 글쎄, 얼마나 모자랍니까? 내가 내 생각을 해도 그래요. 여러분이 나 아님이 없습니다. 나도 모자라는 사람이니까요. 하하하…. 생각을 해 보세요. 금방 했다가 금방 그냥 없어지고 없어지고 하는데, 자꾸 쳇바퀴 돌아가듯 하는데 거기에 왜 걸립니까? 골이 비었습니까, 걸리게? (대중 웃음)

또 여러분이 살다가 돌아가실 때 말입니다, 집이 여러분을 따라갑디까, 금은보화가 따라갑디까? 몸뚱이가 따라갑디까, 형제나 자식, 부인, 아니면 남편이 따라갑디까? 모두 화장터까지밖엔 안 가 줘요. 그리고 보물은 방에서 내다보지도 않아요. 또 집은 대문 밖에만 나섰다 하면 내다보지 않는다고요.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사실을 스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나오고, 거기서 알고 있는 무상한 그 세상이 그렇게 돼 있는 거니 그걸 좇아서 우리가 좀더 연구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문화 문명을 꽃 피우게 하는 것이요, 세계를 조화롭게 해서 평화로움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구이팔아, 너는 알겠지. 너는 알겠지.' 그러고 뭐라고 뭐라고 그랬습니다. 하하하….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마산에 처음 와서 여러분을 만나 뵙고 보니까…. 뭐, 저는 외국을 가도 그렇지만 항상 둘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핵심을 이렇게 일러 주고 또 배우고 이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도요, 자기 핵심을 불어넣어 줘서 이걸 알게 하니까 "내 마음 깊은 속에 생산처가 있군요." 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여간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공부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배워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해서 그쪽에 줘야 옳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줘야겠지요? 우리가 동양의 조그마한 계란 노른자위로서 핵심적인 문제를, 정신적인 미래에 어떠한 것을 가져올 그 보물 자체를 '바로 이런 것이 보물이다' 하고 줘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남한테 얻어만 먹고 살고 남의 뒤만 따라가고 이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겠습니까? 나는 지금 급하니까 건둥건둥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건둥건둥한 데에서 단 하나 둘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세요. 건둥건둥했지만 아주 우리에게 밀접한 인간 마음의 도리가 있습니다. 자식이 나가서 안 들어온다, 자식이 나가서 나쁜 일을 한다, 자식들을 잃어버렸다 등 모두, 이것은 일체 만법에도 해당됩니다. 그런 것들을 말로만 "너는 왜 나가서 자고 안 들어왔니? 왜 공부를 안 하느냐? 너는 빌어먹기밖에 더하겠느냐. 배울 시기에 못 배웠으니 너는 만날 노동이나 해야지." 이러고 그냥 야단법석들을 하는데 나는 말로 해서 된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이심전심이라는 도리를 아십니까? 이열치열이라는 말도 아시죠?

그리고 전구는 저렇게 많지만 스위치는 어디 한 군데에 있을 겁니다. 여기 안에 들어오면 스위치가 두 개 켤 거, 세 개 켤 거 아주 이렇게 다양하

☞26면으로 계속

범음 · 범패
수강생 모집

교육과정
1. 49재 및 천도재 의식(6개월 과정)
● 천수바라 ● 사다라니바라
● 도량게 ● 다게작법
※ 49재 및 천도재의식 후 점안의식 강의(포함)
※ 매주 수요일 15시(수시모집)
2. 2009년 윤5월 대비 생전 예수재 의식
※ 개강일 : 7월 16일 부터(매주 수요일)

준 비 물
녹음기, 필기도구
◆ 녹화, 촬영 절대 금지.

송강 범음·범패 전문강원
● 원장 : 오송강(중요무형문화재 준 보유자)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5 미륵당
011-258-0314

한국불교여래종
입 종 안 내
사찰등록 및 여래종에 입종하여
여래의 사도(스승)로서 포교 및 전도를
함께할 종도 · 문도를 환영합니다.
한국불교 여래종 총무원

행자(남,여) 모집
불교교학 연구및 수행을 통하여 포교및
전도의 뜻을 둔 초심자를 모집합니다.
한국불교 여래종 총본산 대약사사
전화 043)731-2261 / 043)731-6454
팩스 043)731-6453
충북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 산71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 강건너)

불교 전통의식 수강생모집
한국불교태고종 경북 동부교구 종무원에서는 불교의식의 중요함을 인식하여 각사암에서 꼭 필요한 의식을 여법하게 할 수 있도록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의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교육과정 1년 (서울,경기 의식기준)
1.사물다루는법 : 도량석, 조석예불, 각단예불, 각청(불공), 시식
2.천 도 의 식 : 49재, 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 상단권공,시식
3.각종바라작법
(꼭 필요한 의식만을 집중적으로 교육합니다.)
4. 대 상 : 승속 관계 없이 재가불자 수강 가능
5. 일 시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6시까지 (경우에 따라 요일변경)
6.장 소 : 경북 동부교구 종무원 설법전
7.수 업 료 : 매월 10만원
8.접수연락처 : 054)762-5888, 011-819-7464 팩스 054)762-5889
한국불교태고종 경북 동부교구 종무원
경북 경주시 강동면 단구리 1278-9번지 2층

입종안내
대한선불 조계종
총무원장 영곡 효주
종회의장 법달 원정
교육원장 효타 원공
사정원장 무착 효산
포교원장 무원 도일
호법국장 무타 대한
각 지역구 종무원장 입종을 환영합니다
대한선불 조계종은 선을 생활화하는 종단으로써 불기 2552년 5월 17일 창종 하였습니다. 대승적 불교를 지향하며 이 땅에 불국토 건설을 함께하실 스님들을 기다립니다.
■ 교육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324-4번지 효타암
전화 051)524-9406 / 010-7121-9406
■ 총무원
경주시 내남면 망성리 753-1번지 무진암
전화 054)744-0181 / 010-3178-1223

buddhanews.com

진짜 사랑을 한다면 탁 놔주는 그 사랑이 멋진 사랑

☞25면에서 계속

게 되어 있지만 여기 전체의 스위치는 따로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들이다 뭐다, 이 전구다 저 전구다 따로따로 생각할 게 하나도 없이 '내 한마음 주인공만이, 저 마음의 주인공과 둘이 아닌 까닭에 이끌어 주고 또 집에 들어오게 하겠지. 당신밖엔 없어. 당신밖에 믿을 게 없어. 내가 누굴 믿어? 허공을 믿어, 이름을 믿어?' 하고 진실히 믿으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먹고 싸고 자고 아프고 죽고 하는 그 다섯 가지는 누가 대신 못해 준다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속 주인공에 맡겨 놓으시라는 겁니다. '한마음' 이렇게 묶는 것은…, 아, 여러분이 살면서 겪어 보시죠. 여러분이 여기에 교자상 하나를 차려 놓고요, 몇 분만 청해서 식사를 대접했는데 아, 초대받지 못한 분이 노하셨단 말입니다. 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딴 데서도 또 '요놈, 두고 보자' 이러거든요, 허허허…. 그러지도 않으면서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그릇 놓고 전부 청하자. 그러면 뭐, 날 나쁘다 좋다, 덜 먹었다 더 먹었다 할 것이 없지 않느냐.' 이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마음' 하면 그뿐인 것을…. '한마음' 해 놓고 '주인공' 하면 한마음이 모여서 기둥이 돼 가지고 하늘을 꿰고 땅을 디뎠는데 뭐가 탈이 납니까? 안 그렇습니까? 뭐가 탈이 납니까? 이사를 잘못해서 탈이 나고 뭐가 잘못해서 탈이 나고 조상이 잘못해서 뭐가 어떻고, 뭐가 탈이 납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가 얘기하는 그 도리를 실천해 보세요. 그래서 아들이 안 들어온다 누가 안 들어온다 이러는 것도 말로 하지 말고 '내 한마음 주인공만이 저 애를 이끌어 줄 수 있다.' 하고, 남편도 안되겉랑. '한마음 주인공만이 우리 남편을 이끌어 주겠지.' 하는 그 마음으로 믿고 놓으세요. 그렇게 안으로 찾는 거는 공덕이 되지만 바깥으로 아무리 돈을 놓고 기도를 해 보고 해 보세요, 공덕이 되나. 달마 대사가 양 무제더러 말했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기도로는 아마 실천에 옮겨지지 않을 겁니다. 거짓말인가 해 보세요, 모두. 한번 해 보시라고요.

만약에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다면 내가 머릴 왜 깎아요? 네? 내가 골이 비었습니까? 이 모습을 가지고 얼마 살지도 못할 거를 아, 지금 진실한 말만 해도 다 못할 텐데, 아니 왜 가짜 짓을 합니까? 그게 얼마나 골이 빈 짓입니까. 그리고 괴롭고요. 돈 벌려니 괴롭고, 돈 봉창에 넣으려니 괴롭고, 넣으면 넣은 대로 괴롭고. 아이구, 이거 얼마나 골빈 짓 하는 건 줄 아십니까?

참, 여러분한테 '주인공에 모든 것을 다 맡겨 놓고 살아라. 거기밖에는 해결할 수 없다. 거기밖에 감사한 데가 없다.' 이러는 것은 '재산을 버려라. 너는 이렇게 해라.' 이러는 게 아닙니다. 돈 벌기보다 쓰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누가 돈을 다 버리라고 했나요? 올바로 쓰는 것이 벌기보다도 더 어렵다는 그 사실만 알면 되고, 우리가 죽을 때 같이 가주지 않는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 쓸 데다 쓰고 적절히 산다 이겁니다. 손을 펴고 오므릴 줄 모르면 반병신이죠? 또 주먹을 쥐었다가 펼 줄을 모르면 또 반병신입니다. 폈다 쥐었다 폈다 쥐었다 이래야 이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을, 그대로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살 줄 알아야 사람이다, 만물의 영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자고요. 불자! 뭐 부처님이 따로 있어서 불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영원한 불(佛)이니까, 바로 여러분 몸은 '자(子)'니까 불자지요, 불자. 그대로 불자네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자식이죠. (대중 박수) 손바닥 치려고 하지 말고요, (가슴을 짚으시며) 마음, 이거를 아주 귀중하게 생각하세요. 손바닥 치면 나는 좋아요. (대중 박수)

두서없는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렸지만 여러분은 앞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듯이 '내 한마음 주인공만이….' 그게 본래자성불이라는 겁니다. '내 한마음의 주인공만이 나를 이끌어 갈 수 있고 화목하게 해 줄 수 있고, 내 가정을 이끌어 갈 수가 있고 병고도 바로 거기서 나온 거니까 낫게 할 수 있고 그런 것이지.' 그렇게 하고서 감사한 것도 거기요 모두 거기니까 거기에 감사하고 가시다 보면 바로 감사하다고 할 놈도 없고 감사를 받을 놈도 없고, 이렇게 될 때에 비로소 완성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두서없이 말한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하하하…. 아무리 못났다 하더라도 생각은 있겠죠.

발이 많이 달린 돈벌레가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저렇게 다리가 많은데 걸림 없이 간다." 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아,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도 다리가 많은데 이날까지 걸림 없이 다녔거든요. 하하하…. 그런데 그 돈벌레가 '다리가 이렇게 많으니까 걸리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순간 한 발짝도 떼어 놓지 못하게끔 된 거예요. 그런 것을 다시 '이거는 모두가 한 다리구나.' 하고 생각하니까 그냥 거침없이 가더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요것조것 따지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한마음', 누구를 막론하고 그냥 '한마음 주인공' 이러면 됩니다. 그럭하다 보면 부처님께서 49년 설하신 그 골수의 뜻을 아실 겁니다, 아마.

그러니 여러분이 경을 말입니다, 뭐 법화경이니 화엄경이니 능엄경이니 금강경이니 반야경이니, 경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를 내가 평생을, 늙어 죽을 때까지뿐만 아니라 또 태어나서 또 읽고 또 태어나서 또 읽어도 끝이 없어요. 경구를 가지고는 생사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죠. 사명 대사가 새를 잡아 가지고 올라가서, 여러분은 다 아시죠? "내가 이걸 놔 주겠습니까, 안 놔 주겠습니까?" 하니까 아무 소리 없이 서산 대사가 문지방을 쳑 양쪽을 딛고 서서 "내가 나가겠느냐, 들어가겠느냐?"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 중요한 겁니다. 한 다리는 바깥으로 딛고 한 다리는 안으로 디뎠는데 '안과 밖이 둘이 아니어서' 하는 거는 마음은 내 마음대로 이리로도 갈 수 있고 용도에 따라서 저리로도 갈 수 있습니다. 이건 자유스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고정되지 않았죠. '나가야만 한다' 하는 것에 매어 놓지도 않았고 '들어가야 한다' 하는 것에 매어 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펴고만 있는 것도 아니고 쥐고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펴려면 펴고 쥐려면 쥐는 거죠. 그래서 고거를 알고 넘어갈 수 있다면, 편다 쥔다 이런 거는 그냥 놓고 이걸 딛고 거름 삼아, 쥔다 편다 이런 거를 그냥 거듭 놓고 그 자리를 딛고 넘어서는 거라야만이 생사를 넘어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꿈도 생시고 생시도 꿈이니, 그 꿈도 꿈이요 생시도 꿈이니 그걸 그냥 딛고 넘어서는 그런 자체가 돼야만이 바로 눈 뜨고 열반을 하는 거죠.

어때요? 죽고 나서는 아무것도, 부닥침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한마음에서 만약에 촉각이나 미각 같은 감각, 지각, 모든 게 한데 합쳐서 움죽거린다면…. 내가 아까 얘기했죠? 원자에서 입자가 돼 가지고 분자로 해 가지고…. 예전에 박 부인은 남편을 돕기 위해서 노간주나무 이파리를 하나하나 군사로 다 만들었대요. 어때요? 모습만 보고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은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인공위성을 띄워 놓고 전파를 통해서 우리가 세계를 두루 한다는 그 점 말입니다. 그 점을 보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말입니다. 인공위성을 띄워 놓고도 그 비밀 번호 하나 잊어버리면, 딴 놈이 탁 채어 가면 그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마음 보배가 능히 이 세상을 다 쥐고도 남는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랬죠. 만공봉의 연꽃은 부처님의 설이지만, 깊은 물의 용무는 그저 한바다를 들이키고 토하고 들이키고 토하고, 내고 들이는 데에 그것이 바로 문수, 법신이라는 얘기죠. 그게 뭐냐 하면 부처님의 마음이라는 소립니다. 부처님이 따로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부처님의 마음이 마음을 일으키니까 법이 되고, 마음을 내면 몸은 움죽거리는 거니까 화신이죠. 자꾸 변동해 가면서 움죽거리니까요.

그래서 변동해 가면서 움죽거리면서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서로를 위해서 일을 하니까 그것이 보현 아닙니까? 왜 따로따로 보십니까? 지신도 나요 용신도 나요, 때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내 앞에 닥치는 대로 바로 나 아닌 게 없습니다. 신중도 나요 약사도 나요 부처도 나요, 모두 나 아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라고 한 거죠. 나 아님이 하나도 없어서 나도 없고 다 없는 거죠. '무(無)'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공했다고 색과 공은 둘이 아니니라 했던 겁니다. "색이 즉 공이요, 공이 즉 색이니라." 했던 거죠. 그러니 우리가 불교를 진짜로 알아야 합니다. 불교를 뭐 딴 사람이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이 다들 가지고 있죠. 나도 그렇고요.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바로 불이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게 교입니다. 지금만 말합니까? 금방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서 "아, 나 배고파. 더워. 뭐 시원한 것 좀 줘!" 하고 서로 말하는 게 교(敎)죠. 그리고 화목을 가져오는 거죠.

여러분은 자손들이 어릴 때부터 사랑을 길러 주세요. 어디 나가실 때는 냉장고 문에다가 편지를 붙여 놓고 가 보세요. 종이에다 뽀뽀를 해 가지고 "아무개야, 널 사랑해. 엄마가 금방 갔다 올 테니까 여기 넣은 거 꺼내 먹고 너 요렇게 요렇게 있어." 그러면 그 글을 읽고는 "호호호, 엄마도!" 그러고선 이탈되지도 않고 엄마가 올 때까지 아주 착실하고 즐겁게 기다릴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마음을 쓰신다면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할 것 없이 그렇게 해서 이탈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핵심을 불어넣어 주지도 않고, 뿌리를 싱싱하게 해 주지도 않으면서 만날 잎만 붙들고 가지만 붙들고 흔들어 봤자 낙엽만 지죠. 그냥 화가 난다고 가지를 꺾어 버리고 이파리를 떼면서 온통 야단을 하니까 그 자식은 그렇게밖엔 될 수 없죠. 장관을 해먹으려도 부모들 때문에 못 해먹게 되는 수도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 더 진실히 생각하시고 부드럽게 말해 주세요. 여자가 나가서 난동을 부리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또 남자가 난동을 부리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여보, 좀 피곤하셨겠소. 그러니까 이거나 잡숴 보쇼." 그러고선 평소처럼 웃으면서…. 아니, 꽃이 많은데 말이요, 나비가 한두 군데 뭐, 이쪽저쪽에 가서 앉는데, 그것도 꿀 때문에 그러는 거지 꿀이 아니라면 그럴 리가 없지요, 네. (대중 웃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다 내버리고, 다 홀딱 내버리고 몸까지도 내버리고 갑니다. 더우면 시원한 것, 추우면 뜨뜻한 것 입혀 가면서 씻어 주면서 발라 주면서 온통 쓰다듬고 했는데도 몸이 자기 좇아가던가요? 안 좇아가죠. 그러니까 이판사판입니다. 어차피 다 벗고 갈 몸뚱이, 한 발 한 발 디딜 몸입니다. 그러니 마음공부나 잘하세요. 하하하….

요다음에 또 그렇게 태어나 가지고는 깡통끼리, 또 자식과 부모 깡통끼리 만나서 그냥 만나기만 하면 부딪치지…. 아, 소리가 얼마나 나요, 깡통이? 넝마는 넝마대로 만나고 금은 금대로 만난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그러니까 만날 끼리끼리 만나죠. 그러니까 누구 탓 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은은 은대로 만나고 금은 금대로 만나고 넝마는 넝마대로 만나는데 누구 탓을 합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이판사판이에요. 어차피 그럴 일이라면 부드럽게 얘기해 주고 그러세요. 그까짓 거 얼마나 살다가 갈 거라고 그렇게 애탄지탄 덜그렁대며 살아요? 진짜 사랑을 한다면 탁 놔주는 그 사랑이 멋진 사랑이죠! (대중 박수)

아이구, 한 시간이 넘었네요? (대중 웃음) 이 더운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하고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니 나도 여러분과 같이 하기 위해서 선풍기도 이쪽에 놓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나만 시원해야 합니까? 나는 그래도 떨어져 있어서 좀 나은데 여러분은 같이 그렇게 끼어 앉아 있으니까 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바깥으로는 절대 믿질 마세요.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면 위로는 조상의 묵은 빚을 갚을 것이고 아래로는 햇빛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바깥에서 그렇게 극매고 그런다면 여러분의 묵은 빚도 갚을 수 없고 햇빛도 줄 수 없습니다. 이거를 명심하십시오, 아주! 오늘부터 그렇게 한다는 거를요. 감사합니다. (대중 박수)

역대의 조사들, 천백억화신들, 일체제불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응해 주시면서
한 찰나에 드시고 한 찰나에 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위 법문은 1991년 6월 28일 마산대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원인을 알면 막힌 일이 풀립니다."

* 대자대비관세음보살 * 지장보살님의 신묘한 가피력!
기도하시면서 몸소 보고, 듣고, 체험 하십시오

* 소승은 우리들의 몸에(빙의 되어) 방해 받고 있는 부위를 정확하게 찾아내어 원인을 제거하고 영가를 천도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신속하고 명쾌합니다.

* 빙의(영가)가 천도되면 어둡고 거칠은 얼굴색이 맑고 맑아지며 마음의 평온함을 되찾고 각종 우환, 병고, 악연, 방황 등이 소멸되어 새롭고 활기찬 삶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가내 길상 (영가 천도재) 전문 기도 도량

<관세음 보살님 친견 스님이 천도재 기도 집전>

●가출 청소년 귀가지도	●이사 후 사건, 사고 잦으신 분(가정불화, 사업부진)
●신내림(무병) 소멸기도	●정신질환, 가위눌림, 우울증 소멸기도
●병원 치료 후 회복부진	●혼사에 장해가 있는 분
●빙의되어 정신이 흐리거나 몸이 아픈 종교인 상담 해 드립니다.	
※ 각종 시험에 계속 낙방 하시는 분 → 행정고시, 사법고시, 고득점 대입합격	

◆ 본 사찰에서는 영가 천도 기도중에 향 연기와 풍경(바람)소리로 영가 천도의 현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부처님의 법은 대자연이며 그 법을 만난 인연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
· 1998년 7월 24일 KBS 2TV '달마도의 신비'에 출연
· 만봉스님계열 불교미술 탱화 사사수행

사찰 건립 불사시주 받습니다.

※매월 음력 초하루 법회에 처음 동참하신 불자님께 소지용 달마도 1점 무료 보시합니다.

경기도 하남시 초일동 330-3번지 도법사 주지 무하 합장 H.P 017-331-0769 / TEL 02)429-0769
※ 예불 법사로 인하여 오전에는 상담이 어렵습니다. (농협 221104-52-037131 김병룡)

도서출판 수선재 WWW.SOOSUNJAE.ORG



잘 죽는 법과 사후세계의 구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주는 책

【 죽음을 준비하는 법 】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모든 인간이 하나도 예외 없이 언젠가는 죽을 것인데도,
자기가 죽으리라는 걸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수선재 엮음 / 문화영 원저 / 328쪽 / 값 12,000원

【 그 외 명상학교 교과서 시리즈 】 건강하게 사는 법 • 사랑의 상처를 달래는 법 • 행복하게 일하는 법(근간)



인간의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에 대한 명쾌한 해답!

【 목적있게 사는 법 】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태어났으며, 왜 생로병사를 겪을까?
이러한 의문은 살아있는 동안 누구나 풀어야 할 숙제이다.

그 해답은 명상 수행에서 찾을 수 있다.
명상 수행을 통해 '진리를 보는 눈'이 열려 참된 본성과 하나가 되면,
누구나 직관적으로 인생의 목적을 깨달을 수 있다.

수선재 엮음 / 356쪽 / 값 12,000원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19 번지 2층 Tel.(02)737-9454 Fax.(02) 737-9456



불자 세상보기

이 종 옥
동국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의식개혁 없는 정보보안 없다!

최근 국가전산망시스템이 민간업체에 무단 도용되어 국민 신상정보의 대규모 유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보보안에 대한 경각심이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우리는 정보화의 편리함만 강조한 나머지 이와 공존하고 있는 위험 또는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보안불감증'에 대한 근본적 성찰보다 논란의 중심이 정보기술적인 면에 치우친듯하여 안타까운 면이 있다.

현존하는 정보기술은 전산망 또는 정보시스템을 해킹으로부터 안전하게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킹이나 대규모 정보유출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는 보안체계 구축에 적절히 투자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뿐만 아니라 한번 구축한 보안시설도 불법행위가 진화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시켜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기술적인 면과 더불어 정보보안이란 기술로만 해결할 수 없는 보다 근본적인 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범죄가 경찰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과도 같다.

범죄 없는 소위 선진사회로 가는 길은 첨단경찰과 함께 소득향상을 통한 사회 안정 및 성숙한 시민의식이 뒤따라야 하는 것처럼 정보화 사회의 선진화도 이와 같다. 최근 국보1호인 숭례문이 허술한 보안체계로 인해 우리 눈앞에서 불타 사라지는 국가적 아픔을 겪은 바 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어 소중한 가치를 모르고 지내던 우리들은 정작 숭례문이 사라지고 나서야 문화적 가치를 인식하게 되었고, 그 가치에 걸맞지 않은 허술한 경비체계가 인재(人災)였음을 알고 안타까워한 바가 있다. 정보보안의 문제도 숭례문의 경우와 같다. 정보보안의 가장 큰 첫 번째 문제는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보안불감증'이라고 필자는 인식한다.

인터넷 강국답게 정보보호에도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보가치에 대한 재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가, 공공기관 및 기업이 상당량의 디지털정보를 축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중요성은 간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각 기관들은 보유한 정보의 가치에 걸맞은 정보보호장치들을 시급히 설치함과 더불어 내부적으로는 정보보안체계와 활용절차의 수립도 중요하다. 통계에 의하면 작년도 핵심기술 유출 26여건, 33조여 원의 피해는 대부분 내부자에 의해 정보가 유출된 것임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이의 사유화를 막을 수 있는 사회적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선진국의 상거래가 '신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번호에 의한 본인 인증이라는 '신분'에 의해 상거래가 이루어진다. '신분'에 의한 상거래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의 빌미를 제공하고, 부도덕한 기업은 축적된 개인정보를 사유물처럼 취급하여 유출한다. 통계에 의하면 대부분의 개인정보 유출은 해킹보다는 내부자 유출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한다. 얼마 전 하나로텔레콤이 600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1000여개의 텔레마케팅 업체에 유출한 사례가 개인정보 사유화에 대한 단적인 폐해일 것이다. 이를 예방하려면 더 이상 기술적 편리함을 우선하지 않고 개인정보 노출 없이 '신용'에 의한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와 체계가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콘텐츠 시장의 선진화를 이루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선진화되면서 불법복제 상품이 근절되어가듯 불법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 근절이 해킹방지를 위한 1차적인 노력일 것이다. 즉, 은밀한 해킹은 개인 컴퓨터를 통로로 접근하며, 해킹 프로그램은 불법 소프트웨어에 기생되어 전파된다. 우리가 무심히 공짜라고 불법 소프트웨어를 다운할 때 해킹의 위험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콘텐츠 생산자와 소비자는 클린 콘텐츠를 대가있게 유통하는 선진 문화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최근 청와대 정보시스템인 'e지원'을 두고 전·현직 대통령 간에 논란이 있어 화제이다. 봉하마을로 복제해간 정보를 양해를 받았네 아니네 하는 논란은 논란이전에 국가자산을 사유물화한 인식의 단면을 보여준다. 또한 열람권을 주장하며 e지원의 운영시스템을 복제한 것은 핵심보안요소인 시스템체계 및 접근경로가 유출된 것이기에 이유야 어찌되었던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이다. e지원 논란은 우리나라 최상층부의 정보보안 인식을 나타내는 사례이기에 정보전문가로써는 씁쓸할 수밖에 없다.

우리 모두는 적절한 보안체계에 대한 적시의 투자와 더불어 보안에 대한 의식개혁 없이는 숭례문을 잃었듯이 가까운 미래에 정보유출로 인한 재앙이 오지 않는다고 할 수 없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불자의 눈

여름 수련으로 '고통' 벗자

미국산 쇠고기 파문이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유가 인상에 따른 서민경제의 곤궁이 심화되고 있다. 운송료 인상(19%)에 대한 합의로 화물연대의 파업은 수습국면을 맞았지만 근원적인 해결책은 아직 요원하다. 이렇게 불안하고 뒤숭숭한 가운데 장마가 시작됐다. 지난해까지의 수해 지역에 대한 복구가 완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장마를 맞는 민심은 불안하기 그지없다. 이제 장마가 끝나면 무더운 여름과 몇 차례의 태풍이 찾아 올 것이다.

앞을 봐도 옆과 뒤를 봐도 걱정이 태산이다. 총체적 난국이란 말은 이런 상황을 위해 생겼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기름 범벅이 된 태안반도에 인간의 아름다운 단결을 심은 우리가 아닌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선한 인(因)의 공덕 쌓기를 발원하고 사는 불자들이 아닌가?

이 여름, 호재 보다는 악재가 훨씬 더 많은 이 여름을 맞으며 우리는 어디서 행복을 찾을 것인가? 산사로 가라. 도심의 절집도 좋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행복을 건져 올리는 가장 빠른 길이다. 지금 사찰마다 여름수련대회를 기획하고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각자 자신의 역량에 맞춰 수련회에 참가하는 것 보다 더 좋은 피서는 없다. 사찰의 여름 수련회는 더위만 피하는 곳이 아니다. 세상살이가 안겨주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힘과 지혜를 줄 것이다.

대운하 중단, 잊지도 말자

정부가 한반도대운하 계획을 접었다고 한다. 국토해양부가 6월 19일 대운하 관련 연구용역 발주를 중단하고 준비단을 해체했다는 소식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그간 우리 사회에 많은 논란을 제공하며 다양한 문제의식을 심어 주었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도전은 정복을 전제로 하고 있기에 자연의 반격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 하는 법이다. 그러나 개발론자들은 언제나 개발 그 자체만 생각한다. 그래서 장기적인 인간 삶의 조건보다는 개발이익과 단기적 성과에 목숨을 거는 것이다. 한반도 대운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보다 큰 틀 속에서 하나하나 따져야 할 것이 너무 많은데, 한 마을의 치수관개 사업을 하듯 쉽게 생각한 면이 없지 않다. 그래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힌 것이다.

지금 대운하 사업의 중단이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불붙은 촛불이 가리키는 민심의 방향이 어느 쪽인지 깨달았다는 것을 뜻하는지는 모르겠다. 이제 정부나 국민은 지난 몇 달 대운하를 두고 엇갈렸던 생각의 고리들을 다시 한 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민심의 방향은 어떤 것인지, 정부의 대응방식 그리고 국민적 합의를 위한 노력의 과와 실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할 때이다.

한바탕 잔치가 끝났다는 생각으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대운하와 관련한 여러 논란들은 분명, 우리의 미래를 위해 좋은 거울이 될 것이다. 이 논란의 과정과 정부 차원의 대응과정 등을 모두 미래를 위한 거울로 남겨 놓는 지혜는 불교계나 시민단체 정부 모두의 몫이다.

"취하지 않아도 마음 알 수 있어요"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69 술 보다 마음의 향기

술은 나의 힘?

"야, 너 정말 술 한 잔도 안 하는 거야?" 친구가 짜증스런 목소리로 물었다. "너 어떻게 된 거야?" "응, 안 먹어." 김양은 슬며시 미소가 나왔다. 친구의 모습이 불과 얼마 전까지 바로 자신의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20대 후반인 김양은 술을 잘 하는 편이었다. 김양은 술을 마셔야 평소 하지 않던 속 이야기들을 하게 된다고 믿었다. 누구와 갈등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술 한 잔 하며 풀어버려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간혹 술을 못하는 친구가 있으면 답답했다. 그 친구와는 솔직한 대화를 할 수 없는 것 같았다.

직장에서 술자리는 2차, 3차까지 이어지기 일쑤였다. 부모님은 "너 정말 그렇게 술 마시고 다녀도 되는 거니?"하며 염려하였다. 김양은 의기양양하게 "이래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였다. 어느 날 거래처 직원과 중요한 이야기를 할 일이 생겼다. 그에게 전화를 해서 "이 대리님, 오늘 저녁 같이하세요. 제가 대접할게요." 그러면서 속으로 오늘 그 사람을 취하도록 해서 속을 터놓고 대화를 해야지. 그래야 이 일을 잘 성사시킬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하였다.

참선은 나의 힘

그런데 뜻밖에도 이 대리는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었다. 따라주기만 할 뿐 자신은 마시지 않았다. 김양은 실망하였다. '아휴, 답답한 사람이네. 오늘 깊은 얘기 하기는 틀렸다' 하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그는 차분하게 자신의 얘기를 하고 있었다. 진지하고 솔직한 자세에 믿음이 갔다. 김양은 자신도 모르게 역시 진지하게 일을 의논하게 되었다. 식사가 끝날 때 김양이 "2차 가서 이야기해요"라고 했더니 이 대리는 "네, 2차는 제가 모실게요"하더니 웬 찻집으로 안내하는 것이 아닌가. 김양은 웃음이 나왔다. 아니, 노인들도 아니고 웬 찻집인가. 그러나 이 대리가 말하는 것을 듣고 있으니 희한하게 마음이 편안해졌다. 저절로 자기 이야기가 나왔다. 전통차를 마시니 술은 깨는데 대화는 오히려 무르익어갔다. '참 이상하네' 김양은 생각했다. 어떻게 맨 정신으로 취한 것 같이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걸까. 그날 밤 열시에 취기가 전혀 없이 들어오니 어머니가 "너 오늘 늦을 거라고 했잖니?" 하며 놀라는 표정이다.

그 후 여러 번 만나면서 이 대리가 참선이라는 것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김양의 회사에도 명상모임이 있으니 한번 꼭 나가보라고 했다. 제일 솔깃한 말은 "술 안 마셔도 취한 것처럼 마음을 열 수 있다"라는 것이었다. 호기심에 점심시간 명상모임에 나가보았다. 처음엔 좌선하고 있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다. 그런데 점심에 명상을 하면 이상하게 오후시간에 힘이 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재미삼아 나가기 시작하여 몇 달이 흐르자 그 모임에서 하는 대화시간이 기다려졌다. 환한 대낮에 잠시나마 자신의 얘기들을 하는 시간이 어느새 청량수처럼 느껴졌다. '이럴 수도 있구나. 취하지 않고도 마음을 열고 서로 믿을 수가 있구나.'

김양은 그렇게 조금씩 참선의 맛을 들여갔다. 깊이 마음을 집중하면 평화로운 기운이 온 몸을 감쌌다. 그 행복한 느낌은 아무리 취해도 느껴보지 못한 것이었다. 회식에서 술을 먹는 양이 조금씩 줄어갔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별로 눈치 채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제 김양은 취하지 않아도 솔직하고 진지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술을 줄이자 무엇보다 다음날 피곤하지 않아 일을 더 잘 할 수 있게 되고 건강도 좋아졌다.

마음의 향기

오늘은 모처럼 친구들과의 만남이었다. 그런데 밤에 작성할 자료가 있어 술은 마시지 않기로 했다. 예전 같으면 무조건 취하고 볼 일이었다. 오늘은 술은 마시지 않고 친구들과 대화만 했다. 그러면서 문득 친구들의 모습이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들이 취해서 하는 말이나 행동이 별로 아름답거나 좋아보이지 않았다. "제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전엔 저도 그러고 지냈죠. 왜냐하면 그게 전부인줄 알았거든요. 마음 속 참나를 만나는 법을 몰랐거든요."

김양은 술의 힘을 빌려야만 솔직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믿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닫게 되었다. 마음을 집중하고 다스려가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더 잘 수용하고 이해하는 힘을 얻고 있다. 이제 술이 아닌 마음의 향기와 법문의 향기에 취해지내고 싶다고 한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활 동 지 역	연 락 처
부산지사	오 세 룡	부산일원	051)632-0064 / 011-847-1211
대구지사	손 문 철	대구일원	053)768-8008 / 016-813-8008
충청지사	혜철스님	충북 / 충남	043)732-5560 / 010-9422-8453
경남 동부지사	혜봉스님	밀양 / 창령 / 의령	055)353-1196 / 017-650-1196
경남 서부지사	영민스님	김해 / 마산 / 거제	055)355-7472 / 011-9312-222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광주 / 전남지역	062)384-3009 / 016-629-1508
전북지사	조 동 제	전북지역	063)910-5199 / 011-9642-7733
영주지국	박 영 애	영주 / 문경 / 봉화	054)634-3429 / 011-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남해/고성/시천/함양/진주	055)746-9778 / 011-870-0021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 "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번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1-8413

천하의 명당에 누웠건만 옆구리가 시리구나

46 영조 원비 정성왕후– 홍릉



홍릉의 빈 자리. 영조가 승하 후 묻힐자리는 비어 있다.





미소띤 얼굴의 무인석(사진 위). 석양의 꼬리가 유별히 길다.

정성왕후(貞聖王后)는 1692년(숙종 18)에 태어나 1757년(영조 33)에 소생 없이 66세로 승하했다. 달성부원군 서종제의 딸이다. 1740년(영조 16) 혜경(惠敬)이라는 존호가 올려지고 생전에 장신(莊愼) · 강선(康宣) 등이 덧붙여졌다. 죽은 뒤 1772년 공익(恭翼)이 추존되고, 인휘(仁徽) · 소헌(昭獻)이 추상되어 '혜경장신강선공익인휘소헌'이라는 존호를 가지게 되었으며, 1778년(정조 2) 휘호로 단목장화(端穆章和)가 올려졌다. 시호는 '혜경장신강선공익인휘소헌단목장화정성왕후(惠敬莊愼康宣恭翼仁徽昭獻端穆章和貞聖王后)'라는 긴 이름이다.

왜 이렇게 존호가 덧붙여져 긴 이름을 갖게 되었을까. 시호는 살아온 이력서다. 그녀는 43년 동안 궁궐생활을 하면서 풍파에 휩쓸리지 않고 권세를 휘두르지 않았다. 66세로 승하하자 영조는 곡진한 심정으로 그녀의 행장을 기록했다. '40여 년 동안 대궐에 살면서 늘 미소 띤 얼굴로 과인을 맞아주고 왕실의 두 어른을 극진히 받들어 모시고 게으른 빛이 없다. 과인의 생모 숙빈 최씨의 신위를 모신 육상궁에 기울인 정성 또한 지극하여 고마움에 답하고자 기록하노라.'

영조는 왕후의 묘자리를 정하면서 자신도 그 곁에 묻히길 원해 자리를 마련했다. 그러나 영조는 그 자리에 묻히지 못했다. 묘지를 정하고 능을 조성하는 것은 다음 왕의 책무이자 권리다. 다음 왕이 누구인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비통한 죽음을 목격했고, 세손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무리들 틈바구니에서 기사회생으로 용상에 오른, 정조다. 할아버지 영조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지만, 할아버지는 손자의 왕권 승계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세손을 음해하는 무리들을 척결하는데 팔을 걷어 부치지 않았다. 정조는 자력으로 용상을 거머쥔 것이나 다름없다. 어찌 한이 없겠는가.

영조가 미리 자신이 묻힐 자리를 마련해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조는 할아버지를 이곳에 묻지 않았다. 영조가 묻힌 자리는 103년 전 효종이 묻혔다가 천정한 동구릉의 파묘자리다. 조정의 논란 때문인가, 정조의 복수극인가. 풍수에서 파묘자리는 혈이 파괴되어 흉지로 여긴다. 일반 백성들도 묘터를 잡을 때 기피하는 곳이 있다. 대표적인 자리가 파묘, 무당이 굿하는 곳, 감옥 터, 병영 터 등이다.

정성왕후 승하 당시 영조는 64세였다. 권력이 펄펄하던 시절이니 산릉공사에 막대한 투자와 공력이 가능했다. 멀리서 봐도 홍릉은 높고 웅장하다. 그러나 그는 여기 묻히지 못했다. 홍릉은, 길 건너편 장희빈이 묻힌 대빈묘보다 관심을 끌지 못하는 외로운 섬 같은 능이 되어버렸다.

능지를 정할 때 조정에서 약간의 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영조, 홍릉 위쪽에 마련한 묘지터 묻히지 못해
옆자리 덩그렇게 비어 외로운 섬 같은 능으로

황해도사 이현모가 상소하기를,

"홍릉 위쪽 비워놓은 자리는 선왕께서 오늘과 같은 처지를 미리 염려하여 정해 놓은 것입니다. 어찌 이를 버리고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하옵니까? 풍수설은 주자, 공자, 맹자가 말한 것이 아니며 땅 속의 일은 아득하여 알기 어렵습니다. 선왕의 유지대로 따르는 것이 가할 줄 아옵니다."

정조가 답하기를,

"장릉(長陵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에 있는 조선 16대 인조와 그의 비 인열왕후 한씨의 능)의 동구(洞口)자리도 또한 선왕께서 먼저 정해놓은 곳이다. 유독 홍릉에만 분부를 남겨 놓은 것이 아니다. 풍수를 동원해서 명당을 찾는 일은 이미 정자, 주자도 옳다고 했다. 그러니 다시 명당을 찾아보도록 하라."

정조의 내심이 엿보이는 발언이다. 그 후 대신들이 옛 영릉 자리(효종 파묘자리, 지금의 원릉)가 길지라 주장하고, 이의가 없어 능지로 결정했다. 꺼림칙한 기운이 자욱한 논의과정이다. 이런 연유로 홍릉의 오른쪽 공간은 덩그렇게 빈 채로 남아 있다. 그곳이 아무리 명당이라 해도 영조 아니면 곁에 묻힐 수 없는 공간이다.

정조의 한의 뿌리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비참한 죽음에 있다. 열 살배기 어린 애가 아버지의 비극적 죽음을 직접 목격했다. 아버지를 도우려는 세력은 없었다. 외할아버지 홍봉한, 어머니 혜경궁 홍씨도 아버지의 편이 아니었다. 혜경궁 홍씨가 쓴 <한중록(閑中錄)>도 사실 문제적 작품이다. 간략하게 살펴보자. 한중록은 혜경궁 홍씨가 쓴 자서전적 회고록이다.

필사본 14종이 있으며, 국문본 · 한문본 · 국한문 혼용본이 있다. 사본에 따라 <읍혈록(泣血錄)> <한중록(恨中錄)> <한중만록(閑中漫錄)>이라고도 한다. 전체 4편이며, 제1편은 1795년(정조19), 제2편은 1801년(순조1), 제3편은 1802년, 제4편은 1805년에 각각 씌어졌다. 제1편은 지은이가 회갑 되는 해에 친정 조카의 요청에 따라 써준 글이다. 자신의 출생부터 어릴 때의 추억, 9세 때 세자빈으로 간택된 이야기, 이후 50여 년 간의 궁중생활을 회고했다. 남편인 사도세자의 비극에 대해서는 차마 말할 수 없다며 간략히 언급했고, 후반부에는 정적(政敵)들의 모함으로 아버지 · 삼촌 · 동생들이 화를 입게 된 사건의 전말을 기록했다.

제2편은 67세에 쓴 글로, 사도세자 사건 이후부터 정조 초년까지 정적들에게 모함 받은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했다. 시누이 화완옹주의 이간으로 정조가 외가를 미워하게 되었으며, 당시의 세도가 홍국영이 개인적인 원한으로 친정을 멸문시켰음을 폭로했다. 삼촌 홍인한과 동생 홍낙임의 억울한 죽음을 슬퍼하며 하루 빨리 누명을 벗을 수 있기를 하늘에 축원하는 내용이다.

제3편은 68세에 쓴 글로 제2편과 내용이 비슷하다. 정조가 예전에 자신에게 효성이 지극했으며 검소하게 생활하고 학문에 정진했음을 회상하고 있다. 또 정조가 자신의 아버지와 숙부의 억울한 누명을 후일 반드시 풀어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되새기며, 어린 순조에게 자신의 소원을 풀어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이다.

제4편은 71세에 쓴 것으로, 제1편에서 차마 말하고 싶지 않다고 한 사도세자의 사건 내막을 기록했다. 사도세자가 영조에게 미움을 받아 뒤주 속에서 죽게 되기까지의 경위를 서술했다. 사도세자를 뒤주에 넣어 죽게 한 발상이 아버지 홍봉한에게서 나왔다는 이야기는 모함이며 아버지는 결백하다고 역설했다.

지은이가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는 사도세자 사건으로 비난받는 아버지 홍봉한의 결백을 입증하는 내용을 손자인 순조에게 읽히기 위한 것이었다. 홍국영 등 정적들의 모함으로 친정이 멸문지화를 당하고 홍봉한이 사도세자가 참변을 당할 때 뒤주를 바쳤다는 혐의까지 받자 아버지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쓴 것이다.

<한중록>은 영조실록과 더불어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그러나 이순신의 난중일기처럼 긴박한 당시 상황을 그때그때 기록한 것이 아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이 끝나고, 세월이 흘러 정조가 왕위에 오른 후 그리고 정조가 죽은 후에 쓴 회고록이다. 억울한 죽음을 밝힌 것이 아니라 친정아버지와 친정의 명예회복을 위해 쓴 글이다. 정조는 이런 어머니를 그리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부자간이든 모자간이든 권력이란 함정 앞에선 혈육의 의미가 모호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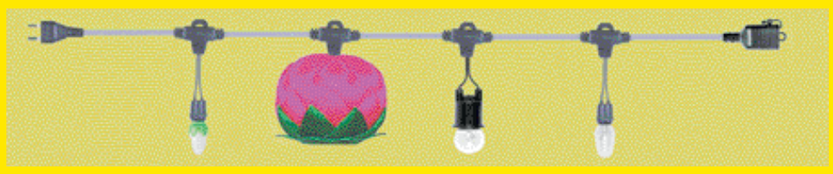
글=이우상(소설가 asdfsang@hanmail.net), 사진=최진연(사진작가)

*****홍릉(弘陵)**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도동 서오릉 능역 안에 있는 21대 영조의 원비 정성왕후 서씨(貞聖王后徐氏)의 능이다. 1757년(영조 33) 정성왕후가 죽자 이곳에 능을 조성하고 홍릉이라 하였다. 영조는 먼저 죽은 왕비의 유택(幽宅)을 정하면서 장차 함께 묻히고자 하여 허우(虛右)의 제도를 쓸 것을 명하여, 왕비능의 오른쪽 정혈(正穴)에 돌을 '十' 자형으로 새겨 묻도록 하였으며, 능의 석물은 쌍릉을 예상하여 배치했다. 영조의 능이 동구릉에 자리 잡게 되자 빈 채로 남아 있다. 능의 상설제도와 양식은 기본적으로 인현왕후의 능인 명릉(明陵)의 양식을 따르고 있으면서도 독특한 양식도 보이고 있어 <속오례의>와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의 제도가 반영되어 있다. '홍릉'이란 능호가 많다. 강화읍 국화리에 있는 고려 고종의 능이 홍릉(洪陵)이다.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에 있는 조선 26대 고종과 명성황후 민씨의 능도 홍릉(洪陵)이다.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불제 대원기업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장엄용(법당) 전기초

▶화재 위험이 거의 없다.
▶그을음과 납성분의 위험이 있는 일반초와는 달리 무공해임
▶시간 조절 가능



전 선 간 격
22cm,25cm,28cm,30cm,40cm,50cm,
1M,2M,3M,5M,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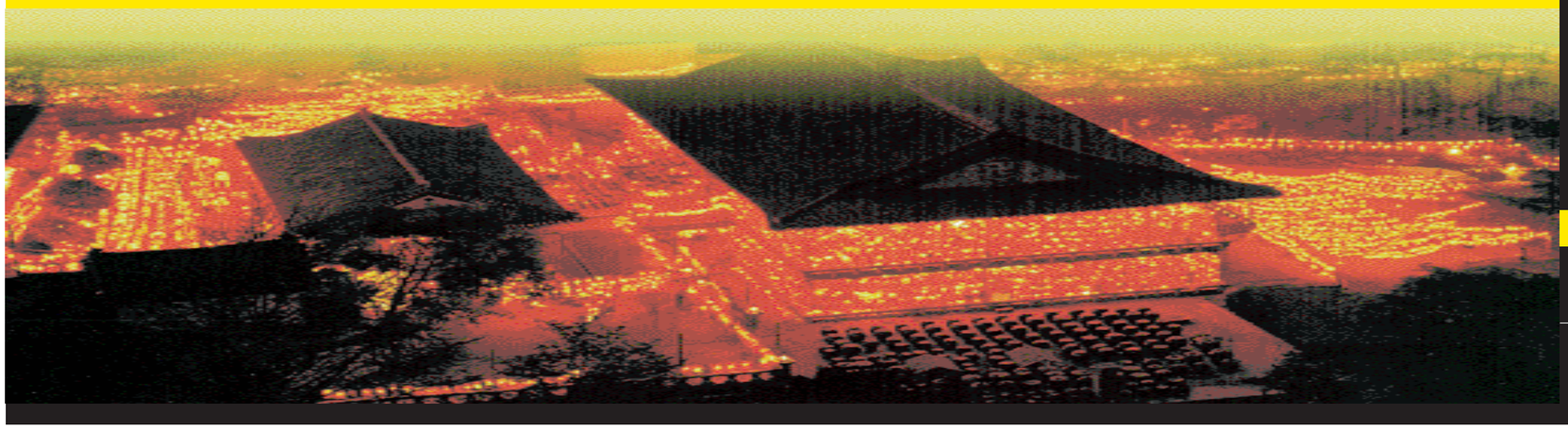
SMD, LED전구 (국산정품)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법당용, 외곽용
○ 휠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 반도체로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 소켓 AC220V용으로 다용도로 사용

사찰 램프전구(정품)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종류: 3W, 5W, 10W
○ 특 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건전지용초, 방생, 탑돌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등, 영가위패

연등(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 (02)2266-2634, 2263-2638 / 구입문의 (032) 582-6235~6 /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7-2



군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선시공